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THE STUDY OF THE ORDER OF WORSHIP IN CHRIST-CENTERED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PRESBYTERIAN KOSIN CHURCHES

written by

SUNGHOON A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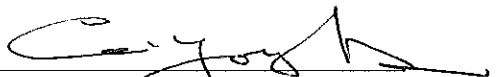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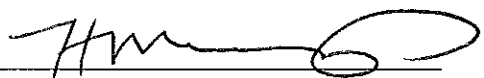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Chi Young Kay



Eun Chul Kim



Jin Ki Hwang

March 12, 2013

**THE STUDY OF THE ORDER OF WORSHIP IN
CHRIST-CENTERED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PRESBYTERIAN KOSIN CHURCHES**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HOON AHN

MARCH 2013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통한
예배순서 갱신 방안
- 고신교단 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계 지 영 교수

안 성 훈

2013년 3월

Abstract

The Study of the Order of Worship in Christ-Centered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Presbyterian Kosin Churches

Sunghoon Ahn

Doctor of Ministry

201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logical order of worship that recovers Christ-centered worship in today's church, which has lost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order of worship.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1) Is the etymolog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background of worship Christ centered? (2) What order of worship is found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does it appear to be Christ centered? (3) How has worship based on solid theological principles been ordered, and is it Christ centered? (4) What order of worship does the modern Protestant church follow, and does it appear to be Christ centered? (5) These questions are asked of the Kosin denomination. (6) What plan and model can renew a Christ-centered order of worship?

Chapter 2 examines etymolog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backgrounds to discern the essence of worship. Chapter 3 examines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order of worship. Although there is diversity in the types of worship, the larger framework—the two-part structure of Word and Sacrament—is consistently evident, which keeps the worship centered in Christ. Chapter 4 examines the order of worship based on theological principles, which are also Christ centered, and the flow chart of such worship is Christ centered. In Chapter 5, the various worship orders of contemporary Protestant churches are studied. Chapter 6 studies the Kosin denomination's

order of worship and suggests ways for worship renewal in the future. It also proposes a model of a Christ-centered worship order.

In conclusion, chapter 7 summarizes each chapter and presents research problems and developmen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center of worship is Jesus Christ before people. Through this paper, the writer reflects on the disorder and loss of the intrinsic meaning of worship in Korean churches and seeks to restore a Christ-centered order of worship. Such Christ-centered worship is always possible if one considers how God would feel throughout the worship and the focus is placed on God who receives the worship.

Theological Mentors: Chi Young Kay, PhD
Eun Chul Kim, PhD
Jin Ki Hwang, PhD

현 사

이 논문을 사랑하는 아내 혜영과 선물로 주신 두 자녀 주언이와 주형이 그리고 부족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신 부모님께 바칩니다.

감사의 글

두려움이 많은 나에게 유학의 길로 인도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쓰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아끼지 않으셨던 계지영 박사님의 지도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참고문헌들을 소개해주시고, 직접 책을 빌려주시는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피스를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여러모로 저의 형편을 챙겨주시며, 여러 번의 수정을 걸쳐 논문의 주제와 아웃라인의 뼈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황진기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행정적인 문제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의완 부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주 안부를 물으시며 항상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장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묵묵히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혜영이와 아빠의 기쁨이 되어준 딸 주언이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만4개월 된 아들 주형이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도움을 주신 제일영도교회 늘푸른 대학사역팀들과 5여전도회 회원, 그리고 금사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 윤한석목사님, 성순옥, 박선화권사님, 왕명숙, 박영숙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부족하지만 본 논문이 한국교회의 예배순서의 문제점을 반추해보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하는 예배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는 일에 쓰여 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3월 안성훈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4
제 2 장 예배의 본질과 기본적인 성격	6
제 1 절 예배의 정의	6
1. 예배의 어원적 의미	6
2. 예배의 신학적 정의	8
제 2 절 예배의 기본적인 성격	11
1. 예배의 하나님 중심성	12
2. 예배의 그리스도 중심성	12
3. 예배의 성령 중심성	13
4. 예배의 연속성과 확산	14
제 3 절 결론	15
제 3 장 예배의 역사와 발전	16
제 1 절 구약의 예배	16
1. 시내산 사건	16
2. 성막과 성전	17
3. 회당	18
4. 이스라엘의 절기들	19
제 2 절 신약의 예배	20
1.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	20
2. 그리스도 사건	21
3.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21
4. 흩어진 교회의 예배	22
5. 사도시대의 예배	23
제 3 절 초기기독교 예배	23
1. 초기기독교 예배의 요소들	24
2. 초대교회의 문헌들	25

제 4 절 고대와 중세 예배	27
제 5 절 종교개혁의 예배	33
1. 루터의 예배순서	34
2. 칼빈의 예배순서	36
3. 쾰빙글리의 예배순서	37
제 6 절 현대 개신교의 예배	38
제 7 절 결론	40
제 4 장 예배의 신학적 원리를 통한 예배순서	42
제 1 절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42
1. 그리스도 사건의 재연	43
2. 교회의 현재화	44
3.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45
제 2 절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	46
1. 복음적 예배순서의 8가지 요소	47
2. 말씀예배와 성찬예배의 2부 구조	52
제 3 절 결론	60
제 5 장 현대 개신교의 예배 현장분석	62
제 1 절 한국 개신교의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순서	63
1. 예전 중심의 예배	63
2. 전통적 예배	64
3. 찬양과 경배의 예배	67
제 2 절 한국 개신교에 발전 가능한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순서	71
1. 구도자 중심적 예배	71
2. 블랜디드 예배	74
3. 이머징 예배	79
제 3 절 한국 개신교의 각 교단별 예배순서	84
1. 성공회	84
2. 루터교	86
3. 감리교	89
4. 장로교	95
5. 성결교	99
6. 침례교	101
제 4 절 결론	103

제 6 장 고신교단의 예배순서와 예배순서 갱신방안	105
제 1 절 교단 헌법에 따른 예배 모범	105
1. 장로교 고신교단 소개	105
2. 고신교단 예배모범	107
3. 예배순서 해설 및 평가	107
제 2 절 고신교단 교회의 예배순서	109
1. 가야성안교회	109
2. 김해중앙교회	111
3. 분당샘물교회	114
4. 향상교회	116
제 3 절 21세기 고신교단과 한국교회의 예배순서 갱신방안	118
1. 무질서한 예배에서 질서 있는 예배로	119
2. 중구난방식의 예배에서 통일성을 갖춘 예배로	121
3. 인간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122
4. 회중의 수동적인 참여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123
5. 말씀예배의 1부 구조에서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로	124
제 4 절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 모델	125
1. 소규모에 적합한 모델	125
2. 중형 규모 이상의 모임에 적합한 모델	128
제 5 절 결론	131
제 7 장 결론	133
제 1 절 논문의 요약	134
제 2 절 발전적 모색과 연구과제	136
부록 1	138
부록 2	139
부록 3	140
부록 4	141
부록 5	142
부록 6	143
참고 문헌	144
Vita	148

표 목 차

<표 1> 역사적 예전들에 나타난 예배요소의 연속성	48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

본 연구자는 한국장로교회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배경 속에서 경험한 예배순서와 예배 요소들이 전부이고 진리라고 믿으며,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예배의 역사와 신학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동안 경험했던 예배순서와 예배요소가 예배의 역사와 신학적인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편리위주로 예배형식이 간소화되거나 회중들이 선호하는 예배순서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는 “전통적으로 예배가 2부의 구조로 1부는 말씀예배이고 2부는 성찬예배¹⁾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배²⁾”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는 예배형식이 2부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조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예배순서는 예배순서와 예배요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성”이 예배순서의 본질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다.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예배들은 이것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화하였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이중구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다. 말씀예전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성례전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1) Robert E. Webber, *예배학 (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148.

2) Robert E. Webber, *예배학*, 111.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재연함으로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2부 구조가 예배 안에서 충실하게 행해 질 때, 그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찬의 예배의 2부 구조는 구원사의 메시지가 되고, 그 구조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은 예배순서의 본질적인 원리가 된다.

한국 교회의 예배는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북미의 선교사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19세기 당시 북미선교사들은 미국의 서부 개척자 시대에 생성된 예배형식을 가지고 왔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래 10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 예배를 유지하고 있다. 조기연 교수는 이러한 예배의 특성을 전도 집회식 예배, 부흥회식 예배, 회개의 영성을 강조하는 예배, 실용주의 예배, 인간중심적 예배, 서양식예배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다.³⁾

하지만 한국교회는 100여년이 훌쩍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려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처음 선교사들이 전해 주었던 예배를 그대로 답습할 뿐 예배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거나 점검한 적이 없었다. 교회의 당회의 지도자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분들이 경험했던 예배의 형식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예배형식의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한국교회의 예배순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는 이중구조를 잃

3) 북미선교사들이 한국의 땅을 밟았을 때, 목사의 부재라는 상황과 그때 당시 미국의 18세기 대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을 통해 도출된 개척자 예배가 크게 유행하던 배경에서 전도집회식예배가 한국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천막집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었었는데 1부는 열정적 찬송, 2부는 회심을 촉구하는 강력한 복음전도와 설교, 3부는 결단을 촉구하는 초청의 순서였다. 부흥회식예배는 전도집회식의 성경이야기 또는 설교에 찬송, 성경읽기, 기도를 덧붙여 사경회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경회가 일주일 내내 하는 기도회와 결합하면서 한국 특유의 부흥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회개의 영성을 강조하는 예배는 회심을 강조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여 중생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예배이다. 실용주의 예배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행위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예배를 말한다. 예배의 실용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경배와 찬양, 멀티미디어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예배의 형식을 바꿈에 있어서 예배학적 논리보다 순전히 교회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현상이다. 인간중심적인 예배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되는 것에 있다. 설교, 회중의 기도, 각종 임직식 등을 보면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많다. 마지막으로 서양식예배는 우리 민족적인 정서를 담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 찬송가는 19세기의 영미 찬송가들로 편성되어 있고 한국인이 작사한 곡은 7곡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배 집례자나 설교자가 예복을 입지 않고 양복입고 넥타이를 매면 경건한 복장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많다.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33.

어버려 예배형식이 말씀중심의 예배로 간소화 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단순한 교리와 “착하게 살아라” 등의 도덕적인 윤리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등의 축복 받는다”는 기복 사상으로 물들어 버렸다. 이러한 예배 속에는 더 이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마다 지역의 문화적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적인 구조인 말씀과 성례전의 이중구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당한 예배신학의 토대 위에서 예배를 점검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야 한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역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재현되어야 한다. 회중들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반응하게 된다. 예배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재현될 때 회중들은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고신교단과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순서와 예배 유형에 따른 예배의 순서를 점검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역사와 신학을 통해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갱신방안과 예배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곧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이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예배순서가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한다면 참된 예배로의 갱신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1) 고신교단과 한국개신교회의 예배가 성공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서 목회전략적 차원에서 예배갱신을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전향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2) 예배의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을 통해 논리성을 갖춘 예배순서에 대한

좀 더 올바른 이해를 갖추기 위함이다. 오늘날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올바른 논리성을 가진 예배순서인지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질서하고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근거가 없는 예배는 결국 인본주의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예배의 경험으로만 올바른 예배의 관점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회중들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3)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재연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이다. 1부의 말씀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창조, 성육신, 죽음, 부활, 재림 등)을 이야기하고, 2부의 성찬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건을 재연한다. 예배의 요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말씀과 성찬이라는 예배의 2부 구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큰 틀이다. 다양한 예배형식 속에서 예배의 이중구조의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순서와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순서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고신교단 교회들의 예배순서들을 살펴보고, 예배순서 갱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신교단과 한국교회에 미래에 나아가야 할 예배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순서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이 논문의 최종 목적지이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본 논문의 연구의 방법은 첫째, 예배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인 예배순서의 원리를 고찰하는 자료수집과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한다. 둘째, 예배순서의 분석의 틀은 첫째,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의 틀이다. 그 틀 안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회중의 준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회중의 응답, 성찬, 축도와 퇴장찬송의 순서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는 말씀예배 앞에 입장과 성찬예배후의 파송의 구조가 추가되어 초기기독교회의 4중 구조(four pattern worship)로 확장되었다. 또 한 가지 분석의 틀은 브라이언 채플이 제시한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복음적 예배순서의 8가지 요소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배예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예배순서의 요소로서 각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예배가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위의

두 가지 예배 구조의 틀을 가지고 오늘날 현장에 나타나는 예배순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 개신교 교단들의 예배순서와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순서를 연구하여 오늘날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예배순서를 분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의 예배지침서와 고신교단교회의 예배순서를 분석하여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진 예배순서가 되도록 예배갱신의 방안을 모색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배의 정의, 그리고 예배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예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장에는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예배순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예배순서의 원리를 찾고자 한다. 우리는 예배의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예배순서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성의 원리를 보게 될 것이다. 제4장은 그리스도 중심성이 예배의 신학적인 원리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신학을 다룰 것이다. 예배순서의 틀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신학적인 원리의 내용을 잘 담아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현장에서 나타나는 예배순서와 예배유형에 따른 다양한 예배순서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6장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고신교단의 헌법에 나타난 예배순서 지침과 고신교단 교회들의 예배순서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21세기 고신교단과 한국교회의 예배 갱신방안을 제안하고 끝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순서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7장의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를 요약정리하고 예배순서에 관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발전적 모색과 연구과제로 논문을 마친다.

제 2 장

예배의 본질과 기본적 성격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독교 신문사에서 발간한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802면부터 857면까지 예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거기서 예배는 “전체적인 예식뿐만 아니라 신앙심까지도 포함하는 경건한 생활 총체를 의미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배라는 의미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먼저 ‘예배’라는 용어의 어원적인 의미와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해봄으로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로 접근하는 일에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제 1 절 예배의 정의

1. 예배의 어원적 의미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이 사용되었던 시대적 형편과 상황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어휘들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아바드”(עבד)라는 히브리어이다. 이 말은 “봉사” 또는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영어에서 예배를 “service”라고 표현하는 경우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두 번째는 “샤하아”(שחא)라는 단어이다. 이 말의 뜻은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앞드리는 것”으로서 숭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대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구약에서 나타난 예배의 대표적인 어휘를 통해

4) 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3), 25.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복종의 생활이 예배자들의 주요한 삶의 근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어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첫 번째의 경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사용하셨던 말씀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자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4:10)고 대답하신 말씀 속에 나타난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έω)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또는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뜻으로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신체적으로 굴복 또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약 24회나 사용되고 있다⁵⁾. 다음은 “라트레이아”(λειτουργία)라는 단어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유혹하는 사탄에게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사용된 말이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중요로서 자신의 상전만을 섬겨야 할 신분을 확인시키는 말로 예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 말은 흔히 “Service” 또는 “Worship”으로 번역된다.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레이투르기아”인데 이 말은 노동(ergon)과 백성(laos)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원래 이 단어는 고대 희랍에서 시나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익사업을 뜻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이 말은 예배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⁶⁾. 즉 이 단어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들이 하는 노동 내지는 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에 이 말은 특별히 기독교의 예전(Liturgy)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되었다. 즉 Liturgy는 신앙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공중 예배를 통해 표현하는 외향적인 표현 형식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더 있다. 하나는 “Gottesdienst”라는 독일어와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이다. 먼저 “Gottesdienst”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뜻과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⁷⁾. 이 단어 속에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

5)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1999), 19.

6)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역, (서울: 엠마오, 1992), 25.

과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Worship”인데 이 말은 한글의 “예배”로 번역된 것이다. 원래 “worship”이라는 말은 앵글로색슨어인 “weorthscipe”에서 나온 것으로 가치(worth)라는 말과 신분(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이 말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란 의미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 외에도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는 무수히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단어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이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여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흐르게 되어 그 결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2. 예배의 신학적 정의

많은 예배 신학자들이 예배에 대해 정의했다. 그들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폴 훈(Paul W. Hoon) 교수에 의하면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주장 한다⁸⁾. 그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다. 그리고 이 양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통로가 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되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게 된다.

7) 김충환,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555.

8)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25.

여러 해 동안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했던 루터교 신학자 피터 부르너(Peter Brunner) 교수는 ‘예배의 이중성(duality)’⁹⁾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배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인간인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 분에게 응답하는 것이며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프랭클린 세글러(Frankling Segler)는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¹¹⁾이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정성어린 응답의 행위라는 것이다.

에버린 언더힐(Evelyn Underhill)은 성공회의 전통에 근거하여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던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¹²⁾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다른 예배들과 달리 “분명한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포함한 “초자연적인 행동이며,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주장하였다¹³⁾.

존 부크할트(John Burkhart)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였고, 하시고 계시며, 또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축제적 응답이다 (Worship is the celebrative response to what God has done, is doing, and promises to do)”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¹⁴⁾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이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 즉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여기에 대해 예배자는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과거의 그리스도의 사건을 현재에 경험하게 된다. 다음의 신학

9)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25. 예배의 이중성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뜻과 사람이 하나님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리켜 예배의 이중성이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훈 교수가 주장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이라는 예배의 핵심과 비추어볼 때 부르너의 사상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10)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26.

11) Frankling Segler, *Christian Worship* (Nashvill: Broadman Press, 1967), 12.

12) Evelyn Underhill, *Worship* (New York: Crossroad, 1989), 339.

13) Evelyn Underhill, *Worship*, 339.

14) John E. Burkhart, *Wo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2), 17.

자들은 예배가 현재와 과거의 연결적인 측면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경험의 측면임을 강조하고 있다.

폴 훈(Paul W. Hoon) 교수에 의하면 “예배는 구속사의 사건에 직결되는 것으로써 예배에 있어서 모든 행위는 구원의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키고 현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예배의 핵심은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어 그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한다.¹⁵⁾ 그는 우리 모두는 예배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겔하드 데링(Gerhard Deling)은 “예배는 구원의 역사와 관련 있으며, 그것은 현재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고 그것에 참여한다”¹⁶⁾라고 주장한다.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회중들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로버트 웨버는 “예배가 그리스도의 사건(Christ-event)을 재연(react)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¹⁷⁾ 이 말은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의미와 가까운 견해이다. 웨버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행위인 그리스도의 사건을 재연하는 예배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역사적인 행위에 응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웨버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배는 한 실화(a story)를 재진술(retell)하고 또 재연(react)한다. 여기서 한 실화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과 그 일에 대한 현재 우리의 반응을 의미한다. 예배란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는 사건을 공연하는 것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건(Christ-event)과 연합시킬 뿐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와도 연합시킨다.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를 공연할 때 신자들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하며, 동시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¹⁸⁾

15)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15-16.

16) John E. Burkhardt, *Worship*, 31.

17) Robert E. Webber, *예배학*, 126.

18) Robert E. Webber, *예배학*, 125.

한 실화(a story)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여기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a story)를 재진술하고, 재연합으로써 반응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의 통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인간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반응한다. 결국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한 일어난다. 그리고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공동체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신자들 간의 연합 또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예배자들과 성령의 연합 또한 이루어진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며,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의 순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건이라는 내용을 담아내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예배의 구조 속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성찬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재연될 때 예배자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체험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도와 찬양으로 화답하게 된다.

제 2 절 예배의 기본적 성격

예배자들이 예배 현장에 임할 때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으며,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 여기 서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예배자는 맹종의 신앙인이 되기 쉽고, 예배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예배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고 예배에 임하여야 한다. 단순히 예배 현장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설교를 듣고, 헌금했다는 것만으로는 예배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는 지경에까

지는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신학자인 지글러(Franklin M. Segler)는 예배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감상적이고 유약하게 된다고 말하였다¹⁹⁾. 다시 말해서 예배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예배자는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 예배의 하나님 중심성

예배의 대상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자신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한 것이며 또 미래에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것은 예배자로서 당연한 기초적인 자세이다. 예배자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은총과 결부시키고 인격적 하나님과의 연결을 형성한 사람만이 참다운 예배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단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은 높으시며, 거룩하시며, 높이 들리시는 분이시다. 그 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세상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이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과 사랑으로 대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맥락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된 백성”인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벧전2:9).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교회가 주로 예배하는 공동체임이, 즉 성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자의 기이한 사역들을 선포하고 실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2. 예배의 그리스도 중심성

예배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19) 정장복, *예배학개론*, 24.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배는 그의 구속 사역 때문에 성부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²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되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의 구속 사역을 축하하는 예배 이외에는 이 같은 하향 운동과 상향 운동이 분명하게 보여 지는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완전한 사역이 바로 성부를 진정으로 경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성부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에 감사하여 성부께 찬양을 드린다. 성자의 사역이 성부께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자신을 드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성자를 통한 찬양과 감사의 현상이어야 한다. 초대 교회가 기도를 할 때면 항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것도 다 이에 연유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독교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중재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가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도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엡1:13-14; 벧전1:3).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모든 성례의 최고 집행장으로 인식한 것도 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세례를 베푸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며, 성찬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에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결국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중심 기능은 중개자로서의 기능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성부께 중개하며, 성부로부터 나오는 구원과 온갖 축복을 예배자들에게 중개하신다.

3. 예배의 성령 중심성

오늘의 예배를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분은 성령이시다. 예배 가운데 솟아나는 감격은 인간의 정성이나 능력에서 찾

20) Robert E. Webber, *예배학*, 14.

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배 속에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예수를 통해 실현시키시고, 오순절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까지는 성령님을 통해 완성시키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현재라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활동을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통해 인간의 심층으로 파고드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얻는 감동과 변화와 바른 삶으로의 인도는 모두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이천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역사에 동참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오셨다. 빌헬름 한(Wilhelm Hahn)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예배 가운데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게 하고 그 인간들로 현재적인 응답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이다²¹⁾”라고 말하였다.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예전의 모든 형태나 내용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형성되었다. 오늘의 예배가 교회의 전통적인 예전의 전승이라고 볼 때 오늘의 예배 역시 순수한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무질서함과 신학적인 의미를 결여시킨 예배의 현장은 성령을 혼란한 세계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성령은 예전을 통해 하나의 질서를 형성시키고 동시에 예배 안에서 자유로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합당한 시간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초대교회 역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전파하였다.

4. 예배의 연속성과 확산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만이 아니라 예배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신의 교회를 그들 속의 교회로 만들어야 할 부름을 받고 있다.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를 세워야 하고, 거기에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경험하도록 만드는데 주역이 되어야 한다.

21) 정장복, *예배학개론*, 26.

예배란 어떤 경우에도 단절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일 낮 예배 참석으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배가 생활 가운데 지속되어질 때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예배를 통해 연결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져야 한다. 존 로빈슨(John Robinson)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무리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 한 성찬을 통한 예배의 의미는 사실상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²²⁾ 그러기에 예배와 예배자의 생활은 언제나 연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제 3 절 결론

예배의 본질과 기본적인 성격을 알기위해 예배의 어원적 정의, 신학적 정의, 그리고 기본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예배는 계시와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계시와 응답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현재의 사건이다. 계시와 응답의 핵심 사건인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배자가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순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합은 성령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서 예배를 통해 예배자와 성령과의 연합 또한 이루어진다. 예배 안에서 계시와 응답의 현재성의 경험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재진술(retell)되고 재연(react)될 때 가능하다. 본 장에서 살펴본 예배의 본질과 기본적인 성격을 통해 예배의 중심이 예수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

22) 정장복, *예배학개론*, 28.

제 3 장

예배의 역사와 예배순서의 발전

예배의 시작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예배의 근원은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의 예배로부터 혹은 신약의 예배로부터 예배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예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성경적인 배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구약의 예배

예배의 근원을 구약성경에서 찾는다면 광야세대에 의한 “조상의 하나님” 숭배나 시내산 전승과 결부된 초기의 야훼예배라 할 수 있다.²³⁾ 그리고 시내산 사건, 성전과 회당, 그리고 절기들을 준수 등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⁴⁾

1. 시내산 사건

시내산 사건은 출애굽기 19-24장에 잘 묘사되어있다. 특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적인 만남을 갖는 부분을 살펴보면 만남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후대에 유대교나 기독교 예배에서 더 상세히 들어난다. 그 기본적인 골격은 다섯 가지인데 첫째는 이 만남을 소집한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출24:1-2).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

23) Ferdinand Hahn, *원시 기독교 예배사 (Der urchristliche Gottesdienst)*, 진연섭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2.

24) Robert E. Webber, *예배학*, 23.

고 자신을 만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만나도록 부르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전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출24:1-3). 모든 회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기 맡은 역할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가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만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출24:3).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서 말씀하셨고, 그의 뜻을 알리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예배가 완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굳게 약속했다는 점이다(출24:7).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은 언약에 희생의 피로 약속했다(출24:8).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symbol)으로 희생의 피를 사용하셨다. 이것은 단번에 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 오늘날에는 주님의 성만찬이 하나님과 교회에 맺은 언약의 관계를 보증하는 상징(symbol)이 되었다.

2. 성막과 성전

성막과 성전의 예배경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 기본적인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출25:8)라고 말씀하셨다. 둘째는 성막과 성전예배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거룩한 공간개념, 거룩한 의식들과 거룩한 제사장들의 상징성들을 통해 성막과 성전 예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건축 계획을 말할 때에 성전 양식을 하나님서 알려주셨다고 말했다. 먼저, 성전의 공간개념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깥 뜰과 안뜰, 지성소 등의 배열은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예배자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다. 번제단, 물두멍, 금등대, 전설병을 놓는 탁자, 향단, 언약궤 등의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전기구들의 어떤 것도 임의로 선택되어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전에서의 예식에는 일반적인 규칙(희생제물을 바침, 희생제물위에 안수함, 희생제물을 죽임, 피를 뿌림, 희생제물을 태움 등)과 많은 제사들(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 등장한다. 이러한 제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식을 집행하는 자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자들이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별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적법한 옷을 입었으며, 거룩한 생활을 위한 규칙들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성막과 성전의 예배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며 인간들은 거룩한 예식과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반응한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교회건물), 거룩한 의식(예전), 거룩한 제사장(안수 받은 목사)등의 개념은 오늘날 기독교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 회당

회당의 가장 중요한 형성 요인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려하는 데 있었다.²⁵⁾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 사회생활의 중심이었다. 회당을 통해 고대 유대 종교가 그대로 보존되고 후대로 계승되었다. 회당의 예배에는 어떤 희생제물도, 어떤 거룩한 의식도 제사장도 없었다. 회당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있었다. 회당 예배는 신앙고백, 기도, 그리고 성경봉독과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회당 예배 시 설교는 봉독한 성경을 해석하고 회중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 당시 설교의 목적은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교훈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설교자들은 회중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회당의 예배는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와 유사하다. 신앙을 고백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회당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독교예배에 그대로 유입 사용 되었다. 회당예배와 기독교예배의 차이점이라면 회당예배는 희생제물의 근거가 없지만 기독교 예배는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예수그리스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²⁶⁾

25) Robert E. Webber, *예배학*, 29.

26) 김영재, *교회와 예배*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1995), 14.

4. 이스라엘의 절기들

특별한 때를 기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연중행사로 지켜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시간을 일상의 시간과 거룩한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절기의 예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주었다. 이스라엘의 3대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유월절과 오순절이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되살리고 유월절의 상징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후손들에게 가르쳤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양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을 예배에 도입하여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절기인 오순절은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로서 추수가 끝났음을 축하하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였다. 성령께서 오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제도로서의 교회의 창립일을 오순절로 잡고 있다.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큰 틀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약시대의 예배는 기독교 예배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첫째, 시내 산에서의 예배 경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가르쳐준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며 백성들은 기꺼이 그 예배에 참여한다. 그리고 말씀에 동의함으로 응답한다. 하나님과의 예배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준행위에 의해서 봉인된다. 둘째, 성막과 성전에서의 예배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며, 거룩한 공간과 예식들과 직분을 가르쳐준다. 셋째, 회당에서의 예배 경험은 신앙의 확인, 기도 그리고 말씀 등을 가르쳐 준다. 넷째,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시키고 거룩한 시간 개념을 가르쳐준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 구약시대의 예배 정신이 초대교회 예배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구약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의 예배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구약의 예배는 출애굽을 그 중심으로 한 사건들에 뿌리를 박고 있으나 신약성

경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즉 예수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등에 뿌리를 박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엄밀하게 보면 차이점이 아니라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출애굽 후의 시내산 사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해방과 구속이라는 구조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은 모든 죄와 어두움의 세력들로부터의 참 해방과 구속을 주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할 수 있다.

제2절 신약의 예배

신약성경은 기독교 예배의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만 찬송(Hymns), 신앙고백(Confessions), 축도(Benedictions)와 송영(Doxologies) 그리고 예배의 간단한 묘사를 통해서 신약의 예배를 추적해 볼 수 있다.

1.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

신약의 예배는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와 그리스도 사건이 주는 의미를 통해 발견된다. 첫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지지했다. 이는 예수님과 성전, 회당, 유월절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 것을 말하고 있다. 사복음서에는 성전청결사건이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규칙적으로 회당에 나가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들에 참여했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켰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예배를 대신하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자신을 성전의 제물로 보았으며 성전보다 크신 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마12:6; 요2:19).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자신 스스로를 마지막 희생 제물이며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보았다(마26:26,28).

셋째, 예수님은 유대예배의 관습들을 재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켰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인

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막2:27-28). 예수님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발전된 안식일의 법칙을 깨뜨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예배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위한 길을 준비하셨다. 예수님은 유대예배의 잘못된 관습을 깨뜨리고 구약의 예배를 죽음으로 완전히 성취하셨다.

2. 그리스도 사건(The Christ Event)

신약의 예배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예수그리스도의 사건들 속에서 탄생하였다. 구약의 예배가 시내산 사건을 기념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약의 예배는 인간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많은 예배 문헌을 산출시켰다. 성모 마리아 찬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눅1:46-55)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탄생 기사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 이 찬가는 교회 역사상 초대 찬송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사건 또한 죄와 죽음의 능력을 깨뜨리신 것을 강조하는 찬가를 만들어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는 주제는 초기 기독교 설교와 주의 만찬의 핵심이었다.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이후로 교회 안에 성령의 부으심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신자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활하며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지금 성부의 우편에 앉아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예배의 초점이 과거의 사건에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미래 사건들의 완성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건들은 기독교 예배의 내용을 결정지었다.

3.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예루살렘교회는 최초의 교회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아람어를 하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졌다. 예루살렘교회는 오순절 후에 급격히 성장하였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예루살렘교회의 예배를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계속해서 성전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성전의 기도시간을 계속해서 지켰고(행3:1), 성전을 복음 전파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행3:11-26, 4:12-13, 19-26, 42). 또한 누가에 의하면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으며 유대 풍습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행21:20-21). 이와 같은 사실은 예루살렘교회 예배와 유대교 예배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말고도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행2:46). 둘째, 누가는 예루살렘교회에 대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2:42)”고 표현한다. 유대교의 예배와 달리 말씀과 떡을 떼는 예배의식이 예루살렘교회에 나타났다. 즉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이 예루살렘교회 예배에 나타나고 있다.

4. 흠어진 교회의 예배

흠어진 교회의 예배는 A.D. 50년 중반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배에 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 예배의 요소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축도의 형식(1:3, 16:23), 주일예배(16:1-2), 있었을 가능성이 큰 오순절 기념 예배(16:8), 유월절 예배(5:7), 거룩한 입맞춤(16:20), 출교에 중점을 둔 교회의 권징(5:5, 16:22) 등이다²⁷⁾.

바울은 예배순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예배의 주요 측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 14장에서 더욱 그러하다.

계시, 지식, 예언, 교훈의 말씀(14:6)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혹은 통역(14:26)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응답의 역할도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기도, 찬미, “아멘”하는 것, 감사하는 것(14:13-17)
 더욱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전체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12:7-11)²⁸⁾

고린도전서 11장 23-26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27) Robert E. Webber, *예배학*, 44.

28) Robert E. Webber, *예배학*, 45.

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고 그 요소들 가운데 말씀과 주의 만찬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사도시대의 예배

A.D. 60년부터 100년까지의 시기를 흔히 속사도 시대(the subapostolic period)라고 부른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교회의 조직이 증가되고 성숙하였다. 그리고 초대 교회 최고의 형성기였다. 로마제국 전역과 그 너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동시에 기독교는 이단들의 발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 교회는 복음서와 서신서들 같은 문헌을 산출하고, 좀 더 고정적이고 명확한 교회 조직을 구성하고, 신조를 작성하고, 차원 높은 예배의식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정의해 나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들의 글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세례교리문답, 신조, 신앙고백, 송영과 축도 등에 사용되었다.

속사도시대의 예배는 질서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목회서신들은 교회의 예배에서 목사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열정과 유대인들이 가진 형식과 질서 의식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가운데 속사도시대에 교회 예배는 점차 고정화되어갔다.

신약의 예배의 발전을 추적해보았지만 신약성경은 예배의 전체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신약성경에 드러난 예배에 관한 단편적 묘사를 통해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건이 다양한 예배 요소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건이 말씀과 성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말씀과 성찬이라는 예배의 2부 구조에서 다룰 것이다.

제3절 초기기독교 예배

초기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드러지던 예배의 구성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앞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구성요소들이 다양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예

배 구성요소들이 존재했던 초대교회예배와 달리 오늘날의 예배는 그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1. 초기기독교 예배의 요소들

초기기독교의 예배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에는 설교, 기도, 성만찬, 죄의고백, 평화의 입맞춤(Kiss of Peace), 계시, 방언, 성시와 찬송가, 신앙고백, 축복 공식문, 송영, 성경봉독, 회중의 “아멘”, 세례, 봉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15개의 항목을 모든 예배에서 전부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간 예배순서라면 그 예배가 결코 짧은 것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기독교의 예배가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윌리엄 맥스웰은 그의 책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에서 신약성경과 초기기독교의 문서들을 종합해서 1세기 말의 기독교 예배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만들었다.

1부: 회당예배를 계승하여 발전하게 된 순서
 성경낭독(딤후4:13; 살전5:27; 골4:15)
 시편과 찬송(고전14:26; 엡5:19; 골3:16)
 기도(행2:42; 딤후2:1-2)와 회중의 아멘(고전14:16)
 설교 또는 강론(고전14:26; 행20:7)
 신앙고백(고전15:1-4; 딤후6:12)
 헌금(고전16:1-2; 고후9:10-13; 롬15:26)

2부: 다락방 예배: 주님의 만찬(고전10:16; 11:23; 마26:26-28; 막14:22-24; 눅22:19-20)
 봉헌기도
 -감사(눅22:19; 고전11:23; 14:16; 딤후2:1)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회상(행2:42; 눅22:19; 고전 11:23,25,26)
 -중보기도(요17)
 -주기도문 암송(마6:9-13; 눅11:2-4)
 찬송
 평화의 입맞춤(롬16:16; 고전16:20; 살전5:26; 벧전5:14)²⁹⁾

윌리엄 맥스웰이 만든 초기기독교 예배 순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 예배의

29)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정장복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8), 17-18.

특징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당예배와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다락방 예전이 결합된 모습이였다. 그리고 이 속에 포함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설교, 성경봉독과 해석 그리고 기도, 찬양, 성만찬 예식 등이다. 이것들은 초기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불변하고, 영원하며, 지속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불리워지는 예배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2. 초대교회의 문헌들

제2세기의 기독교 예배는 플리니(Pliny, A.D. 111-113, 비트니아의 총독)의 서신에서 그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고 플리니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의식으로 예배하는지 궁금해 했다. 플리니는 황제에게 보낸 서신 속에 자신이 파악한 기독교 예배 의식을 기록했다. 그는 황제에게 그들에게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특정한 날을 정해 놓고 해뜨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그들끼리 찬양하는 것” 뿐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으며, 도적질과 강도와 간음죄를 멀리 하겠으며, 약속을 어기거나 마땅히 내야 할 돈을 내지도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합니다”라고 보고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말한 맹세가 십계명을 낭송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플리니는 계속해서 “그들은 이같이 행한 후 떠났다가 다시 모여 식사를 나눕니다. 이 식사는 평상적이며 아무런 해도 끼칠 우려가 없는 식사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폐하의 명을 받들어 모든 집회를 금하는 법령을 선포한 후 이 같은 일을 중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플리니의 서신을 통해 2세기 기독교인들이 찬양과 십계명의 낭독과 애찬(성찬)의 순서로 예배한 것을 알 수 있다.

순교자 저스틴(Justin)이 기록한 *제일변증서(The First Apology)*는 기독교 예배의 구조와 의미에 관해서 상당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예배구조에 관한 저스틴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든 시골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든 간에 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사도들의 회고록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봉독자가 읽기를 끝내면 사회자가 설교를 통해 이 같은 고귀한 것들을 본받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기도를 올립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기도가 끝나면 떡과 포도주와 물을 내읍니다. 사회자가 그의 최선을 다하여 기도와 감사를 올리면 회중들은 “아멘”으로 동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거룩한(떡과 포도주) 것을 분배하면 각자가 이것을 받아먹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집사들을 통해 (이 떡과 포도주를) 보냅니다.³⁰⁾

위에 묘사된 예배는 사도들의 회고록과 선지자의 글, 즉 성경 본문을 봉독자가 읽은 후 사회자의 설교가 이어지고 그 설교가 끝난 후에 회중들은 모두 일어나 기도로 그 말씀에 화답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성찬식이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말씀과 주의 만찬의 2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예배에는 초기 기독교 예배를 형성시키는 두 가지 요인, 즉 말씀에 강조점을 둔 회당의 예배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며 기념하라고 한 주의 만찬이 모두 들어있다.

초기 기독교 예배에 관한 묘사는 사도행전 2:4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의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사도들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이 있었다. 여기서 사용된 교제라는 말은 회당 예배에 있는 식탁교제를 의미한다. 떡을 떼는 것 역시 교제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의 만찬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초기 신약 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주의 만찬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기도와 찬송이 수반되는 2부 구조가 기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초기 기독교 예배는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바울이 순교한 A.D. 60년대 중반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간주되었지만 2세기에 들어서면서 독자적인 종교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당시 유대교의 영향으로 기독교 예배는 성경이 중심이 된 말씀의 예배였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였다. 이는 회당이 초대 교회의 예배의 모체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주의 만찬의 기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제정하신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주의 만찬을 제일 먼저 언급한

30)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55.

사람은 바울이다. A.D. 57년 경 바울은 고린도전서11:17-34에서 주의 만찬을 언급하였다.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떡을 떤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임재를 회상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예배는 유대의 회당예배의 말씀 선포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그의 부활 후 기념하게 된 주의 만찬의 2부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다.

제4절 고대와 중세 예배

3세기의 예배에 관한 문헌 중에 중요한 것은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지은 “사도적 전승 (The Apostolic Tradition)”과 “사도들의 보편적 가르침 (the Didascalia Apostolorum)”이다. 이 밖에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의 글에 그 당시 예배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2세기에 저스틴이 기록한 예배예식 순서를 “사도적 전승”과 “사도들의 보편적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말씀과 성례의 2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예배의 그리스도 중심성이 여전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몇몇 의식적 요소가 첨가되었다. 문안인사(Salutation), 수르숨 꼬르다(Sursum Corda), 상투스(Sanctus)³¹⁾등이 그것들이다. 문안 인사는 교회의 기도에 앞서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로 바뀌었다. 수르숨 꼬르다는 감사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주의 만찬의 서언으로 발전되었다. 상투스는 주의 만찬 가운데 사용되었고, 특별한 감사기도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용되었다.

4·5세기 교회의 지위는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교회는 극도의 호조건 속에서 급성장하였고 교회의 신학은 다양한 신조들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편 예배는 좀 더 고정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 있는 도시에 있던 교회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들은 그 나름의 독특한 신학과 예배 형태를 발전시켰다. 말씀과 성찬이라는 예배의 기본 2부 구조는 유지되었지만 그 교회가 있던 지역의 특색들이 예배의 형식과 형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4세기의 예배는 교회가 속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동방의 그리스

31) 문안인사, 수르숨 꼬르다, 상투스의 자세한 형식과 내용은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 입문, 74.를 참고하라.

도인들의 예배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를 사랑하는 헬라적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방교회는 성전의 구조에서부터 예전 순서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인 표현을 가미하게 되었다. 추상적이고 불변하는 어떤 영원적인 것에 대한 큰 관심 속에서도 성육신의 관념은 예배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 결과 동방교회는 성육하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배를 통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동방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셨고, 지금도 교회의 예전들을 통해 동일하게 계시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한다.³²⁾

동방교회는 성전구조와 예배 안에 사용되는 상징과 벽화를 통해 하늘나라의 예배현장을 말한 사도 요한의 설명을 그대로 보이도록 노력했다.³³⁾ 동방교회는 평교인들이 평소 성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부부가 함께 성경을 낭독하는 일 외에는 평교인들이 예배의식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방교회의 예배는 개혁자들로부터 우상숭배라는 비판과 함께 이단으로까지 취급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³⁴⁾

이처럼 동방의 예배가 헬라적 상상력에 의해 그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방 예배에서 널리 사용된 의식적 표징과 상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비잔틴 예배는 고도로 의식적이었으며 현란할 정도로 아름답고 매우 신비적이었다.³⁵⁾ 동방교회의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³⁶⁾

[말씀예전]

[기도 : 연도]

성경봉독(구약, 서신서, 복음서)

설교

예비 신자 해산

[다락방예전]

부제의 연도와 주교의 기도

인사

평화의 입맞춤

32) 김동수, *예배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67), 187.

33)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5), 82.

34) 김동수, *예배학개론*, 120.

35)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77.

36) 정장복, *예배학개론*, 109-110.

봉헌

집례자의 손 씻는 의식
 성찬대의 성물(떡과 포도주)봉헌 - 부제
 제의 착용
 제단 보호
 수르숨 코다(마음을 드높이)
 성찬 기도
 예배기원 : 창조와 섭리에 대한 감사
 쌍투스(삼성송)
 감사기도
 아남네시스(재현)
 성찬 제정사
 회상과 봉헌
 축성 기도
 대 중보 기도
 주기도문
 부제의 연도와 주교의 기도
 거양 성체
 “거룩하시다”
 영광송(눅2:14)
 베네딕투스(마21:9)
 배찬
 성찬 참여
 부제의 권면
 성찬 후 감사기도
 강복선언
 폐회

동방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방교회에도 그 당시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마음은 헬라적 동방인들의 마음과는 달랐다. 로마인들은 실용주의적 정신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정신은 건축과 법률을 발달시켰다. 실용주의적 정신은 초기의 로마식 예배에도 반영되었다. 로마식 예배는 화려하지도 않으며 고도로 의식적이지도 않았다. 동방교회가 정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에 관심을 둔다면 서방교회는 대중적이고 평민적인 경향이 짙었다. 실제로 성찬식에서는 사제와 평교인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제단도 회중이 보이는 곳에 두었다. 기도는 간단했고 평범했다. 서방교회 예배는 동방교회와 달리 단순하며 차분했다. 서방교회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³⁷⁾

37) 정장복, *예배학개론*, 112-115.

① 그레고리 예전의식

[말씀예전]

사제의 입장 때 두 찬양대에 의한 입당송

키리에(Kyrie)

사제의 인사

기도문

예언서 또는 구약성경 봉독

교창

서신서 봉독

층계송(시편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불려진다.)

할렐루야

복음서 봉독

예비신자의 해산

[성찬성례전]

봉헌 :

떡과 잔의 드림, 제단 위에 성체의 배설(준비), 영성체를 위한 준비, 예물의 봉헌, 포도주에 물 혼합(이 동안에 시편이 불려짐)

인사 예절과 수르숨 코다(마음을 드높이, Sursum Corda)

성찬기도

예배기원

삼성송(Sanctus)

진문(Canon)

평화의 입맞춤

성체부활

주님의 기도

성찬 참여

영성체 후 기도(감사)

부제에 의한 해산

② 트렌트 예전의식

[말씀예전]

입당송

키리에

사제의 입당

사제의 개인적 준비(제단 계단에서 조용히)

대영광송

인사와 기도문 봉독

서신서의 노래(부제에 의한 노래 응답)

찬양대에 의한 층계송

영창

복음서를 통한 기도와 준비

복음서 봉독
 설교자의 등단
 예고
 초대의 기도
 자국어에 의한 서신서와 복음서의 봉독
 강론
 니케아 신조(대 영광송 곡에 맞추어)
 인사와 초대의 기도

[성찬성례전]

봉헌 :

빵의 봉헌(기도문 낭송)
 포도주에 물을 섞음
 잔의 봉헌(기도문 낭송)
 기도
 향의 축복
 성물에 분향
 제단의 분향
 사제의 분향
 사제의 손 씻음
 성물 봉헌

인사와 서송

성찬의 기도

예배기도

삼성송

거양성체

전문(Canon)마감

사제에 의한 주기도문 찬미

평화의 인사와 성체분할, 빵과 포도주의 혼합

하나님의 어린양 찬미

사제의 영성체

기도

사제에게 평화의 입맞춤

감사기도

분잔의 말씀

감사

분잔의 말씀(잔을 받고)

영성체

영성체 시편송

잔을 씻음

기도문

잔을 덮음

인사와 영성체 후 기도문

부제의 인사와 신자들의 해산
 기도문
 강복선언
 마지막 복음서 봉독과 응답송

중세시대의 예전들은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되었다. 집례 하는 사제는 지나치게 신비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회중들은 소극적인 방관자의 자리에 머물렀다.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라는 2부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성찬예식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었다. 성찬예배에 비해 말씀예배는 짧게 진행되었다. 설교자는 성경을 낭독하는 일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레고리 예전의식에는 말씀 강론의 순서가 없었다. 트레نت 예전의식에서는 강론을 설교자의 등단의 순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말씀강론의 중요성이 더욱 약화되었다. 중세시대의 예전은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 예수님께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적 기사과 그 기적적인 힘에 관심을 갖게 하였지만 예배의 근본정신을 깊게 고찰하게 하지는 않았다.³⁸⁾

중세시대에는 별개의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 즉 예배를 하나의 신비로 강조한 기존교회와 예배의 기도적 성격을 강조한 수도원 운동이다. 예배를 신비적으로 보는 것은 예배의 의식적인 형식을 잘못 사용하는데서 기인한다. 예배의 형식은 예배가 드러지는 수단이다. 그것은 또한 실제의 표징이고 상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수단이 목적이 되어 제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는 콘스탄틴 대제의 치하 때 기독교로의 개종이 대규모로 일어났고 당시 교회가 이교도의 축제들과 풍습들을 개조하여 거기에다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비 제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제의적 행동을 목적 자체로 간주하여 예배의 행위를 신비 의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예배와 성찬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 되었고, 성만찬을 행할 때 기적적인 변화를 통해 예수께서 미사에 임재한다는 주장이 우월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중에 화체설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했다. 예배가 미신적인 신비의식으로 변함에 따라 예배는 참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수도원 운동 안에서 일어난 경건으로서의 예배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수도원의 예배는 처음에는 교회의 예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수도원 운동은 기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견해를 발전시켰다. 수도사들

38) 김동수, *예배학개론*, 202.

은 기도를 삶의 유일한 만족으로 보았으며 삶의 모든 것이 기도에 종속한다고 보았다. 이런 기도는 수도사들의 주된 일과가 되었다. 예배와 성찬은 경건의 수단이 되었으며, 성화와 성장의 수단이 되었다. 성찬을 영적인 유익을 얻는 행위, 즉 영적 자양분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본래 수도사들이 기도 시간을 가진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도는 나중에 개인의 경건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기도의 경건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고대와 중세의 예배의식은 초대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말씀과 주의 만찬이라는 2부 구조를 유지하였지만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되면서 기독교의 급속한 확산으로 각 지역의 문화가 반영됨에 따라 예배의 형태가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잃어버렸다. 예배의 의식적인 요소가 목적이 되기도 하였고, 예배의식이 개인의 경건 훈련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오늘날의 예배가 각 지역의 문화를 크게 반영함으로써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배의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배의 형식이 개인 경건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배는 인간이 인간적 만족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 드려야 한다.

제5절 종교개혁의 예배

예배의 초점이 중세 예배의 특징인 신비와 경건으로부터 이해와 체험으로 옮겨짐에 따라 예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중세 교회의 예배는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이 전담하였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만인제사장설을 주창함에 따라 예배의 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³⁹⁾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중세 예배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미사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반복으로 보았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미사를 거부하였다. 사제들은 희생제사의 반복으로서의 미사를 통해 회중들

39) 신학교계편찬위원회, *간주린 예배학* (서울: 세종문화사, 1998), 39.

이 드리는 예배를 독점하게 되었고 나중에 미사는 구원을 사는 법적 수단으로까지 변하고 말았다. 둘째로 종교개혁자들은 화체설을 부인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본질적 위치로 회복시킬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성례에만 치중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예배관으로 간주했다. 넷째 종교개혁자들은 예배가 각 지역의 고유한 방언으로 드러져야하고 말씀과 성례의 2부 구조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쾰링겐만은 이 점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였다. 쾰링겐리는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였다. 한편 년 4회만 성찬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쾰링겐리의 견해는 후에 칼빈주의에 크게 영향을 주어 년 4회 성찬식 집례는 칼빈주의 안에서 표준이 되기에 이르렀다. 쾰링겐리의 견해는 영국 청교도들을 통해서 침례교, 장로교, 회중 교회와 독립교회로 퍼져나갔고,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대부분 미국 개신교로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견해를 달리 하였다.⁴⁰⁾ 루터파와 영국국교회는 로마 카톨릭 예배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쾰링겐리파와 재세례파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하였다. 개혁 교회는 이 양자의 중간 입장을 취하였다. 칼빈의 예배관의 주요 근거는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의 마틴 부처(Martin Bucer)의 저서였다. 부처는 루터파의 견해와 쾰링겐리의 강조점을 결합시켜 스트라스부르그식 예배를 발전시켰다. 부처의 종합적인 태도를 이어 받은 칼빈의 예배관이 개혁파 교회의 중심적 예배관이 되었다. 초대 교회의 예배에 대해 연구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선포하는 전통적인 예배의 2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쾰링겐리의 예를 따라 년 4회만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결코 칼빈의 영향이 아니다. 그는 매주일 성찬을 거행하는 것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쾰링겐리의 강한 영향을 받은 행정관들이 칼빈이 원하는 대로 매주일 성찬을 거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혁교회들이 년 4회만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루터의 예배순서

루터는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가장 주저한 사람이었다. 그

40) Robert E. Webber, *예배학*, 95.

는 로마 카톨릭식 예배형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몹시 꺼려했지만 차츰 새로운 예배의 형식을 마련하기 위해 미사전례(Formula Missae, 1523년)예배의식을 만들게 되었다.⁴¹⁾ 루터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이었다. 루터교회의 예배형식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의한 칭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를 뜻한다. 또한 믿음에 의한 칭의가 의미하는 것은 현물이나 봉헌을 드리는 행위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⁴²⁾ 맥스웰은 1526년에 발간된 독일의 미사의 윤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⁴³⁾

말씀의 예전(Liturgy of the Word)
 입당송 또는 독일어 찬송
 키리에(Kyrie eleison,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인사와 축문(Salutation and collect)
 서간서(Epistle)
 독일어 찬송
 복음서(Gospel)
 사도신경(이때 성물이 준비된다.)
 설교 또는 강화

다락방 예전(Liturgy of the Upper Room)
 주기도문의 의역
 권면
 성찬제정의 말씀과 함께 성체분할과 분병분잔
 성찬 참여(성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찬송을 부름)
 성만찬 후의 기도문(Post-communion collect)
 아론의 축복(Aaronic Blessing)

루터는 이 예배순서에서 말씀중심의 예배와 주의 만찬을 하나의 예배로 연결시키고 있다.⁴⁴⁾ 즉 루터의 예배는 설교와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41) 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정장복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157.

42)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23.

43) 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158.

44)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이레서원, 2000), 89.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⁴⁵⁾

2. 칼빈의 예배순서

칼빈의 예배는 부처의 영향을 받았다. 부처의 예배가 칼빈에게 영향을 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운 예배의 형성이며, 다른 하나는 시편송의 사용이었다. 여기서 새로운 예배형성이란 성찬을 포함할 수도 있고 삭제 할 수도 있는 예배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후에 스코틀랜드 교회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시편송의 사용은 일반적인 찬송의 사용이 아니라, 회중이 노래할 수 있는 운율적 시의 사용을 말한다.⁴⁶⁾

칼빈의 예배가 가진 특성은 성실성과 존엄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칼빈의 예배목표였다.⁴⁷⁾ 칼빈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⁴⁸⁾

말씀의 예전(The Liturgy of the Word)

예배의 말씀

죄의 고백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운율에 맞춘 시편낭독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문

성경봉독

설교

다락방 예전(The Liturgy of the Upper Room)

구제를 위한 헌금과 기도문

중보의 기도

주님의 기도(해설을 곁함)

사도신경 : 이때 성물을 준비함

성찬 제정의 말씀

성만찬을 위한 말씀증거

헌신의 기도

성체분할식

분병분잔

성만찬 참여 : 이때 시편이나 성경을 읽는다.

45)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123.

46)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128.

47)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129-130.

48) 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163-164.

성만찬 후 기도문
아론의 축복

이와 같이 칼빈은 종래의 예배의식에서 의식적인 행사, 창화의 단구, 한두 번의 응답, 성가대가 하는 수차례의 응답송, 수차례의 성구집 낭송 등을 제외시키고, 기도의 수를 줄이는 등 예배의식의 기본적 요소를 살리면서 짧고 간단한 예배의식을 만들었다. 주의 만찬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루터나 쾰링과 일치하지 않는다. 칼빈은 설교 중심의 예배만이 아닌 말씀과 성만찬이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를 원하였다. 여러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칼빈만큼 예배의 두 부분이 완전히 나뉘는 것에 반대할 이도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성만찬이 매주 행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것은 제네바 행정장관의 반대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⁴⁹⁾

3. 쾰링의 예배순서

쾰링은 예배개혁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쾰링의 예배의 개혁은 급진적이었다. 주님의 만찬의 경우 일 년에 네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과 루터의 성체 공존설(consubstantiation)을 모두 배격했다. 예배에서 모든 상징을 배격하고, 모든 음악을 철폐하였다. 대신 시편과 성가의 교송적 낭송이 음악을 대신하게 되었다.⁵⁰⁾ 쾰링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⁵¹⁾

말씀의 예전(The Liturgy of the Word)

봉헌

기원

기도문 낭송

서신서 봉독

하나님께 영광 교송

복음서 봉독

사도신경

49) 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165.

50) 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129-130.

51) 최희범, "한국 개신교회 주일 낮 예배순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18 (1994년), 44-45.

다락방예전(The Liturgy of the Upper Room)

교훈
 성찬단의 정리
 주님의 기도
 용서의 기도
 성찬의 말씀
 분병
 분잔
 시편교송
 기도문
 폐회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였으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고백 등을 갖추고 오늘의 개혁신교회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시작되었다.⁵²⁾ 일반적인 주일 아침예배는 성경봉독, 기도, 죄의 고백과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 만찬이 있는 경우는 설교 후 주의 만찬에 필요한 성찬대를 준비한 후 분병, 분잔 한다.⁵³⁾ 썬빙글리의 예배는 결국 말씀과 주의 만찬의 조화로운 예배에서 설교중심적인 불균형적 예배로 전환되었다. 썬빙글리의 예배는 오늘날까지 많은 개신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 6 절 현대 개신교의 예배

17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현대 개신교의 예배에는 3대 경향이 있었다. 첫째는 반예전적인 경향, 둘째 하나님 말씀이해를 강조하는 경향, 셋째는 예배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면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다.

반예전적인 경향은 영국의 청교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예배의 특성은 성문화된 기도서를 거부하고 내적이고 영적인 예배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신령한 행동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교파는 초기 침례교, 회중교회, 웨이커파이다. 웨이커파는 회중 각 개인이 성령을 섬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수 받은 목사직의 제도와 예배의식, 성례제도를 거부하였다.⁵⁴⁾ 외부적인 도움이나 의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극단적인 웨이커 교도들은 성령의

52) 정장복, *예배학개론*, 46.

53)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288.

54) 김영재, *교회와 예배*, 116.

제시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이들에게 예배란 완전히 내적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영접하는 일이 물세례와 성찬의식과 대신하여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해를 강조하는 교파는 초기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이다. 회중교회는 성경 낭독에 대한 주석적 접근 방법을 발전시켰다. 성경낭독자는 보통 목사이거나 성경 훈련을 받은 자로서 성경을 봉독할 때 본문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항상 주석을 달았다. 그리고 성경봉독이 끝나면 2-3시간씩 설교가 계속되었다. 장로교 역시 예배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가 컸다. 장로교회는 성경을 봉독할 때 주를 다는 관례를 발전시켰으며 주해 설교를 강조하였다. 장로교 목사의 설교는 성경 본문이 나타내는 교리적 내용의 부분, 교리를 입증하는 논거 부분, 본문을 회중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장로교 목사는 성경 원어와 신학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칙서가 자주 성찬을 거행하는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년4회 성찬을 거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장로교는 성경과 성경주해가 예배에서 가장 주된 중심요소를 차지하게 되었고, 신약에 분명한 언급이 없는 모든 예배 의식을 예배에서 제거하였다. 예배는 단순화 되었다. 또한 오직 지식에만 호소할 뿐 시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청각에는 전혀 호소하는 바가 없는 건조한 예배가 되었다.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의 예배는 경건주의, 모라비안주의, 부흥운동과 현대의 은사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⁵⁾ 경건주의는 정통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7세기 루터파 교회에서 시작되어 개신교와 로마카톨릭교회의 일부 집단으로 파급되었다. 경건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형식적으로나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외적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여 개인적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려는데 그 주된 관심사가 있었다. 경건주의자들은 회심을 예배의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회심을 강조했다는 것은 예배자의 개인적 체험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건주의자들은 예배에는 각 개인의 엄격한 윤리적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체험을 강조한 모라비안주의자들은 예배에 있어서 찬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찬송의 특색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데

55) Robert E. Webber, *예배학*, 103.

주안점을 주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려는데 있었다. 부흥운동에 중요한 인물인 요한 웨슬리는 고전적인 개신교 예배 형식에다 경건주의의 개인적 요소를 혼합시킨 형태를 발전시켰다. 웨슬리는 모라비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들을 통해 회심과 개인적 체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부흥운동가들도 찬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찬송은 회심과 구세주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당시의 전통적인 개신교와 청교도의 예배는 단지 시편과 성경의 본문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의 찬송을 쓴다는 개념은 혁신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은 웨슬리를 통해 찬송은 개신교 예배의 한 특징이 되었다. 그리고 부흥운동은 매일의 예배를 교회 건물로부터 가정으로 옮겨놓았고, 야외 집회를 가능하게 했다. 야외집회를 통해 예배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식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예배형식으로 발전시켜나갔다. 이러한 야외집회의 목적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전도에 있었다. 이런 예배는 나중에 대중 부흥 집회가 되었고, 이러한 예배의 방법이 점차로 교회에 수용하게 되어 마침내는 여기저기서 주일 아침 예배를 부흥 집회식 예배로 대체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현대의 은사운동 예배의 특징은 회중 각자가 적극적으로 완전히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은사운동의 이런 특징은 몸으로서의 사역, 자발성, 찬양과 기쁨, 교제와 사랑에 역점을 둔다. 은사운동은 예배자가 예배에서 기쁨의 체험을 밖으로 표현할 것을 강조한다. 즉 기쁨의 체험은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어야만 되며, 이 체험을 서로 나누기 위해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사주의자들은 예배는 개인적이고 사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집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7 절 결론

지금까지 예배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예배의 시작인 구약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예배, 초기기독교예배, 고대, 중세예배, 종교개혁예배, 현대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예배의 형식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예배는 문화적인 반영이며 교파에 따라서 예

배에서의 강조점이 서로 달랐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강한 반발로 말미암아 예배에서 의식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몇 가지 의식들로 축소했다. 종교개혁 이후 예배의 형식은 더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말씀강론이나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예배형식의 모두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유산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예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말씀과 주의 만찬의 2부 구조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예배 형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말씀과 주의 만찬이라는 2부 구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제 4 장

예배의 신학적 원리를 통한 예배순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다”⁵⁶⁾라는 말처럼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분의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예배 안에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는 교회력이 아닌 국가의 절기를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다. 설교자는 설교시간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보다 세상의 이슈들이나 현상들, 삶의 교훈적인 이야기들 혹은 유머러스한 이야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보다는 회중들의 필요들을 구한다.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역시 회중들이 듣기 좋은 멜로디와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둔 찬양의 가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

본 장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배의 중심이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예배순서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해 예배에 있어 그리스도 중심성의 신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말씀예배와 성찬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본 장의 연구과제이다.

제 1 절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기독교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표현하시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응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예배순서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양식을 갖는 것

56) 신학교재편찬위원회, *간추린 예배학*, 46.

은 인간이 고안한 어떤 규칙서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예배순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표현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예전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속적 흐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의 예전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나타나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 말은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다른 두 위격에 대한 경의나 찬미가 등한시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드신다.⁵⁷⁾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창조, 타락, 성육신, 죽음, 부활, 종말 등의 사역을 말한다⁵⁸⁾. 그리스도 중심 예배는 그리스도 사건의 측면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현실화(actualization) 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다.

1. 그리스도 사건의 재연(Recapitulation of the Christ Event)

재연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교회의 구원의 근원을 확신하게 하는데 있다. 이런 까닭에 예배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세상이 죽음아래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하여 창조주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피조 세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

57)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Christ-Centered Worship)*, 윤석인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174.

58) Robert E. Webber, *예배학*, 111.

실, 또한 부활하심으로 피조물을 재창조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재림 때 재창조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예배는 이런 복음의 기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사건이 선포될 때 예배자는 그리스도 사건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와도 연합한다. 그때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되며 동시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예배자가 원 사건의 주역들을 대신해서 원래의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배학자인 로버트 웨버 역시 예배를 그리스도 사건의 재연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그는 예배에서 과거의 사건들이 재진술(recitation)과 극(drama)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재연된다고 말한다.⁵⁹⁾ 그러므로 예배순서를 구성할 때 예배순서에서 복음의 기사가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회의 현재화(Actualization of Church)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배의 이미지를 2장에서 시내산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회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회가 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이다. 앞서 살펴본 예배의 다섯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 책임의 분담, 말씀의 선포, 회중의 동의, 언약에 대한 희생의 피”이다.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현재화하고 하나님의 성회로 특징짓게 만든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게 된 성회이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의 시내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회로 현재화하고 특징지었듯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회로 현재화하고 특징짓는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사건의 백성들이다.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이 백

59) Robert E. Webber, *예배학*, 126.

성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을 때 교회는 실재(reality)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야기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실재가 되며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는 것이다.

3.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Anticipation of Kingdom)

예배는 예수그리스도의 사역과 사건을 기억하고 재연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인 다시 오심 또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도록 만든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지만 그 승리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이라는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의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그 긴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할지라도 정복당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항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예배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실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말씀과 성찬에서 표현된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알려지고 선포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자와 구원자로 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기대와 소망은 주기도문에서도 나타난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마6:10) 기대와 소망은 또한 마지막 만찬에서도 발견된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한다(고전11:26)고 했다.

결론적으로 예배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배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통해 성취한 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예배 속에서 재연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과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 사건을 말하고 재연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현실화되게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국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루어질 것이다.

제2절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

구조는 그 만든 사람들이 정한 원리와 중요한 사항들을 담아내고 있다. 교회의 건축양식에 그 건축물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정한 원리와 중요한 사항들을 담겨있다. 기독교 예배도 마찬가지다. 비록 역사적으로 예배 구조가 조금씩 변화되었을지라도 기독교 예전에 담겨 있는 메시지에는 변함이 없다. 기독교 예전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와 원리는 복음이다.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⁶⁰⁾

기독교 예전을 통해서 복음의 기사를 전달하는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 세대를 통해 이어져 온 교회 예배의 놀라운 연속성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대에 예배의 구조가 복음 이야기를 참되게 반영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관해 질문하게 된다. 예배는 단순히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회의 전통, 개인의 취향, 문화적 매력의 문제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활동을 전하는 복음은 예배의 구조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르는 예배구조 속에서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가 일관성 있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브라이언 채플의 책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에는 통해서 여러 예배의 전통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교회의 예전에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 좋은 정보를 주고 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8가지 예배의 요소⁶¹⁾는 기독교 예배 역사 속에서 현재에도 복음의 주제들을 계속 전달하는 예배의 형

60)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129.

61)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은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는 그의 책에서, 예배 예전을 역사적으로 연구한 결과, 역사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배의 요소는 예찬-죄의고백-용서

태임을 보여준다.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진 예배순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브라이언 채플이 제시한 8가지 예배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로버트 웨버는 그의 책 *예배학*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란 전통적으로 말씀과 성찬이라는 2부 구조를 가진 예배라고 말하였다. 여기서는 말씀예배와 성찬예배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예배순서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음적 예배순서의 8가지 요소⁶²⁾

브라이언 채플이 제시하는 기독교 예전들 속에 나타나는 공통된 복음을 담고 있는 예배순서의 8가지 요소는 예찬(Adoration)-죄의고백(Confession)-용서의 확증(Assurance)-감사(Thanksgiving)-청원과 도고(Petition and intercession)-가르침(Instruction)-성찬(Communion Service)-책임부여와 축도(Charge and Blessing)이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신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싶게 만든다(예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타난 영광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된다(죄의고백).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용서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는 감사한 마음(감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겸손히 청원한다(청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도고)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가르침).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친교(성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할 책임감을 부여(책임부여)해 주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약속으로 받는다(축도)는 사실도 알게 한다. 여러 세대를 통해 교회가 공통으로 지켜온 예전은 복음의 순차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아래의 표는 역사적 예전들에 나타난 예배요소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의 확증-감사-청원과 도고-가르침-성찬-책임부여와 축도의 8가지가 복음적인 예배순서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62)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129-152.

<표1> 역사적 예전들에 나타난 예배요소의 연속성⁶³⁾

	로마카톨릭교회 1570년 이전	루터 약1526년	칼빈 약1542년	웨스트민스터회의 약1645년	로버트 레이번 약1980년
예찬	성가대 입례송	입장송 입례송	성경구절 (예: 121:2)	에베로의 부름 시작기도: ·예찬 ·은혜를 위한간구	에베로의 부름찬가 시작기도: 기원(또는 예 찬기도)
죄의 고백	자비송("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송	죄의고백(스트 라스부르에서 는 용서의 확 증과 함께)		죄의고백 사죄의 기도
용서의 확증	영광송 인사말("주님 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를 빕 니다.")	영광송 인사말	시편찬송	·조명을 위한 간구	은혜의 확증
감사	본기도	본기도			감사의 찬송헌금 ·도고의 기도 (경우에 따라 주 기도문과 함께)
청원과 도고	구약성경낭독 교창성가		십계명(스트라 스부르에서 는 자비송과 함께 노래됨)	구약성경낭독 시편찬송	구약성경낭독 찬송혹은성가곡
가르침	서신서낭독 증계송(시편찬송)	서신서낭독 증계송		신약성경낭독 시편찬송	신약성경낭독
				·죄의 고백과 ·도고의 기도	
	복음환호송				

63) 복음적인 예배순서의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다락방 예전(성찬)을 제외한 말씀예전의 7개의 요소를 7가지의 색깔로 나타내었다. 한 가지 예배순서에 두 가지 색깔이 존재하는 것은 한 가지의 순서가 두 가지 예배요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브라이언 채플이 제시하는 역사적 예전들의 예배의 연속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각각의 색깔은 역사적 예전들의 예배요소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복음적인 예배의 요소가 예찬, 죄의고백, 용서의확증, 감사, 청원과 도고, 가르침, 책임부여와 축복의 순서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133-149.

			성령의 조명을 위한기도(주기도문과함께)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복음서낭독	복음서낭독 사도신경 설교찬송	성경봉독	성경봉독	설교본문
	설교	설교	설교	설교	설교
책임부 여와 축복				감사와예배기도 주기도문	예배 기도
	니케아신경음송 (또는 영광송)	설교후 찬송		시편찬송	답창 찬송
	비수찬자들의 산회	권면		폐회(성찬이없을 경우)	폐회/축도

가. 예찬(Adoration)

기독교예전의 모든 전통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에게 행하신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고 찬양함으로써 예배한다. 그러므로 예배를 시작하는 찬송은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인지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의 관심사항으로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인지하게 되면 복음의 이야기가 예배에서 흐르기 시작한다.

나. 죄의고백(Confession)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고개를 숙이고 꿇어 엎드려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는 즉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뵈었음이라”(사6:5)고 고백하며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예배순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예배자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깨

달음으로 이어진다. 이 예배의 요소는 타락의 기사를 다룬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죽음아래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배의식에서 죄의 고백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도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다. 용서의 확증(Assurance)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는 마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음의 양식은 이사야 선지자가 죄에서 정결해진 다음에 사죄의 확증으로 나아간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솟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6:6-7).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장하는 요소가 나타났다. 예배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확증이다.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 예배의 요소에서 용서의 확증의 순서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라. 감사(Thanksgiving)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죄의 확증을 받은 후에 즉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예배에서 감사에 대한 순서로는 감사의 찬송과 헌금 등이 있다. 현대예배전의 선구자인 레이번⁶⁴⁾이 구상했던 예배순서 이전에는 성찬예배를 거행할 때 신자들은 하

나님께 자신을 드려 합당하게 헌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⁶⁵⁾ 하지만 레이번이 구상한 예배순서는 헌금을 성찬예배가 아닌 말씀예배에 둬으로써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하였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풍습에 따라 레이번은 은혜의 확증에 이어서 감사의 찬송과 헌금 순서를 배치하였다. 감사 찬송과 헌금순서를 통해서 신자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재능을 헌신하는 방식으로 직접 감사를 표현하였다.

마. 청원과 도고(Petition and Intercession)⁶⁶⁾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 많이 목격되기를 소망한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한다.

주기도문의 순서는 전통적인 예전에 속하는 다락방 예전에서 그 순서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칼빈과 레이번은 주기도문의 순서를 다락방예전에서 청원의 순서로 가져왔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의미심장하게 부른 후에 세 가지 청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⁷⁾

64) 통합적인 현대예전을 모색하는 시도에서 선구자가 된 Robert G. Rayburn은 1980년에 출간된 자신의 책 *예배학 (Come Let Us Worship)*, 김달생, 강귀봉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에서 복음주의를 역사와 예전으로 새롭게 이끌기 위해 예배의식순서를 새롭게 구상하였다. 그가 구상한 예배순서는 북미 전통들을 통찰력 있게 요약한 것인데, 이는 웨스트민스터 전통에 반영된 청교도 사상을 존중하고, 칼빈 사상의 뿌리를 의식적으로 존중하고,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교부들의 관행을 반영한 예배순서였다.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108.

65)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141.

66) ‘도고’라는 말을 교회에서 보통 ‘중보기도’라고 사용하는데 본 연구자는 ‘중보기도’라는 용어보다 ‘도고’라고 사용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중보의 본질적인 뜻은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속죄적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죄인인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인 인간을 위해 “중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고’(intercession)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나님은 한 분 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67) 김세운 교수는 그의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주기도문이 세 가지 청원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청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옵소서)이다.”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48.

바. 가르침(Instruction)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지 알기를 소망한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바탕을 둔 이 가르침은 모든 세대의 예배에서 공통된 요소이다.

샤. 성찬(Communion Service)

성찬의 진행과 구성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린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공급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살아가도록 격려 받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⁶⁸⁾

성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눈으로 봄으로써, 떡과 잔을 만짐으로써, 그리고 맛을 느낌으로써 경험하게 된다. 성찬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구원을 보증한다.

아. 책임부여와 축복(Charge and Blessing)

신자의 삶에서 영적 체험의 절정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교회의 공통된 예전을 만들어낸다. 여러 세대를 통해 말씀예전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 부여와 축도로 끝맺는다. 책임부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들은 말씀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축도는 예배에서 찬미된 하나님의 선하심, 곧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동반되고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기시킨다.

2. 말씀예배와 성찬예배의 2부 구조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는 전통적으로 말씀과 성찬 예배의 2부의 구조로 되어있다. 말씀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재진술되고, 성찬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68)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447.

이야기가 재연된다. 지금부터 예배의 1부와 2부의 각각의 예배요소들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말씀의 예배는 세 가지 주요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회중의 준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중의 응답의 세 주요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⁹⁾

가. 말씀예배의 예배순서

(1) 회중의 준비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회중들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경솔하고 경박한 언행을 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만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스스로 삼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처음부터 경건하게 시작하기 위해 많은 행동의 규칙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같은 규칙들에는 침묵, 입장(행렬), 환영의 인사, 기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인, 죄의 고백 등이 있다. 화평의 입맞춤은 말씀 예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성찬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침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시다. 예배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합 2:20)와 같이 침묵을 선포했다. 침묵은 초월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실제의 초월적 특성과 접촉하게 만들어준다.

입장(procession)은 항상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구약의 예배에서 노래와 큰소리 나는 악기와 춤은 이스라엘의 행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4세기 이후 많은 행렬들이 있었지만 후대 중세시대에 이르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그 많은 행렬들은 폐기되고 말았다. 입장은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환영의 인사는 입장의 끝을 알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공식적인 만남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백성들이 환영 인사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환영인사의 기원은 회당에서 찾을 수가 있고 회

69) Robert E. Webber, *예배학*, 148.

당예배에서 성경봉독자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면 회중들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찬송 있을지어다”라고 응답했다. 초대교회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지어다,” 혹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식으로 환영 인사를 했다. 이러한 환영인사는 종교개혁자들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칼빈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이라는 말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규칙서에서도 회중들을 예배로 초청한 다음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환영인사는 짧은 성경구절일 수도 있고, 교독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매주 다르게 회중들이 나름대로 정해 놓은 문안인사일 수도 있다. 누구나 따라야 할 절대적이면서도 미리 규정된 환영인사는 없다.

기원은 예배 가운데 회중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중 예배의 사회를 보는 대표자가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기원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기원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찬양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수많은 찬양이 쏟아지게 만든 성경구절이 누가복음 2:14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로다”이다. 이 구절을 통해 발전한 찬송은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Gloria in excelsis Deo)로 삼위 가운데서 예수의 위치를 높이고 찬양한 찬송이다. 글로리아 찬송은 일부 종교개혁시대 교회들에서는 완전히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찬송으로 대체되었다.

인간의 죄인 됨의 고백은 마치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뵈었을 때의 반응과 같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상태를 고백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사6:5). 퀴리에 엘레이손(Kyrie eleison,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불리는 응답송이 4-5세기의 예배 의식서에서 나타난다. 이 응답송은 예배자가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퀴리에 엘레이손 대신에 회개를 주제로 한 찬송이나 시편으로 대체하였다.

(2)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회중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고대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 하신다. 이것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회중의 적극적인 응답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성경봉독의 응답으로 성경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표시하였다. 봉독자가 성경을 봉독한 뒤에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회중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라고 화답하며 응답한다. 성경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내적 확신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예배의 상황 가운데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 해두어야 한다. 예배에서 설교는 그리스도의 사역(창조, 성육신, 죽음, 부활, 마지막 성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적용시키는 시간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삶의 의미가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사건이 다시 한 번 예배자들을 위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3) 회중의 응답

말씀예배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역할의 변하게 된다. 전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의 백성들이 듣고 응답하였지만 이 부분에 이르면 그의 백성들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는 회중이 하나님께 받치는 헌상(offering)⁷⁰⁾이라고 하였다. 회중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는 음악을 통해 표현되는 찬송, 고백, 기도, 헌금, 신앙고백 등이 있다.

예배에 있어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회중들의 응답이다. 예배의 한 표현으로서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상의 행위를 통해 회중들은 그들의 삶에 주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이 같은 헌금의 행위는 기쁜 마음과 진지한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

신앙고백은 기독교 초기 시대부터 발전하였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교회의 규범적인 신앙고백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니케아 신앙고백(the Nicene

70) Robert E Webber, *예배학*, 160.

Creed, 325)은 규범적인 신앙고백으로 채택되었는데, 4세기 아리안주의에 대하여 정통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잘 진술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신앙고백이 예배순서에 삽입된 것은 교회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아리안주의의 이단으로부터 정통 신앙을 보존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배순서에서 신앙고백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를 재진술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다.

화평의 입맞춤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서로간의 화평을 전달하는 제스처의 하나이다. 신약성경에는 문안의 입맞춤이 여러 번 언급되어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가르쳤다(롬16:16). 한편 베드로는 문안의 입맞춤을 하나님의 평강과 결부시키고 있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벧전5:14). 화평의 입맞춤의 방식은 지역의 풍습에 따라 달랐다. 예배 집례자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에 대해 온 회중이 “당신께도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응답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악수하거나 포옹하면서 “당신께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문안인사를 나누었다. 이러한 예배의 문안인사는 말씀의 예배에서 성찬의 예배로 전이되는 과정의 순서로 인식되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드러지는 예배의 형식을 보면 말씀 앞에 많은 순서들이 있다. 이러한 순서들은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한 회중들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말씀의 순서에서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물론 설교자의 설교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후의 순서는 말씀에 응답하는 회중들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성찬이 되어야 한다.

나. 성찬 예배의 예배순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배자들은 듣고, 반응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들의 반응이라는 두 가지 행위는 성찬예배의 구조를 이해하게 한다. 성찬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다. 예배자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성찬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성찬의 원래의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찬 제정 장면을 살펴보면 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찬 제정 장면을 살펴보면 “7 행동구조”로 되어 있다. 예수께서 ①떡을 취하시고, ②떡을 두고 축사하시고, ③떡을 떼신 다음 ④몇 마디 말씀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나서 ⑤잔을 취하신 다음 ⑥잔을 두고 축사하시고 ⑦몇 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누어주셨다⁷¹⁾.

현존하는 초대 교회의 성찬 예배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7중 행동구조”가 “4중 행동구조”로 압축되었다. 즉, ①취하기, ②축사하기, ③떼기, ④분배하기의 4중 행동⁷²⁾으로 압축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눌 때 보이신 행동의 순서이기도 하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①가지사 ②축사하시고 ③떼어 저희에게 ④주시매”(눅24:30). 이와 같은 성찬식의 기본 4중 구조가 기본 골격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여러 본질적인 기도들과 특별한 행동들이 행해졌던 것이다. 거의 모든 성찬식에 있는 이와 같은 4중적 구조는 히폴리투스 사도적 전통(The Apostolic Tradi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도적 전통은 기원이 오래되었으며 고대 기독교 예배 구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4중 구조의 성찬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께서 취하사(He took)

집례자가 드러진 떡과 포도주를 취한다. 이 행위는 예배공동체 모두가 관계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최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각 사람들이 다른 예물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성찬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예배 공동체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한 대표자가 전 회중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각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드림(offering)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었다. 결국 전 예배 공동체는 가져오고(bringing), 제시하고(presenting), 드리는(offering) 행위 안에서 함께 관계를 가지게 된다.

71) Robert E. Webber, *예배학*, 172.

72) 이러한 네 단계의 행위는 극도로 예전적인 예배로부터 가장 비형식적인 성만찬 축하 예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이다. Robert E. Webber, *살아있는 예배 (Worship Is a Verb)*, 황인걸 역(서울: 예본출판사, 2006), 76.

종교 개혁자들은 성찬의 “취하는” 상징적 행위를 배척하였는데, 그것은 성찬을 희생 제사로 보는 후기 중세의 잘못된 관념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지나친 반발로 성찬을 자신을 드리는 제사로 본 초대교회의 온전한 개념은 상실되었다.

(2)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He blessed)

떡과 포도주를 놓고 축복기도 하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풍습이었다. 축사의 내용을 보면 우선 서론적 대화(introductory dialogue)가 있고, 그 다음에 서언(preface)과 상투스(Sanctus)와 감사 기도의 주요 부분이 포함되었다. 첫째 서론적 대화에는 문안 인사(salutation)와 수르숨 꼬르다(Sursum corda⁷³)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서언⁷⁴은 무엇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 간략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상투스⁷⁵는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이미지들이다. 이러한 간단한 기도 가운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 이 찬양은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무리의 찬양의 일부분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셋째 감사기도는 전복음의 내용을 재진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께서 깨시고(He broke)

떡을 깨는 원래의 행위는 분배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 떡을 깨는 행위는 여러 의미를 갖게 되었다. 떡을 깨는 행위의 최초의 의미는 교회의 통일성에 관련된 것이다. 바울은 분쟁으로 찢긴 고린도교회의 상황에서

73) 수르숨 꼬르다: 너희 마음을 들어 올리라.(집례자),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들어 올렸나이다.(회중), 주께 감사드리세(집례자), 그것이 옳고 지당한 일로소이다.(회중) Robert E. Webber, *예배학*, 176.

74) 당신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을 경배하며, 당신께 감사하는 것이 옳고 또 지당한 일로소이다. 당신과 당신의 독생하신 성자와 당신의 성령은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시며, 말로 표현하거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시며, 볼 수도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나이다……(집례자)생략. Ibid. 178.

75)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과 땅이 당신의 영광으로 찬만하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송축하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리로다.(회중) Ibid. 178.

떡을 떼는 행위에 교회의 통일성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10:17). 그러나 3세기에 이후부터는 이 같은 강조점 대신에 떡을 떼는 행위가 교회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몸이 찢김을 당하신 사건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강조되었다. 이 같은 개념이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개신교에 남아있다.

떡을 떼는 예배의식순서는 제정의 말씀, 기념(anamnesis), 중보기도(intercession), 에피클레시스(epiclesis)가 있다. 제정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기념은 과거로부터 무엇인가를 마음에 떠올리는 지적 행동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용어는 과거의 한 사건의 효력이 지금 여기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을 되살아나게 하다(recalling) 혹은 재연하다(representing)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뜻에서 기념이라는 것은 속이 빈 공허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현재에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에피클레시스는 떡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회중 위에도 성령이 임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성령이 바로 예배를 승인하고, 또 예배를 실제로 만드시는 동인의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4)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니(He gave)

집례자가 떡과 잔을 각 회중에게 나눠 주면서 예수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이 예배의 시점에서 기억할 것은 교제의 시점이라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신비적 교통이 된다. 이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초월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대 교회는 이 순간을 대할 때마다 최대의 경외와 존경을 표현하였다.

(5) 축도(Benediction)

축도란 축복의 선포이다. 축도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아론적 축복기도에서 기인한다. 축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다(민6:22-27). 신약에서는 아론의 축복적 기도와 유사한 축도를 사도적 축복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전13:14). 구약이나 신

약이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축도는 항상 기독교 예배의 일부분이었다.⁷⁶⁾

(6) 퇴장찬송

퇴장이라는 것은 “~로부터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배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므로 큰 기쁨과 찬양으로 퇴장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친다. 마지막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아멘과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고대 교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는 어구를 본떠서 아누스 데이(Agnus Dei, 신의 어린양)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였다.⁷⁷⁾

제 3 절 결론

본장에서 우리는 예배의 신학적 원리를 통한 예배순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재연하고, 그리스도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실재화(reality)가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대가 포함된 예배이다. 이러한 신학적 원리에 충실한 예배 순서는 브라이언 채플이 제시한 전통적 기독교 예전에서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인 예배순서의 요소와 전통적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이다.

전통적 기독교 예전에서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인 예배순서와 그 요소는 예찬, 죄의 고백, 용서의 확신, 감사, 청원과 도고, 가르침, 성찬, 책임부여와 축도의 8가지이다. 이러한 순서와 요소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다.

로버트 웨버는 그의 책 *예배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는 전통적으로 말씀예배와 성찬예배의 2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1부 말씀예배는 회중의 준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회중의 응답의 순서로 되어 있고, 2부 성찬예배는 성찬(취하기, 축사하기, 떼기, 분배하기)과 축도와 퇴장찬송의 순서로 되어 있다. 예배의 2부 구조에서 담고 있는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창조, 성육신, 재

76) Robert E. Webber, *예배학*, 187.

77) Robert E. Webber, *예배학*, 188.

림 등)과 그의 사건(죽음, 부활)이 말씀예배를 통해 재진술되고, 성찬예배를 통해 재연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를 예배순서를 비교해볼 때, 역사적으로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는 말씀과 성찬이라는 2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배의 2부 구조는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예배순서는 공통된 것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예수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예배순서 모두가 예수님이 예배 구조의 내용에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순서에서는 예배순서의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제 5 장

현대 개신교의 예배 현장분석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다양한 예배가 공존하는 예배의 현장을 볼 수 있다. 각 교단의 전통에 따라 예배의 순서가 다르다. 혹은 각 교단의 전통을 초월하여 예배의 유형에 따라 예배 순서를 달리하곤 한다. 연합감리교회 예배분야를 주도하는 권위자인 앤디 랑포드(Andy Langford)는 다양한 예배가 공존하고 있는 현장을 분석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로 예전적(Liturgical)인 예배와 구도자(Seeker) 예배, 그리고 경배와 찬양(Praise and Worship)의 예배의 3가지 유형⁷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회자이며 신학자이며, 편집자인 폴 바스덴(Paul A. Basden)은 오늘날 나타나는 예배의 유형을 대표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예배 유형에 대한 포럼을 가졌다. 폴 바스덴은 그 포럼의 내용을 편집하여 *Exploring the Worship Spectrum: Six Views on the Church's Worship*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오늘날 개신교 예배의 유형은 6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예전 중심적 예배, 찬송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배, 현대적인 음악이 주도하는 예배(contemporary music-driven worship), 은사적인 예배, 블렌디드 예배(blended worship, 한국에서는 블렌디드 예배를 번역자에 따라서 통전적, 또는 통합적, 혼합적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음), 이머징 예배(emerging worship)의 유형이다.⁷⁹⁾

본 연구자는 위의 두 가지를 종합하여 특별히 한국개신교회에 예배의 현장에 나타나는 예배유형과 앞으로 발전 가능한 예배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개신교회에는 예전적, 전통적, 찬양과 경배의 예배의 유형이 나타나며, 블렌디드

78) Andy Langford, *예배를 확 바꿔라 (Transitions in Worship)*, 전병식 역 (서울: KMC, 2005), 31.

79) Paul E. Engle and Paul A. Basden, *Exploring the Worship Spectrum: Six View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18-19.

예배와 이머징 예배는 시대적인 문화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 발전 가능한 예배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본 장에서 살펴볼 것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 속에서 한국 개신교의 각 교단이 규정하고 있는 예배순서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배의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교회의 사례와 각 교단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순서들이 앞서 살펴본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원리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예배순서들을 해설하고 평가하여 현대 개신교회의 현장을 분석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현대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예배순서를 예배의 유형별로 그리고 각 교단별로 정리하여, 그리스도 중심성의 원리를 가지고 예배순서를 해설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 개신교의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순서

1. 예전 중심의 예배

예전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예배로서 기도문과 예배 참여를 위한 안내가 포함된 인쇄된 예배순서를 따라간다. 이 예배는 형식적인 경향이 강하며, 예배의 목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교회력과 특정한 예전서에 근거를 두면서 세례와 성찬식을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놓는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주로 성공회와 루터교회가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⁸⁰⁾.

예전 중심적 예배를 큰 흐름으로 살펴보면 입례로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 선포의 순서로 나아간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역사적 신조와 같은 응답이 뒤따르며, 성찬이 이어진다. 성찬의 감사기도는 말씀에 대한 원형적인 응답이며 곧바로 세상을 향한 파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예배는 과거의 다양한 전통을 존중하고 성경을 더욱 통전적으로 읽게 해준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설교중심의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예배의 회복 운동에 영향을 받아 '도입의 예전', '말씀의 예전', '성만찬 예전', '파송의 예전'이라는

80) 주승중, 유재원,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제3,4회 소망신학포럼 21세기 기독교 영성과 교회 1, 주승중 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36.

사중 구조의 예배를 이루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예전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⁸¹⁾

한국 개신교에서 예전 중심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 성공회와 루터교의 예배순서를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성공회와 루터교에 속한 지역교회는 교단이 정하는 예배지침을 예배순서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회와 루터교의 예배순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한국 개신교의 각 교단별 예배순서를 소개할 때, 성공회와 루터교의 예배를 다루고자 한다.⁸²⁾

2. 전통적 예배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전통적인 개신교예배는 미국에서 설교 예배가 뒤따르는 성공회의 아침 기도회의 예배형식을 모방하면서 시작되었다.⁸³⁾ 이러한 개신교 예배는 예전적 예배의 변종으로 일종의 '설교예배'가 되었고, 예배는 성경 말씀의 중요성과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을 강조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에 전해진 개신교 예배는 바로 여기에 속한 예배전통이라 말할 수 있다. 성경봉독, 기도, 헌금, 목회소식을 포함한 준비시간으로 시작되며, 피아노나 오르간의 연주로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부른다. 이런 '준비단계'가 지나면 설교자에 의해 설교가 시작되며, 설교가 끝나고 폐회 찬송과 함께 예배가 끝난다. 바로 이런 설교 중심의 개신교 예배가 19세기 말에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도입되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의 '설교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남포교회는 장로교(합동)단으로서 전통적인 예배순서에 설교를 강조하여 부흥하게 된 대표적인 교회이다.

가. 남포교회 예배순서

박영선 목사는 남포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말씀선포라고 믿고 이에 가

81) 주승중, 유계원,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36. 5장의 제3절에 "한국 개신교의 각 교단별 예배순서"를 살펴보겠지만, 각 교단의 예배순서는 예전적인 순서를 예배순서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 교단 교회의 현실은 예전 중심의 예배보다 설교중심의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운동의 영향을 받아 감리교, 장로교(통합)은 예전적인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82) 본 논문의 p84-89에서 성공회와 루터교의 예배순서를 제시하였다.

83) 주승중, 유계원,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39.

장 큰 비중을 둔다. 전도나 선교 교회성장은 말씀선포 이후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최우선적 사명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존재이유이다. 말씀선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선포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인들이 양육되며, 말씀선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 남포교회는 이처럼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의 교회를 지향한다.⁸⁴⁾

남포교회의 독특한 설립과 성장과정은 한국교회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예외적이었다. 남포교회가 교회성장을 위한 어떤 방법을 취하기보다 오직 교인들의 신앙성숙을 위한 말씀선포에 의해 빠른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포교회의 설립과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영선 목사의 말씀과 함께 목회적인 특징을 살펴 보아야 한다.

박영선 목사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구원 사건의 연결과 함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간섭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 쪽에서의 개념으로서 구원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간섭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박영선 목사의 설교가 칭의의 구원론과 성화의 교회론이 균형 잡혀 있음을 말해준다.

남포교회는 박영선 목사의 강해 설교를 통해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안목을 형성하여 성숙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박영선 목사는 남포교회를 개척하기 전 1983-1984년, 남서울교회에서 홍정길목사의 안식년 동안 설교목사 및 임시담임목사로 재직했었다. 1984년 9월, 남서울교회는 박영선 목사의 분립개척 및 지원을 결정하였고, 1984년 10월 교회설립을 결정한 박영선 목사는 이에 동참할 뜻을 모은 몇 가정을 중심으로 개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의 상가 지하공간을 임대하여 1985년 1월에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남포교회라는 교회 이름의 의미는 남서울교회의 분립개척지원으

84) 박영선 목사의 목회철학에 대해서는 남포교회 홈페이지 http://www.lamp.or.kr/sub_2.html를 참조하시오.

로 인해 “남서울 교회가 개포동에 분립 개척한 교회”라는 뜻으로 남포교회라고 했다. 또 한 가지는 “남포불”(Lamp)을 연상하게 함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남포교회라 하였다. 남포교회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⁸⁵⁾

목도
찬송
신앙고백
찬송
기도
찬송
성경봉독
헌금
광고
찬양
설교
찬송
축도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남포교회의 예배순서는 말씀예배의 1부 구조로 되어있다. 설교 앞에 나오는 예배순서들은 설교의 순서로 나아가기 위한 예배순서이며 설교 이후의 순서 찬송과 축도로 간결하게 예배의 순서가 마무리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배의 구조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적인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이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순서 하나하나에 거하시며 회중들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예배순서는 회중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참여보다 수동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남포교회의 예배순서를 비교해본다면 일단 성찬이 없는 말씀중심의 예배이다. 예배순서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유기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예배 순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회중의 준비의 부분은 목도에서 찬송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85) 남포교회 주보(2012년 10월11일 주일 낮 예배순서)에 관해서는 이 논문 138페이지의 부록1 남포교회 주보를 참조하시오.

말씀은 성경봉독과 설교이다. 그리고 회중의 응답은 설교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헌금과 광고로 이어진다. 축도와 퇴장찬송은 찬송과 축도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남포교회 예배순서에 특이한 점은 한국의 대부분 개신교회에서 가지는 예배순서인 ‘교독문’이 없다는 점이다. 교독문은 하나님을 예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하는 예배의 요소이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에서 볼 수 있는 죄의고백, 죄의용서, 확신 그리고 감사와 청원 및 도고의 순서는 보이지 않는다. 찬송이 예찬의 순서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든지 죄의 용서나 감사의 예배의 요소로서의 찬송의 순서로 보이지 않고, 다음순서를 연결하는 도구로서의 찬송 역할로 여겨진다.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회중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예배순서마다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로부터 나올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배순서는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말씀과 성찬에 포함된 예배의 각각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박영선 목사의 목회철학이나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다만 예배의 순서는 설교에만 집중되어 있다. “예배가 설교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본다면 예배의 순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순서가 된다면 성도의 성숙의 측면이 말씀 선포와 함께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3. 찬양과 경배의 예배

경배와 찬양 중심의 예배는 1960-70년대 기존의 전통 예배에 대하여 실증을 느낀 서구교회에서 시작된 예배로 현대적 예배의 대안으로 많이 드러지고 있다. 경배와 찬양예배는 은사 중심 예배에서 불리던 찬양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즉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다. 찬송의 표현은 현대 기독교 문화를 반영하는 음악이었고, 처음에는 연주 음악이었다가 후에는 점차 회중음악으로 바뀌어갔다.⁸⁶⁾

86) 안승오, *능력있는 예배를 위한 7가지 질문* (서울: 빌라델비아, 2001), 176-177.

경배와 찬양중심의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경배와 찬양중심의 예배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찬양을 회복하였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로 서구사상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예배 또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지성과 이성과 반대되는 찬양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점점 메말라 갔던 예배가 경배와 찬양 중심의 예배로 말미암아 점차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중요시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육체의 여러 부분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손뼉을 치는 것, 춤을 추거나 외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⁸⁷⁾ 이렇게 감정과 신체를 적극 표현함으로써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자는 상한 마음과 부족한 부분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고 치유를 받는다.

경배와 찬양 중심의 예배 순서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의 입당 순서를 따르는데 성전의 바깥뜰에서 성전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서를 따른다. 즉 “나”가 들어가는 개인 간증의 합창으로 시작하여 성전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의 노래를 한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회중들은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다. 이런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서로 피드백을 하기도 한다.⁸⁸⁾ 따라서 경배와 찬양중심의 예배는 크게 경배와 말씀의 2중 구조로 이루어지고 복음 전도적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 특히 성례전 중심이기 보다는 말씀 선포중심으로 복음 전도적 교회에서 주로 드러지고 있다.⁸⁹⁾

경배와 찬양 중심의 예배는 예배자가 죄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상처와 불완전한 삶을 안고 오기 때문에 예배자가 칭의와 회개의 은혜를 통해 신앙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젊거나 아직 덜 성숙한 신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용기를 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술이나 제스처, 기호나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내면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87) 안승오, *능력있는 예배를 위한 7가지 질문*, 178.

88) 안승오, *능력있는 예배를 위한 7가지 질문*, 179-180.

89) 앤디 랑포드, *예배를 확 바꿔라*, 46.

다.⁹⁰⁾

경배와 찬양 중심의 예배는 그 동안의 주지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여 수동적이던 회중들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회중으로 변화시켰고 평신도 사역들을 활성화시켰으며 교회음악을 발전시켰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통 예배에 대한 무시로 세대 간의 간격을 더욱 벌려 놓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는 회중의 만족을 위한 예배계획으로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무분별한 저급한 세속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가 세속화되어갔고, 음향장비와 각종 악기가 세레반이나 성만찬대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하게 되어 기독교예배에 있어서 상징물의 영향이 축소되었다. 또한 경배와 찬양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 자체로 생각하기 보다는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교회의 성장 여부에 따라 경배와 찬양 중심의 예배의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경배와 찬양을 하거나 오후의 예배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에서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공적인 주일 예배순서에서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주일 예배에서는 대부분 전통적인 예배순서를 따르고 있었다.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알려진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도 예배의 도입부분에 찬양을 하지만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할 LA지역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는 전통적인 예배순서들을 찬양을 중심으로 연결시키고, 설교자가 찬양인도자와 함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가. ANC 온누리교회 예배순서

ANC 온누리교회는 유진소목사와 성인 15명과 함께 1996년 3월 첫 주 L.A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올네이션처치(All Nations Church) 이름에 합당하게 열방을 품는 교회, 예배, 교육, 말씀, 선교, 회복을 목표를 삼았는데 예배라는 기초에 회복(가정사역, 내적 치유)과 선교의 두 기둥을 세웠다. 최근에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고, 은혜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ANC 온누리교회는 주님께

90) 앤디 랑포드, *예배를 확 바꿔라*, 45.

서 원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한다. 온누리교회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⁹¹⁾

경배와 찬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배로의 부름 “하늘 보좌”
 찬송 259장
 기도
 찬양(찬양대)
 환영 및 교제 “우리는 한 가족”
 성경봉독
 오늘의 말씀
 헌신과 결단 “주님 임재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봉헌과 축도
 찬양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ANC 온누리교회 예배순서는 찬양과 말씀이라는 2중 구조의 예배순서를 가지고 있다. 주로 찬양의 순서가 많으며 예배의 부름역시 기존의 기원기도나 성경구절 낭독을 대신하여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예배의 시작은 경배와 찬양으로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한다. 그리고 환영 및 교제의 순서에도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찬양으로 새로운 신자를 환영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눈다. 설교 이후 헌신과 결단 그리고 파송의 순서에도 찬양이 그 순서를 매우고 있다. 그리고 ANC 온누리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은 전통적인 한국 기독교에서 부르는 찬송가보다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한 복음송을 예배의 순서에서 찬양으로 부르고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비교해 본다면 성찬예배가 생략된 1부 말씀 예배의 구조로 되어 있다. 회중의 준비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부름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순서로 되어 있고, 회중의 응답은 헌신과 결단 그리고 봉헌의 순서이다. 축도와 퇴장찬송의 부분은 축도와 마지막 찬양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ANC 온누리교회의 예배의 순서는 주로 찬양함으로 예배의 순서가 되고 있고, 전통적인 말씀예배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브라이언 채플이 제시하는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

91) ANC 온누리교회 주보(2012년 10월21일 주일 예배순서)에 관해서는 이 논문 139페이지의 부록2 ANC 온누리교회 주보를 참조하시오.

교해볼 때 예찬은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부름의 순서이고, 죄의고백, 죄의용서, 용서의 확신, 감사, 청원과 도고의 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르침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순서로 되어있고, 책임부여와 축도는 헌신과 결단 그리고 축도로 예배순서가 마무리된다. 복음적인 예배순서에는 예배의 각 요소에 유기적인 흐름에서 나타난다. 예찬-죄의 고백-용서의 확신-감사-청원과 도고-가르침-성찬-책임부여와 축도 등의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물론 ANC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의 순서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와 확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매주일 이러한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니었다.⁹²⁾ 그 주일의 설교 주제와 찬양의 내용이 관련 있었다. 경배와 찬양의 순서는 예배를 위한 순서가 아니라 그 주일 설교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예배로의 부름, 환영 및 교제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매주 고정적인 순서에 맞는 찬양을 불렀다.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린다할지라도 예배의 순서를 복음적인 요소를 가진 유기적인 흐름을 담아 찬양한다면 더욱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순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한국 개신교에 발전 가능한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순서

1. 구도자 중심적 예배

20세기말에 북미에서 시작된 구도자의 예배(Seekers' Service)는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들이 좀 더 쉽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형식과 접근 방식을 택한 예배 스타일”이다.⁹³⁾ 이것은 예배에 낯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접근하기 쉬운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폐쇄적이기보다는 열려 있다는 개념에서 사용된 말이다. 그래서 흔히 열린 예배라는 말과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원래 이 예배는 월로크릭커뮤니티교회의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Bill Hybels)가 1973년 처음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청소년을 위한 수요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중 불신자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특별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매주일 불신자 학생들을 위한 이

92) 본 연구자가 연구했던 예배순서를 연구했던 시점인 ANC 온누리교회 2012년 10월 21일 이전의 주일예배 순서를 살펴본 결과 경배와 찬양의 곡들은 그 주일 설교주제와 관련 있었다.

93) 정장복 외, *예배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866.

밴트 형식의 모임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구도자 예배의 모체가 되었다.⁹⁴⁾ 현재 윌로크릭교회 이외에도 구도자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교회로는 1980년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개척한 새들백교회를 들 수 있다.

구도자의 예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⁹⁵⁾ 첫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학적 조사를 통해서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또한 그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음악적 효과의 사용, 연극, 드라마, 비디오를 사용한다든지, 대중악기의 도입, 헌금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도입한다. 둘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기획한다. 셋째로, 예배 중에 환희와 기쁨, 축하의 요소가 있다. 넷째 음악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히 한다. 즉 구도자의 예배는 현대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여서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하게 한다. 다섯째, 예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순서와 순서 사이에 지루하지 않은 요소들을 삽입한다. 여섯째, 구도자의 예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하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구도자 예배를 설명하자면, 이는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전통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잔치적이고, 시각적이며, 회중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많이 격려하는 생동감 넘치는 예배의 형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주일 예배를 획기적으로 수정한 생동감 넘치는 잔치와도 같은 예배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음악도 기존의 찬송가를 중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 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부르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설교보다는 드라마 설교, 간증 설교 등을 하며, 예배 춤(liturgical dance) 등을 도입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에 구도자 예배를 한다는 대표적인 교회로 서울 은누리교회⁹⁶⁾를 살펴보았지만 매주일 주보에 나온 예배순서를 보면 찬양과 경배의 예배순서와 비슷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윌로크릭커뮤니티교회를 살펴보려고 한다.

94) 정장복 외, *예배학 사전*, 867.

95) 정장복 외, *예배학 사전*, 867-868.

96) 은누리교회 주보(2012년 10월 21일 주일 예배순서)

가. 윌로크릭커뮤니티교회의 예배순서

시카고의 윌로크릭커뮤니티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구도자의 예배」(Seekers' Service) 순서는 다음과 같다.⁹⁷⁾

전주(Prelude: 재즈 그룹, 오케스트라, 록(rock) 그룹, 혹은 컨츄리 밴드의 라이브 음악)
 회중 찬송과 인사(Welcome)
 보컬 그룹의 음악 연주(Vocal Duet)
 드라마(Drama)
 성경봉독(Scripture: 회중이 그 날의 주제를 인식하도록 간단한 소개와 함께)
 노래(Song)
 광고(Announcements)
 헌금(Offering: 이 때 구도자들은 헌금을 하지 말도록 광고한다)
 메시지(Message: 60-70분간 계속되는 예배 중에서 30-40분이 메시지에 소요된다. 설교가 끝난 후에 간단한 기도와 함께 예배를 마친다)
 토론과 교제(Discussion and Fellowship)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윌로크릭교회는 말씀예배의 1부의 구조로 되어있다.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음악, 찬송, 드라마, 성경봉독, 메시지가 정해진다. 철저히 주제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론 예배의 주제(theme)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예배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어떤 목적을 위해 깨달음을 주는 예배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의 흐름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의 구조는 아니다. 이 예배는 구도자 예배이기 때문에 회중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더러 학자들 중에는 구도자 예배라는 말보다 구도자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비교해서 말씀 예배의 1부 구조로 되어있다. 회중의 준비는 전주와 드라마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메시지의 순서이다. 그리고 회중의 응답은 노래, 광고, 헌금, 토론과 주제로 되어

97) Steve Burdan, "Seekers' Service and Believers' Worship," in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3*, ed. Robert E. Webber (Nashville: Star Song, 1993), 200.

있다. 예배의 들어감은 있지만 세상을 향해 나오는 축도와 퇴장찬송과 같은 순서가 없다. 전통적으로 헌금과 광고의 순서는 성경봉독 앞의 순서에 오던지 아니면 설교 이후에 순서에 온다. 그것은 회중들의 감사와 회중들의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윌로크릭교회의 예배순서는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광고와 헌금의 순서가 삽입되어 있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해본다면 예찬은 전주와 회중들의 찬송 그리고 보컬그룹의 음악연주의 순서이다. 하지만 죄의 고백, 죄의 용서, 감사, 청원과 기도의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기록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면 그 앞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회개하는 참회순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은혜의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와 도고와 청원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가르침은 성경봉독과 메시지의 순서이다. 책임부여는 토론과 교제의 순서로 마무리되며 축도의 순서는 없다.

구도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예배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배순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본래의 예배의 의미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자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2. 블랜디드 예배(Blended Worship)

전통적인 교회는 예전이라는 예배의 형식에 치우치게 됨에 따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실제적이고 생명적인 경험의 감각을 놓쳐버리게 되었고, 현대적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성을 추구하지만 예전이 주는 실체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예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복음적인 구조이다.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복음의 구조를 담은 그릇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블랜디드 예배는 예전적 예배와 현대적 예배의 통합을 통해 복음의 구조도 유지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성도 추구하였다. 1987년도에 예전적 예배를 주관하는 리더들과 현대적 예배를 주관하는 리더들이 모여서 전통적인 기독교 예전과 20세기의 현대적 예배와 통합

하는 블랜디드 예배가 시작하게 되었다.⁹⁸⁾

블랜디드 예배는 다른 예배의 유형과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배자는 신비한 언어(language of mystery)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야기의 언어(language of story)로 하나님 아들을 예배한다. 상징적인 언어(language of symbol)로 성령 하나님을 예배한다.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상투스, 글로리아송, 퀴리에 같은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의 언어라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들을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활동을 말한다. 창조사역, 성육신,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 성령의 보내심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읽고, 이야기로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으로 부르고 떡과 잔을 통해 이야기를 재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한다. 상징의 언어로 성령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상징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예배를 경험하는가이다. 성령님은 항상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우리와 연관시켜왔다.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배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난다.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할 때 나타난다. 성찬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 안에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된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며, 하늘의 천사와 함께 찬양하게 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 예배순서의 각 요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⁹⁹⁾

블랜디드 예배의 유형은 모임, 말씀, 성찬, 파송의 4중 구조¹⁰⁰⁾를 가지고 있다.

98) Paul E. Engle, Paul A. Basden, *Exploring the Worship Spectrum*, 178.

99) Paul E. Engle, Paul A. Basden, *Exploring the Worship Spectrum*, 180-182.

100) 예배의 4중 구조(fourfold pattern)

(1)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람들이 모임, (2) 찬양 안에서, 성경본문 안에서, 설교로, 기도로, 평화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선포한다. 외친다. (3) 물, 빵, 오일 등의 상징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연한다. (4)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주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러한 4가지 패턴은 성경과 역사의 뿌리가 된다. 첫 번째 공적예배의 묘사는 출24:1-11에 기록되어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람들은 시내산에 모였다. 언약의

블랜디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회중들이 예배에 대한 참여성이다. 예전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간소화 시키면서 회중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블랜디드 예배는 예배에 대한 회중들의 참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개신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예배에서 찬양에 무게중심을 높여가면서 전통예배와 찬양예배의 통합을 시도해왔다. 그것에 대한 예로 공적인 주일예배에 전통적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경배와 찬양의 순서를 가진다. 그리고 오후예배 혹은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로 전통적인 예배보다 더 큰 무게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성찬을 포함한 예전적인 요소에 현대적인 예배의 음악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블랜디드 예배는 한국에서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할 미국의 세인트앤드류루터란교회(St. Andrew's Lutheran Church)¹⁰¹⁾는 루터교단으로서 성찬을 포함한 예전적인 형태와 현대적인 예배의 음악과 혼합을 이루고 있다.¹⁰²⁾

책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동의한다. 희생적 활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언약의, 만들었다, 축제의 음식이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되고,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 나아가고, 주님을 섬긴다. 이러한 4가지 패턴은 구약의 모든 언약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신약의 이러한 패턴의 예배는 사도행전2:42에서 묘사한다.. 이것은 모든 초대교인 예전들의 예배의 패턴이다. 이 예배순서는 루터, 칼빈에 의해 지지된 것이다. Paul E. Engle, Paul A. Basden, *Exploring the Worship Spectrum*, 182.

101) 세인트 앤드류의 루터란 교회(St. Andrew's Lutheran Church)는 "6815 Schneider Road, Middleton, Wisconsin 53562"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교회의 예배사역은 고대와 현대음악과 간소한 예전이 혼합된 예배라고 소개하고 있다.

<http://www.st-andrew-online.org/MinistryInfo.aspx> (accessed October 5, 2012)

102) 목회자들과 예배인도자들을 위한 예배순서와 요소에 대한 아이디어에 관해서는 "Worship Ideas You Can Use" (<http://sjbrown58.wordpress.com>)를 참조하십시오. 여기 웹사이트를 통해 블랜디드 예배순서와 미국에서 블랜디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세인트 앤드류의 루터란 교회(St. Andrew's Lutheran Church)이다.

가. 세인트앤드류루터란교회(St. Andrew's Lutheran Church)의 예배순서¹⁰³⁾

Gathering

예배를 위한 준비Pre-service music (piano)
 목회적 인사Pastoral greeting
 회중찬양Congregational song of praise
 죄의고백에 대한 목회적 기도Pastoral prayer of confession
 회개기도를 위한 침묵Silence for personal prayers of
 repentance
 죄용서의 확신Spoken assurance of forgiveness
 회중의 응답송Congregational song of response/praise
 (additional stanzas/refrains of opening song)
 인사Time for worshipers to greet each other

Word

구약 낭독Old Testament reading
 복음서 낭독Gospel reading
 신약 낭독New Testament reading
 자녀들의 헌신Children's devotion (based on sermon
 text/theme)
 설교Sermon
 니케아신경Nicene Creed

Sacrament

수르숨코다Spoken sursum corda ("The Lord be with you...")
 상투스Sanctus song of praise ("Holy, holy holy...")
 제정의 말씀Words of Institution
 초대 말씀Words of Invitation
 아그너스데이송Agnus Dei song ("Lamb of God, you take
 away...")
 주의만찬의 분배Distribution of the Lord's Supper
 분배동안 2개의 회중적 찬양Two congregational songs during
 distribution

Thanksgiving

헌금Offering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Prayers of God's people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103) Steve Brown, "Orders of Service for 'Blended Worship,'" (<http://sjbrown58.wordpress.com/2009/07/23/orders-of-service-for-%E2%80%9Cblended-worship%E2%80%9D/>, accessed October 5, 2012).

Sending

주님의 축복The Lord's Blessing

파송의 노래Congregational sending song

광고Announcements

인사Time for greeting each other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St. Andrew's Lutheran Church의 예배순서는 5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블랜드드 예배의 유형인 4중 구조와 다르지 않다. 모임-말씀-성찬-파송의 4중 구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성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의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5중 구조로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비교해본다면 블랜드드 예배는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에서 4중 구조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위의 예배구조를 조금 더 크게 나누어 본다면 말씀예배와 성찬예배의 2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회중의 준비는 예배를 위한 준비의 순서부터 시작하여 말씀예배에 들어가기 직전인 인사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낭독에서 설교까지의 순서이며, 회중의 응답은 니케아신경의 신앙고백과 감사의 부분에 해당되는 헌금, 하나님의 백성과 기도, 주기도문 순서이다. 성찬은 수르숨코다에서 분배할 동안의 회중들의 찬양까지의 순서이다. 마지막으로 파송 및 퇴장찬송은 주님의 축복, 파송의 노래, 광고, 그리고 인사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 순서와 요소를 비교해 보면, 예찬은 예배를 위한 준비, 목회적 인사, 회중들의 찬양의 순서이다. 죄의 고백, 죄의 용서, 그리고 용서의 확신은 죄의 고백에 대한 목회적 기도, 회개기도를 위한 침묵, 죄용서의 확신, 회중들의 응답송의 순서에 해당된다. 그리고 감사와 청원의 기도는 성찬 후 그리고 파송 전에 헌금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로 이어진다. 가르침은 구약낭독, 복음서낭독, 신약낭독, 설교본문낭독, 그리고 설교의 순서에 해당된다. 책임부여는 파송의 노래와 광고의 순서에 해당되고, 축도는 주님의 축복의 순서에 해당된다. 위의 예배순서는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배의 요소 또한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위의 예배 순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

고,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의 순서 또한 잘 따르고 있다. 블랜디드 예배는 현대적인 영성을 추구하고 예전의 구조 또한 잘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음악을 많이 활용하고 회중들이 찬양을 부름으로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성찬예식 때 떡과 잔을 분배할 동안도 그냥 음악이 흐르지 않고 회중들이 찬양을 한다. 죄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응답송을 부른다. 또한 회중들이 예배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침묵하게도 한다. 죄의고백에 대한 목회적 기도를 하게 되면 회중들은 회개기도를 위해 침묵함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말씀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도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등 회중들이 예배에 대한 참여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St. Andrew's Lutheran Church의 예배구조와 순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블랜디드 예배의 유형을 잘 유지 하고 있다.

3. 이머징 예배(Emerging Worship)

이머징 예배는 예배당을 거실 분위기처럼 만들어 놓고 공동체를 고무시켜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다. 무대나 강단을 바라보게 하는 장의자를 놓는 것 보다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원형으로 의자를 배치하여 공동체적인 환경을 만든다. 대부분의 예배음악은 기독교 팝을 넘어서 절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음악, 고대 음악과 조합한 음악을 사용하며, 심지어 고대의 합창곡과 떼체(Taize)형식의 찬트를 현대 팝음악과 섞어서 부르기도 한다.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음악의 형태가 결정되고, 독특한 공동체의 경배와 찬양을 반영하기 위해 그들만의 음악을 창작한다. 더 나아가 이머징 예배에서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교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¹⁰⁴⁾

그러므로 이머징 예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은 첫째는 예배자의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서 특정한 몇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배¹⁰⁵⁾라는 것이다.

주승중 교수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기고문에서 “이머징 교회에서 예배란 더 이

104) 주승중, 유재원,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73-75.

105) 김기영,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이머징 예배 연구* (천안: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 2011), 85.

상 고대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발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함께 융합해야 할 실천의 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머징 예배의 특징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⁰⁶⁾

첫째, 이머징 예배는 예배를 구경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service’라는 단어보다 ‘gath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배 기획의 가치전환을 가져왔다. 현대교회는 담임목사가 예배에서 가르칠 내용을 결정하고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고 음악이나 그 밖의 것은 엑스트라다. 하지만 이머징 교회는 목사가 가르쳐야 할 것을 결정할 때 공동체와 스태프 모두를 포함한다. 현대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강화할 수 있는 음악이나 다른 창조적인 요소를 예배 인도자에게 지시한다. 목사와 예배인도자만으로 주일 예배팀이 구성된다. 하지만 이머징 교회는 예배팀이 예배를 기획하고 지시하며, 주일 예배팀은 교사, 찬양인도자, 예술가, 사진작가, 비디오, 파워포인트 팀으로 구성한다.

둘째, 이머징 예배 모임은 유기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회중들은 단순히 앉아 있지 않고 성경봉독, 나눔, 침묵의 시간, 노래, 메시지, 시각적인 것, 목상 등에 성령의 역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며 예배에 참여한다.

셋째, 예배 모임을 위해 구별된 공간을 만든다. 이머징 교회의 예배는 시각적인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신비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주기 위해 영적 환경의 예배를 추구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려내기 위해 고대의 십자가를 사용하고, 엄숙함과 진지함을 위해 초를 사용한다.

넷째, 예배 모임에 대한 다감각적 접근을 시도한다. 다감각적 예배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으며,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섯째, 예배 안에 있는 움직임의 자유를 존중한다. 음악 예배가 20-30분 동안 지속되는 중에는 자리를 떠나 성령께서 그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인다.

여섯째,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초점을 중요시 한다. 설교자는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 ‘가운데’ 있다. 가르침이

106) 주승중, “고전적 가치를 지닌 믿음의 예배를 꿈꾸며,” *목회와 신학* 207 (2006년 9월), 65-69.

나 설교는 항상 공동체에서 나온다.

일곱째, 예전, 고대훈련, 교회력, 유대 전통을 반영한다. 이머징 교회에서는 고대를 추구하려는 열망이 있다. 그래서 이머징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초점을 맞춘 예배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덟째, 기도에 대해 강조한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아홉째, 예배의 중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한다. 성찬식은 이머징 교회의 예배에서 중심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머징 교회와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주의 만찬을 예배의 중심으로 되게 하자는 열망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열째,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 예수님은 예배에서 가장 크게 살아 있어야 할 가치이기에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만이 예배의 핵심이다. 이것은 기도, 십자가의 상징, 설교자나 찬양 예배의 리더가 강조되거나 드러나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가. 빈티지믿음교회 예배순서

빈티지믿음교회는 2004년 설립됐으며 매주 400여명이 모이고 있다. 이 교회는 설교와 예배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을 거부하고 오히려 기독교의 초기 기원으로 돌아가 그 원시성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이 교회는 주일 아침 11시와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린다. 요사이 열린예배의 모습을 따라 저녁예배를 없앤 한국교회들이 많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차별점이다.

빈티지믿음교회는 십자가를 비롯한 기독교 상징을 비디오 스크린으로 투사하거나 예술적 조형으로 살려 냈다. 열린예배가 기독교의 상징을 없애고 대중과 친숙한 교회상을 추구한 것과 대조된다. 또 극장식과 같은 열린예배와 달리 빈티지교회는 거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열린예배가 밝은 조명을 사용한다면 이 교회는 어두운 상태에서 스크린과 촛불과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또 설교가 정점이 아니라 예배 각각의 순서가 예배경험 위주로 진행되며 설교와 기타 순서의 비중이 시간적으로 비슷하다. 예배에 묵상과 침묵의 시간, 예배 공동체의 말씀 교독, 회중이 말할 수 있는 빈번한 기회, 찬양을 가르치는 시간, 시 낭독, 말씀과 함께 미술작품을 묵상,

고대 세계를 현대와 접목시킴, 참여를 유도하는 인도, 공동의 성만찬 경험 등이 예배의 특징이다.¹⁰⁷⁾ 빈티지믿음교회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¹⁰⁸⁾

모임의 주제 :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살펴본다.

들어가는 음악(테크노 음악을 혼합한 CD를 들려준다.
 스크린으로 보는 성경구절
 경배의 음악
 성경봉독
 경배의 음악
 공동체 광고
 교제의 시간
 찬양
 메시지
 첫 번째 테이블: 신부 선택 : 신랑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선택
 두 번째 테이블: 신부 대금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
 세 번째 테이블: 신부를 위한 선물 목록이 들어 있는 약혼 계약서
 네 번째 테이블: 정결하게 하는 물
 다섯 번째 테이블: 신랑은 신혼 방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
 여섯 번째 테이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거행되다.
 일곱 번째 테이블: 결혼만찬
 경배와 기도 차소에서의 상호작용
 봉헌
 공동체 기도와 축도로 폐회함
 나가는 음악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빈티지믿음교회의 예배순서는 그날 모임의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배순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로 통하고 있다. 메시지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테이블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

107) “미국 복음주의 ‘이머징 예배’ 논란”, *기독신문* (2010년 5월3일자),

<http://www.kidok.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4535> (accessed October 10, 2012).

108) Dan Kimball,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Emerging Worship)*, 주승중 역 (서울: 이레서원, 2008), 244-250.

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중 구조와 비교해본다면 말씀과 성찬이라는 2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메시지와 결혼만찬이라는 순서를 통해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중의 준비는 들어가는 음악, 스크린을 통해 보는 성경구절, 경배의 음악의 순서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메시지와 각각의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다. 그리고 결혼만찬이라는 성찬으로 바로 이어진다. 회중의 응답은 경배와 기도 처소에서 상호작용, 봉헌, 공동체 기도의 순서이다. 축도와 퇴장찬송은 축도와 나가는 음악으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빈티지민음교회의 예배순서에 예술성, 자율성, 그리고 공동체성이 가미되었지만 전통적인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인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해보면 예찬은 들어가는 음악, 스크린으로 보는 성경구절, 경배의 음악의 순서이다. 죄의 고백, 용서의 확신, 감사, 청원과 도고의 순서는 보이지 않지만 메시지 이후에 일곱 테이블을 통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죄의 고백, 용서의 확신, 감사, 청원과 도고의 순서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가르침은 메시지와 그것에 따라오는 일곱 테이블의 활동들이다. 성찬은 결혼만찬의 순서이고, 책임부여와 축도는 공동체기도와 축도 그리고 나아가는 음악의 순서이다.

성경봉독과 메시지 사이의 순서에서 공동체광고와 교제의 시간이 있다. 만일 공동체광고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책임부여의 의미를 높이려고 한다면 봉헌순서 이후에 갖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회중들의 감사와 도고와 청원의 의미를 강조하려면 설교 이전에, 그리고 회중들의 응답을 의미로 높이려면 메시지 이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성경봉독과 메시지 사이에 하는 교회광고와 교제의 시간은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머징 예배는 자유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해진 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구속사적이고 복음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제거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 나타나는 참여를 통해 복음적인 흐름의 예배를 경험하게 한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표현하거나 성경의 의미를 전달할 때에 창조적인 도구들-미술, 음악, 시, 사진, 춤, 퍼포먼스 등-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 예배하려고 한다.

제 3 절 한국 개신교의 각 교단별 예배순서

한국 개신교의 전통에 따라 대표적인 교단은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이다. 성공회부터 시작하는 예배의 유형은 예전적인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침례교까지 점점 탈예전적인 예배의 흐름으로 나아간다. 이들 교단의 교단 헌법이나 교단 예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순서들을 통해 예배의 유형을 살펴보고, 예배순서를 해설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1. 성공회

가. 성공회 예배순서

영국 성공회 예배는 종교 개혁당시 성경에 위배되는 점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대부분은 중세기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의식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것이다. 성공회의 예배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¹⁰⁹⁾ 첫째는 순서이다. 예전의 순서는 곧 예전의 모습과 구성에 있어 구조적인 골격을 의미한다. 둘째는 의식이다. 예전은 공동적 행위로서 여러 가지 의식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예식이다. 예전은 언제나 공동적 행위로서 여러 가지 예식적인 것들이 요청된다.

성공회 예배는 성서적이어서 성서적 시편과 기도서 성가(Canticles)를 노래하거나 낭송하며, 신구약성서로부터 온 성서 본문을 낭독한다. 성서낭독은 평신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 또한 성공회 예배는 지성적이어서 감정에 대한 호소보다도 이해에 대한 호소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사제의 예배행위와 그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공동적 표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직자가 라틴어로 예배를 이끌어 갔으므로 사실상 그 예배는 성직자를 위한 예배였으나 모든 회중이 잘 이해하는 공동 기도서를 가지고 드리는 성공회 예배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분리나 격차 없이 함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예배이다.¹¹⁰⁾ 한국 성공회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¹¹¹⁾

109) 이재정, *한국 성공회사 개관* (서울: 성공회 출판사, 1980), 21-27.

110)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11.

111) 정철범, *성공회 입문* (서울: 성 베다교회 출판사, 1989), 109-117.

[말씀의 예전]

입당성가
 개회기도
 키리에(자비를 구하는 기도)
 영광송
 인사 및 본기도
 성시낭독
 찬개송
 복음서낭독
 설교
 신앙고백(니케아신경)
 십계명
 죄의고백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봉헌례
 성찬기도
 주의 기도
 천주의 어린양
 영성체초대
 영성체
 성체 후 기도
 축복기도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성공회 예배순서는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전례의 2부 구조로 되어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2부 구조와 일치하고 예배의 2부 구조에서 파생된 예배의 4중 구조와도 일치한다. 회중의 준비는 입당성가부터 찬개송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복음서낭독과 설교의 순서이다. 그 이후로 회중의 응답의 순서가 따라오는데 니케아신경에서 죄의 고백까지이다. 성찬예배는 평화의 인사에서 영성체후 기도까지이며 축도와 퇴장찬송은 축복기도의 순서에 해당된다.

회중의 응답 부분에 위치한 죄의 고백은 예배자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예배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기도의 현상의 일부분인 죄의 고백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때 기도의 현상은 경배, 고백(confession), 청원, 감사기도¹¹²⁾로 나눌 수 있다. 죄의 고백은 말씀에 대한

112) Robert Webber, *예배학*, 162.

응답으로서 기도함으로 응답할 수 있지만, 죄의 고백의 순서만 따로 갖는 것은 자비를 구하는 키리에송의 이전에 위치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이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순서의 8요소와 비교해보면 예찬이 입당성가에서 영광송까지이다. 죄의 고백은 설교이후에 회중들의 응답의 부분에 나온다. 감사와 청원과 도고의 순서는 말씀 이후와 성찬예식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청원과 도고가 말씀이후에 오는 순서로 회중의 응답을 강조한다. 책임부여에 대한 순서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축도의 부분인 강복선언으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성공회 예배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찬이후로 예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성찬예식이 끝남으로 바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는 것에 있다. 성찬예식 이후에 회중들이 세상에 나갈 준비하는 예배의 순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예배의 4중 구조에서는 파송 또는 해산이라고 하며, 복음적 예배순서의 8가지 요소에서는 책임부여의 순서에 해당된다. 이 순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며 이제 말씀을 받고 은혜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는 파송식과도 갖다. 성공회의 예배에 성찬이후로 예배가 마무리 되는 예배순서의 요소가 추가된다면 더욱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될 것이다.

2. 루터교

가. 루터교 예배순서

루터교회의 예전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과 “믿음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를 뜻하고, 믿음에 의한 칭의는 믿음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칭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¹¹³⁾

루터교회의 예배는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구약의 유산인 의식의 요소들 즉, 봉독문, 시편,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등 응답 용어들을 사용한다. 또한 신약 교회 예배에서 나온 요소들도 있는데 복음 중심, 성례전, 기도 등이다. 그리고 전체 예배는 성경에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 또한 루터교회는

113)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11.

예배의 신앙적 응답을 중요시해서 응답하는 의식이 많으며 음악을 통하여 예배자가 참여하는 예배이다.¹¹⁴⁾ 이러한 루터교회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¹¹⁵⁾

죄의 고백과 용서
 입장찬송
 기도송(Kyrie)
 영광송
 인사
 오늘의 기도문
 오늘의 교회력 해설
 구약성서봉독
 오늘의 시편
 사도서신 봉독
 성가대 찬양
 복음서 봉독
 신앙고백
 찬송
 설교
 헌금
 봉헌영가
 일반기도
 성찬의식
 삼성송
 감사기도
 주기도
 하나님의 어린양
 성찬분배
 시므온의 노래
 기도, 축도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루터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만찬의 예배를 특별히 나누지 않고 하나의 예배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루터교회의 예배순서를 비교해본다면 루터교회 역시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중의 준비에 해당되는 순서는 죄의 고백과 용서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기도문, 신앙고백, 찬송의 순서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성서봉독에서 설교의 순서까지 이어진다.

114) 한국 루터교 선교부, *예배의식문* (서울: 컨콜디아사, 1989), 3.

115) 한국 루터교 선교부, *예배의식문*, 3.

회중의 응답에 해당되는 순서는 헌금, 봉헌영가, 일반기도이다. 성찬예배의 순서는 성찬의식부터 시작하여 성찬분배까지의 순서로 이어진다. 축도와 퇴장찬송에 해당되는 순서는 시므온의 노래와 기도, 축도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의 8요소와 루터교회의 예배순서를 비교해보면 예찬의 부분은 입장찬송, 기도송, 영광송이 해당된다. 그리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증은 예배의 제일 처음 순서인 죄의 고백과 용서에 해당된다. 감사의 부분은 설교 이후에 나타난 헌금의 순서로부터 시작하여 성찬예배가 마칠 때까지 강조된다. 청원과 도고의 순서는 오늘의 기도문과 일반기도의 순서에 해당된다. 가르침의 순서는 오늘의 교회력해설, 구약성서봉독, 오늘의 시편, 사도서신 봉독, 복음서 봉독 그리고 설교 등의 순서이다. 성찬의 순서는 성찬의식에서부터 성찬분배에까지 해당되고, 책임부여와 축도는 시므온의 노래와 기도와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루터교의 예배순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를 잘 따르고 있고, 또한 2부 구조에 파생된 예배의 4중 구조(입장-말씀-성찬-파송)로도 세분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연속성을 복음적인 예배순서의 논리에는 적합하지 않는 예배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순서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예배 예전은 예찬으로부터 시작하며 그 이후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순서가 나왔다. 하지만 루터교의 예배순서는 제일 처음에 죄의 고백과 용서의 순서를 두었다. 구약의 성막제도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아가는 정결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신약시대 이후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배 안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는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나오는 고백이다. 그리고 죄의 고백 후 하나님의 용서와 확신의 순서로 오는 것이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인 예배순서가 되는 것이다. 주기도문과 하나님의 어린양의 순서는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넣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이 예배 안에서 고조된다.

3. 감리교

가. 감리교 예배순서

영국감리교 대회에서 ‘감리교 예배서’(The Methodist Service Book, 1975)를 인준했는데, 주일 예배의 이름은 웨슬리가 사용했던 ‘the Sunday Service’를 사용했다. 이 예배는 고정된 순서와 자유로운 순서, 그리고 성찬중심의 예전을 담고 있다. 성찬이 없는 예배는 찬송, 순결을 위한 기도, 죄의 고백, 사죄의 선언, 그 날의 기도, 구약성경이나 서신서 또는 둘 다 봉독, 찬송, 복음서 봉독, 설교, 중보기도, 주기도이다. 성찬이 있는 예배순서는 설교 후에 평화의 인사(때때로 니케아 신조), 찬송, 성찬상 준비, 감사, 떡을 땀(때때로 겸손을 위한 기도), 떡과 잔을 나눔, 기도, 찬송, 축도, 파송이다.¹¹⁶⁾

미국 감리교회에서 사용된 예배 형식은 미국 감리교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존 웨슬리는 미국 감리교회에 ‘북미의 감리교인을 위한 주일 예배서’를 보냈는데 이것은 1662년 ‘공동기도서’의 개정, 축소판이다. 이 예배서는 ‘1792년 권징(Discipline)’에 실린 37페이지 분량의 ‘성례전 예배서(Sacramental Services)’로 대체되었다. 1844년 감리교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설교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성례전 예배서’라는 이름은 성례전을 거행할 때만 사용했다. 19세기 중엽 매년 천막집회가 열릴 때면 그 예배는 언제나 감정적으로 고양된 분위기였다. 가능하면 회심자를 많이 얻고자 하는 실용주의 정신 때문에 역사적 유산이나 예전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처음 한국감리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미국감리교회 예배의 순서를 따랐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웨슬리의 감리교회 예배와는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졌다. 한국에서도 다른 타교단과의 협력 선교와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으며 한국의 상황에 맞게 예배형식이 정착되어왔다. 따라서 성만찬은 축소 내지 생략되고 설교중심의 예배형식을 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성만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발간된 새 예배서¹¹⁷⁾는 말씀 중심의 일반적

116) Andy Langford, *예배를 확 바꿔라*, 35-36.

117)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예배를 위해 1991년 예문과 1992년 예배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보충과 수정의 필요를 느끼고 두 책을 합해 한 권으로 개정하여 2002년도에 새 예배서를 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예배와 성만찬이 있는 예배형식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감리교 새 예배서¹¹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전주
입례송
예배로 부름과 기원
경배찬송
죄의 고백
용서의 말씀
교독
삼위영가
오늘의 기도
주님의 기도
기도응답송

[말씀의 선포]

성경봉독(구약성경, 서신서, 복음서)
찬양
설교전 기도
설교

[감사와 응답]

합심기도
신앙고백
찬송
평화의 인사
봉헌
봉헌과 목회기도
봉헌응답송

(성만찬을 할 경우)

[성만찬]

찬송
성만찬으로 초대
시작기도
삼성창
성만찬 제정사
기념사

118) 신앙과 직제위원회, 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새 예배서*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2), 46-50.

성령 입재의 기원
 영광찬양
 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
 분병례
 분급
 성만찬 후 감사기도

[세상으로 나감]
 교회소식
 찬송
 파송의 말씀
 축도
 축복송
 후주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한국 감리교 교회 예배서를 통해 볼 수 있는 예배순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말씀의 선포, 감사와 응답, 성만찬, 세상으로 나감의 5중 구조로 되어있다. 이 예배순서의 주된 구조는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이고, 좀 더 세분화하여 나누면 말씀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과 성찬 뒤에 세상으로 나가는 부분의 4중 구조로 된다. 입장-말씀-성찬-파송의 4중 구조 역시 예배의 2부 구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감사와 응답을 제외하고는 감리교 예배순서는 전통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의 2부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성찬을 할 경우에 성찬의 순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주 성찬은 각 교회마다 자유롭게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배의 2부 구조에서 말씀예배의 요소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회중들의 준비의 부분은 전주에서 기도응답송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순서로 이어지고 회중의 응답은 합심기도에서 봉헌응답송까지의 순서이다. 그 다음 성찬의 순서로 이어지고 축도와 퇴장찬송의 부분은 교회소식부터 후주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감리교 예배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의 2부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하지만 성만찬이 빠진 말씀 중심의 일반적 예배순서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브라이언 채플이 제시한 전통적 예전 속에서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의 8가지 요소와 비교해보면 전주에서 경배와 찬송까지는 첫 번째 예찬의 부분에 해당되고, 죄의 고백은 두 번째 죄의 고백의 순서에 해당된다. 용서의 말씀은 세 번째 순서인 용서의 확증에 해당된다. 네 번째 순서인 감사는 말씀선포 이후의 순서로 오고 다섯 번째 청원은 말씀 전 예배의 기도에 해당된다. 성경복독에서 설교까지는 여섯 번째 순서인 가르침에 해당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순서인 성찬은 성만찬 순서에 해당되고, 마지막 순서인 책임부여와 축복은 파송의 말씀과 축도에 해당된다.

한국 감리교 예배순서는 말씀과 성찬이라는 2부 구조로 되어 있고,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순서의 8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봉헌에 대한 대부분의 전통적인 예전에서는 성찬예배의 때와 설교 이후에 봉헌의 순서를 가졌다. 레이번이 구상한 예전에서는 설교 앞부분에 봉헌의 순서가 있다. 이러한 봉헌에 대한 예배순서는 각각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죄 용서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 이전에 있는 죄용서와 확신 이후의 순서에 봉헌순서가 온다. 하지만 설교 이후에 오는 봉헌은 말씀에 대한 회중들의 응답이다. 봉헌을 통해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감리교 예배순서에는 봉헌의 순서가 설교 이후에 감사와 응답이라는 예배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중들의 응답이라는 측면에 강조를 둔 것이다.

이처럼 한국 감리교는 “새 예배의식서”를 통해 전통적인 설교중심의 예배에서 예전중심적인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 감리교회는 전통적인 설교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도 예배회복 운동의 영향을 받아 매주 성찬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 인천에 위치한 여명교회(감리교)인데, 이 교회는 앞으로 성찬회복을 통한 예배로 나아가려는 한국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다. 여명교회 예배순서

인천광역시 주안6동에 위치하고 있는 여명교회(가홍순 목사)는 영감 있는 예배와 셀 속회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며,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인 3대 비전을 품고 있다.

특히 여명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듣

고,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얻어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성만찬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홍순 목사는 1993년부터 1월부터 현재까지 갱신된 성만찬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다.¹¹⁹⁾

여명교회 주일 예배의 성만찬은 리마예식에 따른 예식과 감리교회 예배서에 따른 예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명교회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¹²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전주 / 오르간
 입례송 (예수우리왕이여) / 일어서서
 송영 / 찬양대
 예배로 부름과 기원
 죄의고백
 자비송 (정결한마음주시옵소서)
 용서의 말씀(출20:20)
 교독문
 삼위영가
 오늘의 기도
 주님의 기도

[말씀선포]

성경봉독
 찬양 / 찬양대
 설교
 합심기도
 신앙고백
 찬송
 봉헌(헌금송을 부르면서)
 봉헌 및 목회기도

[성만찬예전]

준비기원
 성령임재의 기원
 제정사
 분병례
 감사의 기도

119) 이기옥, “한국교회 성만찬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54.

120) 여명교회 주보(2010년 5월16일 주일 낮 예배순서)

[세상으로 나아감]

교회소식
찬송
파송의 말씀
축도

라.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여명교회의 예배순서는 하나님께 나아옴, 말씀선포, 성만찬예전, 세상으로 나아감의 예배의 4중 구조로 되어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에서 파생된 예배의 4중 구조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곧 말씀과 성찬의 예배의 2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여명교회의 예배순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일치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순서를 가지고 있다. 회중의 준비는 전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기도의 순서까지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설교이다. 그리고 회중의 응답은 합심기도부터 봉헌 및 목회기도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로 성찬의 순서를 가지고, 축도와 퇴장찬송은 교회소식에서 축도까지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한 가지 추가해야 할 순서가 있다면 축도이후에 퇴장찬송의 순서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기독교 예배순서와 비교할 때 그 흐름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해 본다면 예찬은 전주에서 예배의 부름과 기원의 순서까지이다. 죄의 고백은 죄의 고백의 순서를 따르고 죄의 용서와 용서의 확신은 자비송과 용서의 말씀의 순서를 따른다. 삼위영가를 통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청원과 도고는 주님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의 순서를 따른다. 가르침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순서를 따르고 있고, 성찬예식이후 책임부여와 축도는 교회소식, 파송의 말씀과 축도로 브라이언 채플이 제시하는 예배의 복음적 순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명교회의 예배순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의 구조인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배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명교회 회중들을 인터뷰한 이기욱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여명교회의 회중들은 성만찬을 매주일 드리는 것을 절대 다수가

매우 좋아하고 있다. 처음에는 매주일 성만찬을 실시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계속 실행하므로 평신도들에게 체질화가 되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성만찬 예배에 대한 참여 의식, 예배시의 엄숙함, 예배시의 은혜스러움, 성찬식의 영적인 감동을 체험하여 회중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 가고 있다.¹²¹⁾

한국 개신교회에는 어떻게 성찬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을까 염려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이유는 예배순서가 더 길어져 예배가 지루해질 것이라는 생각, 매주 성찬을 준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매주 성찬을 거행하게 되면 형식적여지고 성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등등이다. 하지만 여명교회에서 성찬을 매주 시행하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회중들의 대부분은 매주 성찬 예배가 시행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중들에게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회중들의 신앙이 성숙에 이르도록 기여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개신교회에 꼭 필요한 예배순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장로교

가. 장로교 예배순서

한국장로교는 원래 하나의 교단이었지만 광복 이후로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어질 대표적인 한국 장로교 교단은 통합, 합동, 그리고 본 연구자가 속해져 있는 고신교단이 될 것이다. 통합과 합동의 예배순서는 여기에서 다루게 되고, 고신교단은 본 연구자가 연구하는 대상의 교단이기 때문에 6장에서 예배순서를 해설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헌법에 보면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응답이며 구체적인 행위이다.”¹²²⁾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단예식서에서 나타난 순서는 다음과 같다.¹²³⁾

121) 이기욱, “한국교회 성만찬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54.

12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246.

주악
 개회찬송 - 성가대합창
 예배의 말씀
 송영
 기원과 주기도
 영도
 찬송
 성경봉독
 성가대찬양
 기도 - 평신도의 기도
 화답송
 헌금
 봉헌기도
 찬송
 설교
 설교자의 기도
 신앙고백
 폐회찬송
 축도
 주악
 폐회

(2)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의 표준예식서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기백성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알파와 오메가요, 거룩한 은혜에 보답하는 구원받은 자의 엄숙한 신앙고백과 경건한 삶의 표현이다”¹²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단 표준예식서에서 나타난 순서는 다음과 같다.¹²⁵⁾

묵도
 개회기원
 예배찬송
 성시교독
 신앙고백
 찬송
 기도

12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통합), *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1), 27.

124)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합동), *표준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3), 19.

125)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합동), *표준예식서*, 21.

성경봉독
 찬양 - 성가대
 설교
 설교자의 기도
 찬송
 헌금
 교회소식
 찬송
 축도
 폐회
 성도의 교제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한국장로교인 통합과 합동측의 예배 예식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예배순서가 전통적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예배의 1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예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장로교에서는 성찬예배를 1년에 4회 정도를 권장하며, 각 교회에 상황에 따라서 성찬예배를 예배순서에 넣을 수 있다. 일단 성찬을 제외한 예배순서를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통합측 예배순서를 비교해 본다면 말씀예배에서 회중의 준비는 예배의 말씀에서 찬송까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설교와 설교자의 기도로 이어지고, 회중의 응답은 신앙고백으로 이어진다. 축도와 퇴장찬송의 부분은 폐회찬송에서 폐회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그리고 합동측 예배순서는 회중들의 준비가 묵도에서 기도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에서 설교자의 기도까지이며, 회중들의 응답은 찬송, 헌금의 순서이다. 그리고 축도와 퇴장찬송의 부분은 축도, 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 이어진다.

장로교이지만 예배의 순서가 각각 다른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통합측은 성가대찬양과 헌금 및 봉헌기도가 설교의 앞부분의 순서로 나타난다. 성경봉독 또한 회중들의 준비의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회중들의 응답부분이 헌금과 봉헌기도가 설교의 앞부분에 있으며, 신앙고백만이 설교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합동측의 예배순서는 회중들의 준비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그리고 회중들의

응답과 폐회의 순서들이 전통적 기독교 예배의 순서에 따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예배의 2부 구조에서 파생된 예배의 4중 구조와 비교해볼 때 성찬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입장-말씀-(성찬)-퇴장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브라이언 채폴이 제기하는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8가지 요소와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통합측 예배순서와 복음적 예배순서를 비교해보면 예찬의 부분에 해당되는 순서는 예배의 말씀에서 성가대찬양까지이다. 죄의 고백은 예배의 순서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기도 후에 화답송의 순서를 볼 때 기도가 죄의 고백, 청원과 도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용서의 확신은 화답송으로 감사는 헌금과 봉헌기도로 이어진다. 가르침은 설교로 이어지고, 책임부여와 축도는 폐회찬송, 축도, 주악, 폐회로 마무리된다.

합동측의 예배순서와 복음적 예배순서를 비교해보면 예찬이 묵도, 개회기원, 예배찬송, 성시교독 등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고, 죄의 고백은 통합측의 예배순서와 같이 예배순서에서 빠져있다. 죄의 용서의 확신 그리고 감사의 순서 역시 빠져있다. 청원과 도고는 기도의 순서에 해당되고 가르침은 성경봉독과 설교자의 기도까지 이어진다. 책임부여와 축도는 교회소식을 예배순서에 넣음으로서 예배자로 하여금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찬송, 축도, 폐회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장로교 예배순서를 정리해 본다면 통합측이나 합동측에 공통된 예배의 요소를 가지고 순서를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측에 공통적으로 참회의 순서나 용서의 확신의 순서가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주기도문은 이웃을 위한 기도나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는 설교의 이전에 오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오는 것이 복음적인 흐름을 타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측의 주기도문은 기원과 함께 예찬의 부분에 있다. 그리고 합동측의 예배순서에는 주기도문 순서가 아예 빠져있다. 헌금의 순서는 죄 용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용서의 확증 뒤에 오는 것이 낫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회중의 응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설교 뒤에 헌금순서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예배순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지만 예배에 나타나는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인 흐름을 타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5. 성결교

가. 성결교 예배순서

성결교회의 예배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심어준 선교지향적인 예배와 1907년에 일어난 한국 개신교 자체의 부흥회식 예배가 강하게 자리 잡은 토양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초기 한국에 파송된 청교도형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으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은 자들로 한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매우 선교지향적인 예배를 심었다. 피선교지의 예배의 경향은 전적으로 선교사들의 주된 관심(선교 사명)과 소개(예배 배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성서를 통하여 한국인들에게 접근한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에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와 회심을 목적으로 한 전도설교 중심의 예배를 형성하였다. 회심자들을 얻으려는 전도설교 중심의 예배는 회심자들을 즉시 교회공동체로 전입시키려는 세례 예식으로 연결되었다. 각 교단이 자체의 확장을 향한 선교 열정에 의해 때로는 예배가 선교 서약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심지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 초기의 정책, 즉 네비우스 방식에 의해 예배 참석자 숫자에 대한 경쟁이 일어난 토양에서 초기 한국 성결교회의 예배도 회심을 목적으로 한 설교와 세례의식을 강조하던 예배의 영향을 받았다.¹²⁶⁾

초기 성결교회의 예배 전통은 19세기 초부터 주로 미국의 변두리 지역(the Frontier)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들을 만들려는 열정적인 부흥회식 예배(Frontier Worship) 전통과 연결된다. 하나의 새롭고도 독특한 예배 모델로 발전한 이 부흥운동 집회형식의 예배가 초기 한국 성결교회의 예배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고의 행위"¹²⁷⁾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순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²⁸⁾

126) 허도화, "초기 한국 성결교회의 예배: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성결교와 신학* 3 (1999년), 149-183.

12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95), 17.

128)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17-18.

[모이는교회의 예배]

예배로의 부름
경배찬송
시편교독
참회의 기도 - 개회기도
주님가르치신 기도

[말씀 받음의 예배]

성경봉독-구약, 서신, 복음서
찬양
설교
사도신경 고백
응답의 찬송
헌금과 기도

[성만찬 나눔의 예배]

성령임재의 기도
분병례
감사의 기도

[파송의 예배]

송영
파송의 말씀
축도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성결교의 예배순서는 모이는 교회의 예배, 말씀 받음의 예배, 성만찬 나눔의 예배, 파송의 예배의 4부분으로 나뉜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에서 파생된 예배의 4중 구조(입장-말씀-성찬-해산)와 동일하다. 말씀예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이는 교회의 예배와 말씀 받음의 예배이고, 성찬예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만찬 나눔의 예배와 파송의 예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 예배의식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 구조인 말씀과 성찬예배의 2부 구조로 되어있다.

전통적인 예배순서의 구조인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에서 세분화된 예배의 요소와 성결교 예배순서를 비교해 본다면 회중의 준비에 대한 부분이 예배로의 부름에서 주기도문까지가 해당된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의 부분은 성경봉독과 설교까지이고, 회중의 응답은 사도신경고백에서 헌금과 기도까지의 순서이다. 곧 성찬예배가 이어지고 축도와 퇴장찬송은 파송예배에서 예배순서가 마무리된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인 예배순서의 8가지 요소와 비교해보면 예찬의 부분은 예배의 부름에서 시편교독까지의 순서이다. 그리고 죄의 고백은 참회의 기도의 순서에 해당된다. 그 다음의 순서가 주기도문이 왔는데 레이번이 구상한 주기도문의 순서는 청원과 도고의 기도의 순서에 들어온다. 칼빈은 주기도문을 성경봉독을 하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위해 순서를 가졌다. 대부분의 예전에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의 마지막 부분인 성도의 해산의 부분에 순서로 온다. 성결교 예배순서는 말씀예배 전에 그리고 참회의 기도 후에 주기도문의 순서로 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조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주기도문 순서는 감사 그리고 청원과 도고의 기도의 순서를 포함하고 있다. 가르침은 말씀받음예배에 해당되고 말씀예배 이후에 성찬은 성만찬 나눔의 예배로 이어진다. 책임부여와 축도는 파송의 말씀과 축도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성결교회 예배순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복음적인 예배의 8가지 요소를 잘 반영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를 가지고 있다.

5. 침례교

가. 침례교 예배순서

침례교회의 예배순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의식을 강조한 교단들과는 달리 정형화된 예배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침례교회가 개교회적으로 모든 교회활동이 이루어지며, 자발성이 있는 예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예배의 순서는 예배의 부름, 방문자 소개와 광고, 성경봉독, 목회기도, 찬송과 복음성가, 봉헌, 성가대 찬양, 말씀선포, 초청, 축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거의 모든 주일 예배가 '초청'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신자들로 하여금 '결심'하도록 초청할 뿐 아니라 기존 교인들에게 '재헌신'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표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¹²⁹⁾ 이에 따라 김남수 교수는 아래와 같은

129) 이승숙, "한국교회주일 예배순서분석과 제안," (침례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7.

침례교의 예배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¹³⁰⁾

교회소식
 묵도
 찬송(경배찬송)
 교독문
 주기도문송
 성경봉독
 기도
 찬송(설교주제에 의함)
 봉헌(봉헌음악)
 성가대찬양
 설교
 초청(새신자환영노래)
 찬송(송영 또는 폐회찬송)
 축도

나. 예배순서의 해설 및 평가

침례교회 예배 순서는 말씀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말씀 이후 초청의 순서를 통해 비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심을 기존신자들에게는 재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이로 인해 침례교회의 예배순서가 복음적인 순서이기 보다는 교회로 나온 자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하는 예배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비교해 본다면 성찬예식이 빠져 있는 말씀예배의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침례교회에도 매주는 아니더라도 성찬예식을 집례한다. 성찬예식을 제외한 말씀예배 순서를 가지고만 비교해 본다면 회중의 준비는 묵도에서 주기도문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설교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찬송과 봉헌의 순서가 있다. 봉헌의 순서는 회중들의 감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회중의 준비에 보통 들어간다. 아니면 회중들의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설교 이후에 봉헌의 순서를 가진다. 하지만 침례교회 예배순서는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봉헌의 순서를 가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침례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그 날 설교의 주제와 연관이 있다. 특히 성경봉독 이후에 부르는 찬양은 설교의 주제와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는 침례교회의 예배구조의 중심

130) 김남수, *예배와 음악* (서울: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193.

은 설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교이후에 회중의 응답의 순서로 초청의 순서로 이어진다. 설교 이후에 결단하도록 비신자들을 부르는 것이다. 초청의 순서를 통해서 기존의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재헌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배가 매주 초청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수단, 전도의 수단으로서의 예배로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초청의 순서 이전에 회중들의 반응의 순서인 찬송, 고백, 기도, 헌금, 신앙고백, 화평의 입맞춤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도와 퇴장찬송으로 찬송과 축도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역사적으로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해보면 예찬은 묵도에서 주기도문송까지의 순서이다. 그리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 감사, 청원과 도고의 순서는 없다. 가르침은 성경봉독에서 설교까지 이다. 성경봉독에서 설교까지의 과정 속에는 기도와 설교를 주제로 하는 찬양으로 가르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설교이후의 책임부여와 축도는 찬송과 축도의 순서로 마무리 된다.

침례교회 예배순서는 특이하게도 교회소식을 제일 앞에 두었다. 예배순서의 앞부분은 회중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순서를 둔다. 그리고 예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교회소식의 순서가 회중의 응답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말씀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회중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는 책임부여의 순서를 강조한다면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침례교회 예배순서에서 추가되어야 할 예배의 요소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과 감사와 청원의 순서이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향하는 예배의 요소가 있을 때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다.

제 4 절 결론

지금까지 오늘날 개신교회의 예배현장을 예배의 유형별로 그리고 교단별로 살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예배의 유형과 각 교단마다 다양한 예배순

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전통과 시대적인 문화적 상황에 의해서 변형되고 발전된 것이다. 다양한 예배의 현장 속에서도 전통적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를 가진 예배와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전적 예배의 전통을 따르는 예배의 순서도 있었고, 현대적인 감각은 살리면서 예전적인 틀을 유지하려는 혼합된 예배와 이머징 예배 순서도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오전예배는 설교중심의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오후나 저녁예배는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린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의 도입부분에서 찬양을 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다. 한국교회의 성찬의 예배는 1년에 4회 정도 실시하는 추세이지만, 감리교, 장로교(통합), 그리스도교 등의 개신교에서는 성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찬을 포함한 예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배 순서는 예배의 다양한 유형과 각 교단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예배의 구조와 순서 속에서 예수님을 담아내려는 그리스도 중심성의 강조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한국 개신교 예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설교와 성만찬이라는 조화 있는 예배이기보다는 설교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인도자중심의 예배와 은사와 경험을 강조하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다.¹³¹⁾ 그리고 죄의 고백, 용서의 확신, 감사, 청원과 도고 등의 회중의 준비(설교이전)의 순서들이 많이 간소화되었다. 그런데 그 순서들이 간소화된 이유가 회중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진 예배순서가 될 수 없다. 회중의 준비(설교이전) 순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인지하게 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고백이다.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을 정확한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복음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다양한 현장 속에 다양한 예배가 공존하는 개신교회의 예배순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배순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라는 회중을 고려한 예배순서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는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드릴 수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중심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사적 흐름이 예배의 구조와 순서에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131) 정일용, *기독교 예배학 개론*, 288.

제 6 장

고신교단의 예배 순서와 예배순서 갱신방안

지금까지 예배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인 배경과 오늘날 예배의 현상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장로교 고신교단의 예배의 순서를 교단 헌법의 예배 모범과 고신교단 교회들을 통해 살펴보고 난 후, 본 논문의 최종 목적지인 예배순서 갱신방안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교단헌법에 따른 예배 모범

1. 장로교 고신교단 소개

고신교단은 하나로 출발한 한국장로교회가 일제의 강압에 따른 신사참배 문제와 이성주의 신학의 문제로 갈등하던 중,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른 주남선, 한상동 목사 등이 출옥 후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복음신학을 사수하기 위해 고려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다가 장로교 총회로부터 축출되고 난 후 세운 교단이다. 고신교단은 한국교회가 범한 신사참배의 죄를 자백하고 자숙하기 위해 3주간의 자숙기간을 보낸 후 1952년 10월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노회 발회를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총노회가 조직될 당시 경남 지역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타 지역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1956년에는 6개의 노회가 조직되었다. 1956년 9월20일 고신교단이 형성 조직되었다.¹³²⁾

고신교단의 진리운동은 단순히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신앙적 유산만이 아니라 개

132) 안성훈,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고신 교단의 존재 의의”, 2009년 목사고시논문(부산: 부산노회(고신), 2009), 21.

혁주의 신학의 확립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며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목표로 한 운동이다. 고신교단은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초 위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전수 해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따르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복음적 책임을 다 하는 교회이다. 고신교단은 스위스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생긴 개혁파 신앙노선에 있다. 개혁파 교회는 스위스·네덜란드·스코틀랜드·헝가리의 교회들과 독일·프랑스 등지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혁파, 칼빈파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공통분모는 갖지만 지향하는 신학유형에 따라 신념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정통신학, 근본주의의 신학유형 중에서 고신교단은 정통신학의 신학유형을 따른다. 고신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 개혁파 전통신학, 개혁주의 정통신학, 칼빈주의 등으로 일컬어진다.¹³³⁾

고신교단은 개혁주의 정통신학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 이 전통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신교단의 출범의 역사적 바탕이 된 신사참배거부운동, 교회재건운동, 참회운동, 진리운동 등 모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신행일치 운동이었다. 고신교단의 신앙의 특징은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기독교신앙이다. 성경과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바울, 어거스틴, 칼빈, 칼빈주의, 프린스톤신학과 평양신학으로 이어진 개혁주의 정통신학 전통을 따른다.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하고 강조한 신학적 주지들을 귀중하게 여긴다. 둘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실천하는 삶,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해야 한다는 신행일치를 지향한다. ‘일사각오’, ‘순교정신’,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신행일치의 정신을 강조한다. 셋째, 성령 충만한 체험적인 신앙과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갈망한다. 고신교단은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 전통을 물려받아, 광복 후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성령 충만과 심령부흥을 체험했다. 이러한 신앙의 특징으로 인해 고신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정통신앙과 생활의 순결,”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이라는 행동강령들이 표현되고 강조되어 왔다.¹³⁴⁾

133) 안성훈,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고신 교단의 존재 의의”, 26.

134) Ibid., 33-34.

2. 고신교단 예배모범

고신교단의 예배는 단순성을 선호한다. 성직자의 예복, 촛대, 제단구와 같은 장신구를 환영하지 않는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 참 예배는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의 필수요소들인 찬송, 기도, 성경읽기, 설교, 축도, 연보,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다. 예배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며, 미국의 대부흥운동 시기에 애창되었던 찬송만이 아니라 현대 작가들이 만든 복음 찬송도 부른다. 음악과 멜로디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며 문화적 표현임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신앙정신을 고양시키는 찬송가가 유익하며 찬송의 가사는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고백의 특징을 유지해야 한다.¹³⁵⁾ 교단헌법의 예배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¹³⁶⁾

교회의 예배의식은 개체교회의 권위로 작성하는 것이나 그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도(행6:4; 딤후2:1)

찬송(골3:16; 시9:11; 엡5:19)

성경봉독(행15:21; 눅4:16-17)

성경해석과 설교(딤후1:9; 행9:20; 10:42; 눅24:47; 딤후4:2)

세례(마28:19-20; 막16:15-16)

성찬(고전11:23-28)

금식과 감사(눅5:35; 빌4:6; 딤후2:1; 시50:14, 95:2)

성경문답(히5:12; 딤후3:14-17)

헌금(행11:27-30; 고전16:1-4; 갈2:10:6:6)

권징(히13:7; 살전5:12-13; 고전5:4-5; 딤후1:20; 5:12)

축복(고후13:13; 엡1:20)

3. 예배순서 해설 및 평가

교단헌법에 나온 예배순서는 말씀예배와 성찬예배의 2부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개교회의 권위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 따라 예배의 순서가 다를 수 있다. 교단헌법에서 보여주는 예배순서에서 기본적인 예배의 순서가 전통적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동일하다. 다른 예배순서와 다른 점은 예배의 각각의 요소에 성경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경의 권위로 예배의 요소가 만들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것

135) 최덕성, *전통과 신학*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6), 243.

13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출판국, 1992), 240.

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비교해본다면 회중의 준비는 기도와 찬송의 순서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성경해석과 설교까지이며, 세례의 순서가 있을 때에는 설교이후에 세례의 순서가 따라온다. 회중의 응답은 금식과 감사, 헌금이며 축도와 퇴장찬송은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고신교단 예배의 중심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 성경봉독, 성경해석과 설교, 성경문답과 권징의 순서는 고신교단의 예배순서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설교이후에 성경공부와 같은 성경문답의 순서가 있다. 그리고 권징은 말씀의 권위로 가르침대로 선을 도모하고 악을 벌하려고 한다. 권징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권징받는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배순서 안에 있는 것은 예배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고신교단의 예배에서 회중의 준비의 순서가 충분하지 못하다. 예배의 부름, 기원, 송영, 신앙고백, 교독문, 죄의 고백 등의 순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부분의 순서가 예배순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예배에 나아가기 위해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살피는 복음적인 예배순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과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회중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시켜야 한다. 회중의 준비의 순서와 회중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보충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순서를 갖게 될 것이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해볼 때 예찬은 기도와 찬송이다. 그리고 죄의 고백, 용서의 확신, 청원과 도고의 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감사의 순서는 설교이후에 봉헌의 순서로 나타난다. 가르침은 성경봉독과 성경해석과 설교이다. 설교이후에 성찬의 순서를 가지고, 책임부여와 축도는 권징과 축복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예배순서의 처음의 시작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찬으로서 예배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하고 찬양할 때 비로소 예배하는 자신의

최악된 모습을 깨닫게 된다. 그 이후로 죄의 고백,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되고, 감사, 청원과 도교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고신교단의 예배순서에 예배의 순서가 충분치 못하다. 그리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의 순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르침에 많은 순서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로 오는 책임부여의 부분에는 회중들이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말씀의 가르침이 예배 순서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말씀 이전과 이후의 각 요소들도 그 의미를 살릴 때에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고신교단교회의 예배순서

1. 가야성안교회(부산)

가. 가야성안교회 소개 및 예배순서

성안교회는 1972년 9월 2일 부산진구 가야 2동 406-28번지 소재 주은성 전도사 사저에서 김종삼 목사 인도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윤장운牧사는 1984년 12월 31일 성안교회에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현재 성안교회의 규모는 16명의 교역자, 19명의 장로, 3명의 은퇴장로, 51명의 장립집사, 53명의 권사, 901명의 서리집사가 봉사하며 섬기고 있다. 등록교인은 총 3500명 정도이다. 성안교회는 현재 장년 약 2200명 출석하는 교회이다.¹³⁷⁾

성안교회에는 4대 비전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교회,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교회이다. 윤장운 목사는 이 비전을 끊임없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왔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의 성장을 경험하였고,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간증들이 있으며,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계속해서 주는 교회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¹³⁸⁾ 가야성안교회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¹³⁹⁾

137) 이성구, “셀 교회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성안교회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41-42.

138) 이성구, “셀 교회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53.

139) 가야성안교회 주보(2012년 10월1일 주일 낮 예배순서)에 관해서는 이 논문 140 페이지의 부록3 가야성안교회주보를 참조하시오.

예배의 부름
 기원
 주악
 신앙고백
 찬송
 교독문화답
 기도
 찬송
 성경말씀
 헌금
 봉헌사
 봉헌송
 기도
 찬양
 새가족환영
 말씀선포
 찬송
 축복의선포
 축도

나. 예배순서 해설 및 평가

가야성안교회의 예배순서는 말씀예배의 1부 순서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비교해볼 때 말씀예배의 1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회중의 준비는 예배의 부름에서 성경말씀 앞의 찬송의 순서까지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말씀과 말씀선포의 순서이고, 회중의 응답은 성경봉독과 말씀선포 사이에 있다. 헌금, 봉헌사, 봉헌송, 기도, 그리고 찬양의 순서이다. 축도와 퇴장찬송은 축복의 선포와 축도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전통적인 예전에 나타나는 회중의 응답의 순서는 말씀 이후의 순서로 나타난다. 하지만 가야성안교회의 예배순서에는 회중의 응답이 성경봉독과 말씀선포의 사이에 있다. 또한 새가족환영의 순서 역시 말씀선포 바로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침례교회에서는 예배순서의 마지막부분에 초청이나 새가족환영의 순서를 가지지만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새가족환영의 순서를 갖지 않는다. 회중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한다면 성경봉독과 설교로 이어지는 순서는 말씀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헌금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예전에서는 성경봉독 이후나 설교이후의 순서에서 나타난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해본다면 예찬은 교독문화답까지

의 순서이다.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의 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청원과 도고는 기도의 순서가 있고, 감사의 순서는 성경봉독과 말씀선포 사이에 봉헌의 순서를 갖는다. 책임부여의 순서는 나타나지 않고 축도의 순서가 축복의 선포와 축도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성품을 인지하는 찬양이후에 예배하는 자들의 반응이 나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이다.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의 순서가 따라와야 한다. 성안교회예배순서에서 추가되어야 할 예배순서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의 순서이다. 그리고 봉헌과 새가족환영의 순서가 변경되어야 한다. 감사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확신 이후에 봉헌의 순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니면 회중들의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 이후의 순서에 갖도록 해야 한다. 새가족환영식은 예배의 중심을 깨뜨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흐르는 예배속에서 더군다나 성경봉독과 말씀의 선포사이에 새가족환영식을 갖게 된다면 복음적인 예배의 유기성이 흐트러지고 만다. 새가족환영식은 예배순서의 마지막 부분에 책임부여의 순서에 올 때에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

2. 김해중앙교회

가. 김해중앙교회 소개 및 예배순서

김해중앙교회는 1951년 개혁주의 순교 신앙 노선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김해읍 서상동 셋집을 빌려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5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동명 목사를 담임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김해중앙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상을 이루어나가는 교회이다. 다섯 가지로 교회를 소개한다.¹⁴⁰⁾

첫째, 행복한 성도가 많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더욱 더 행복한 성도를 창조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이들이 우리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존 성도들과 다양한 신앙교제를 나

140) “김해중앙교회: 소개 및 비전,” www.gjp.or.kr/sub/sub01_02.php (accessed October 15, 2012).

누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행복해하는 교회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교회 생활을 통해 영혼이 풍성하고 잘되는 교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범사가 잘되는 교회이며, 치료의 하나님을 통해 육체가 강건함을 얻는 교회입니다.

셋째, 사랑이 풍성한 목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시는 목장에서는 영적인 돌봄과 치유, 그리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목장과 기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목장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넷째,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교회보다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교회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에 옮기고, 삶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다섯째,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 땅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올해 또 한 번의 필리핀 선교사 파송을 통해 선교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한마음이 됨으로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입니다.

김해중앙교회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¹⁴¹⁾

[찬양과 경배]

경배와 찬양 : 예수우리왕이여 / 우리에게겐 소원이 하나있네

예배기원

사도신경

아멘송

영광찬송

예배기도

[말씀과 응답]

성경봉독

영광찬양

광고

회중찬양

141) 김해중앙교회 주보(2012년 10월21일 주일 낮 예배순서)에 관해서는 이 논문 141 페이지의 부록4 김해중앙교회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참회 및 소원기도
설교

[감사와 봉헌]
봉헌기도
찬송
헌금

[환영]
새가족소개

[은혜와 축복]
사회 :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회중 :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
하노라
사회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중 :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도

나. 예배순서 해설 및 평가

김해중앙교회의 예배순서는 찬양과 경배, 말씀과 응답, 감사와 봉헌, 환영, 은혜와 축복이라는 5중 구조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예배순서의 앞부분에 찬양과 경배가 예찬을 대신하고 있다. 전통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예배가 혼합된 형태이다. 김해중앙교회의 예배순서 역시 말씀예배의 1부 구조로 되어있다. 성찬예배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기독교 2부 예배의 구조와 동일하다.

회중의 준비는 경배와 찬양부터 예배기도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설교이다. 회중의 응답은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있으며, 설교 후에 봉헌기도, 찬송과 헌금의 순서이다. 축도와 퇴장찬송은 은혜와 축복의 순서에 해당된다.

회중의 응답의 순서는 보통 설교이후에 순서로 온다. 하지만 김해중앙교회 예배의 순서는 회중의 응답의 순서가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있다. 그리고 참회와 소원기도의 순서는 회중의 준비의 순서에 들어와야 한다. 회중들의 준비 이후에 말씀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전통적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의 흐름과 맞는 것이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한다면 예찬은 경배와 찬송부터 영광찬송까지의 순서이다. 죄의 고백은 설교 바로 전에 있는 참회의 순서이다. 용서의

확신은 나타나지 않고, 감사는 설교 이후에 봉헌 순서에 있으며, 청원과 도고는 소원 기도의 순서에 나타난다. 책임부여와 축도는 새가족소개와 은혜와 축복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요소들은 김해중앙교회 예배순서 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순서의 유기적인 흐름에는 따르지 않는다. 죄의 고백과 청원과 도고가 설교 바로 직전에 오는 것은 유기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 참회 및 소원기도가 영광송 뒤에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있는 영광찬양과 회중찬양이 회중의 응답의 측면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설교 이후에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광고 부분 역시 책임부여의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회중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할 것이다.

3. 분당샘물교회

가. 분당샘물교회 소개 및 예배순서

샘물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삼기 위해 1998년 10월25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출범한 교회이다. 샘물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삼는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세우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교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민족과 세계를 회복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의 교회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¹⁴²⁾

샘물교회는 가정교회를 지향한다. 가정교회는 ‘교회안의 작은 교회’ 즉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샘물교회는 소그룹 형태의 가정교회를 통해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제자로 삼는 일을 교회의 본질로 생각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평신도는 교회의 모든 봉사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한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을 목장이라 하고 목장의 지도자를 목자라고 한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목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인이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면 샘물교회의 교인이라 하기에 부족하다. 각각의 목장이 모여 샘물교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일예배를 목장연합예배라고 한다. 샘물교회는 목장 안에서 전도와 양육, 치유와 영적회복이 일어나고 작은 단위인 목장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

142) “샘물교회: 소개,” <http://www.smcc.or.kr/church/sub01.asp> (accessed October 24, 2012).

서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간다.¹⁴³⁾ 분당샘물교회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¹⁴⁴⁾

예배로의 부름
 묵상기도
 입례송
 신앙고백
 찬양
 합심기도
 대표기도
 샘물소식
 유아세례
 찬양
 성경봉독
 말씀
 헌신찬송
 헌금
 축도
 성도의교제
 헌신

나. 예배순서 해설 및 평가

분당샘물교회의 예배순서는 말씀예배의 1부 구조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비교해볼 때 회중의 준비는 예배의 부름에서 성경봉독직전의 찬양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말씀의 순서이고, 회중의 응답은 헌신찬양, 헌금의 순서이다. 축도와 퇴장찬송은 축도와 헌신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할 때 예찬은 예배의 부름부터 찬양까지 순서이다.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은 순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감사는 설교 이후의 헌금의 순서이고, 청원과 도고는 합심기도와 대표기도의 순서이다. 가르침은 성경봉독과 말씀의 순서이고, 책임부여와 축도는 헌신찬송, 축도, 성도의 교제, 헌신의 순서이다.

143) Ibid.

144) 분당샘물교회 주보(2012년 10월21일 주일 낮 예배순서)에 관해서는 이 논문 142 페이지의 부록5 분당샘물교회주보를 참조하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하는 예배의 순서가 있다면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이 따라와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와야 하고, 이것이 청원과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샘물교회의 예배순서에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의 순서가 추가되어야 한다. 말씀 이후에 나오는 찬송은 말씀에 화답하는 응답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그 응답이 헌신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헌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응답할 수 있다. 헌신의 찬송 대신 감사와 응답의 찬송으로 바뀌어야 하고, 헌신의 찬송을 넣는다면 헌금 이후에 책임부여의 부분에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4. 향상교회

가. 향상교회 소개 및 예배순서

향상교회는 서울의 잠실중앙교회가 분립 개척한 교회이다. 2000년 10월15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여 현재 상하동으로 2006년 11월에 교회를 옮겨 계속 성장하고 있다. 현재 20명의 교역자들이 담임목사인 정주채 목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 향상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미 계신 교회상을 바로 찾는 것이며 또한 모든 타락과 침체로부터 교회를 갱신하고 지키는 표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곧 교회가 받는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향상교회의 모토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이다. 성경적인 바른 신앙고백을 가진 성도가 훌륭한 예배자일 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충성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향상교회의 목표는 신약교회의 회복이다. 신약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도의 교제가 혈육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고, 삶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교회지도자들은 성도들을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으며, 성도들은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웠다. 이러한 신약의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목표로 삼는다. 향상교회의 사역의 초점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있다. 향상교회의 사명선언문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따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일터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¹⁴⁵⁾ 향상교회의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¹⁴⁶⁾

인사와 광고
 입례찬송
 참회의기도
 찬송
 대표기도
 봉헌특송
 봉헌
 성경봉독
 찬양
 설교
 찬송
 축도
 사명선언

나. 예배순서 해설 및 평가

향상교회의 예배순서는 말씀예배의 1부 구조로 되어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의 2부의 구조와 비교해 본다면 회중의 준비는 입례찬송부터 대표기도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순서이다. 회중들의 응답은 설교 이후에 찬양의 순서로 연결된다. 축도와 퇴장찬송은 축도와 사명선언으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복음적인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해 본다면 예찬은 입례찬송의 순서이다. 죄의 고백은 참회의 기도의 순서이다. 용서의 확신은 찬송의 순서로 화답하고 청원과 도고는 대표기도의 순서이다. 감사는 봉헌특송과 봉헌의 순서로 이어진다. 가르침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순서이고 책임부여와 축도는 축도와 사명선언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보통 회중의 응답의 순서에 인사와 광고의 순서를 가지지만 향상교회의 예배순서에는 순서의 제일 앞에 인사와 광고의 순서를 가진다. 하지만 인사와 광고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 회중들에게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므로 실천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예배순서의 제일 앞에 인사와 광고의 순서가 오면 회중들을 향하여서는 그 분위기가 친근하고,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

145) “향상교회: 교회소개,” <http://www.hyangsang.com/?xyz=pc> (accessed November 2, 2012).

146) 향상교회 주보(2012년 10월 7일 주일 낮 예배순서)에 관해서는 이 논문 143페이지의 부록6 향상교회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자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복음적인 예배순서의 요소에서는 회중의 준비에 예찬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광고와 인사의 순서를 축도 이전에 순서에 넣는 것이 복음적인 순서에 적절할 것이다. 책임부여의 예배요소에 사명선언문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줌으로 예배에서 세상으로 나감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향상교회의 예배순서는 성찬예배를 제외하고는 전통적 기독교 2부 예배의 구조와 동일하다. 회중의 준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회중의 응답, 축도와 퇴장찬송의 순서를 잘 따르고 있다.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지닌 복음적 예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흐름 역시 잘 따르고 있다. 그래서 향상교회가 성찬예배의 균형만 유지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21세기 고신교단과 한국교회의 예배순서 갱신방안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각 교단과 고신교단을 살펴보았다. 유형에 따른 예배현장을 살펴보면 현대적 예배(contemporary worship)형식이 교회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traditional worship)의 형식을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예배의 선택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현재의 전통적 예배 형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대적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현대적 예배 형식에 전통적 예배 형식 모두 다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주일 낮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형식으로 드리고 주일 오후는 보다 현대적인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 교회가 대다수이다.¹⁴⁷⁾

고신교단을 포함한 한국교회의 예배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현대 예배와 전통 예배가 합쳐진 혼합된 예배(Blended Worship)이다.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이 21세기의 고신교단과 한국교회의 예배를 위해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예배 형식이다. 예배신학자인 로버트 웨버(Robert Webber)는 이러한 혼합된 예배를

147) 주승중, 유재원,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91.

“Blended Worship”이라고 부른다. 그는 혼합된 예배를 성경과 예배의 역사에 근거하면서도 현대적 적절성을 가미한 새로운 예배형식이라고 했다. 전통적인 예배는 생명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현대적 예배는 예배의 내용을 담는 구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는 예전적인 구조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성을 가져오는 예배가 혼합된 예배의 유형이다.¹⁴⁸⁾

혼합 형식 예배의 특징은 첫째, 예배의 사중구조(예배로 나아감,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 파송의 예전)를 존중한다. 둘째, 잔치적이고, 축제적인 성격을 가진다. 셋째, 매우 폭 넓고 다양한 음악의 내용과 형식을 사용한다. 넷째, 예배에 있어서 예술을 재해석해서 적절하게 사용한다.¹⁴⁹⁾ 이러한 예배야 말로 전통적이냐 현대적이냐는 다름 없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예배는 미국의 19세기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 집회형식의 예배가 토착화되어왔다. 그 집회의 기본적인 틀은 기도와 찬양, 복음전도설교, 사람들을 복음에 응답하도록 초청하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형태의 예배는 초대 교회의 예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의 예배의 형식이었다. 초대교회의 예배 예전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형식인 말씀예전과 성만찬 예전으로 이루어진 2중 구조로 2세기까지 확고하게 지켜진 예배였다.¹⁵⁰⁾ 그 후로 교회는 예배로 나아감과 파송의 순서를 가미해서 예배의 사중구조(fourfold pattern)를 가지게 되었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동시에 현대적인 영성을 가미한 통합적인 예배로 예배순서가 갱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고신교단과 한국교회의 예배의 순서가 다음과 같이 변해야 한다.

1. 무질서한 예배에서 질서 있는 예배로

이미 앞서 3장과 4장에서 살펴본바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와 로버트 레이번의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진 예배순서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의 기초의 틀을 마련하였다.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의 논리적인 예배순서의 흐름은 회중의 준비, 하

148) Paul A. Basden, *Exploring the Worship Spectrum*, 180.

149) Robert Webber, “Convergence Worship,” in *The Renewal of Sunday Worship 3*, ed. Robert Webber (Nashville: Star Song, 1993), 122-124.

150) 주승중, 유재원,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93.

나님의 하시는 말씀, 회중의 응답, 성찬예배, 축도, 퇴장찬송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로버트 레이번은 예찬, 죄의 고백, 죄의 용서와 확신, 감사, 청원과 도고, 가르침, 성찬, 책임부여와 축도의 순서로 보았다. 이러한 예배의 논리적인 순서를 예배로 나아가감,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 파송의 예전의 사증구조로도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예배의 순서가 아무런 의미 없이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예배순서는 신학적인 논리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예를 들면 찬양대 찬양, 신앙고백, 봉헌 등에 관한 예배순서의 위치이다.

먼저 찬양대 찬양은 일반적으로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왜 이 위치에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목회자들이나 회중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따르던 예배순서이며, 주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순서를 따르기 때문이다. 조금 더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회중들의 마음을 감화시킴으로 말씀을 잘 듣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음악가였고, 음악의 힘을 알았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찬양대의 찬양이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오기를 원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오는 찬양대 찬양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목적보다 사람에게 감동주고 칭찬받으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것에 있다. 찬양대의 찬양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한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객들에게 뮤지션들은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감동받은 관객들이 연주자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듯이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회중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찬양대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그리고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사회자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준 찬양대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멘트하면서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이것은 말씀에 집중하려는 루터가 원하는 찬양대의 찬양의 순서의 논리적인 흐름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성경봉독 이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할 경우 회중들의 머릿속에 방금 읽었던 성경말씀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순서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회중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경봉독 이전의 순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부분인 설교 후에 오는 것이 예배의 순서의 흐름에 자연스럽다. 칼빈은 루터와 달리 찬양대의 찬양의 순서가 성경봉독 이전에 오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능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신앙고백과 봉헌은 설교 후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흐름상 논리적이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이들을 설교보다 앞에 나오고 있다. 신앙고백은 말씀 가운데서 공동체에 입한 하나님께 대한 회중의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고백이 설교 이후에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바람직한 것이다. 봉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순서 역시 회중의 응답이므로 설교 이후에 오는 것이 논리적이다. 물론 봉헌의 순서를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 앞부분에 넣기도 하지만, 이러한 신학적인 강조점을 생각하지 않은 채 회중들이 설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설교 뒤의 예배순서들을 설교 앞의 순서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제 성경적, 역사적으로 맞는 예배의 형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합당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무질서한 예배에서 논리적인 근거가 합당한 질서 있는 예배순서로 나아가야 한다.

2. 중구난방식의 예배에서 통일성을 갖춘 예배로

예배는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성경봉독, 설교, 찬송 그리고 기도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예배의 각 요소마다 각기 다른 초점과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예배는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예배의 초점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회중들로 하여금 오늘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예배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는 일찍부터 교회력을 발전시켜서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1년을 몇 개의 계절로 나누고 주일마다 해당 주제를 강조하는 예배를 드려왔다. 대림절(Advent)은 초림의 예수를 기념하고 재림의 예수를 대망하는 절기이며, 주현절(Epiphany)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절기이다. 사순절(Lent)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사역을 기념하되 특히 공생애 마지막 주간에 강조점을 두고 지키는 절기이고, 부활절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기리는 절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강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세상을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다.¹⁵¹⁾ 이러한 교회력 위에서 성경 본문과 설교, 찬송 그리고 기도 등

이 총체적으로 함께 맞아 들어갈 때 하나의 예배는 하나의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할 수 있으며 회중들은 그 날의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회력의 중심이 예수그리스도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만으로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교회가 교회력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목회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이도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¹⁵²⁾

3. 인간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미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 예수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재진술(retell)되어야 하며 재연(react)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예배의 중심과는 달리 사람에게 무게 중심을 두는 찬송을 우리는 예배시간에 많이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찬송가 317장과 318장의 찬송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서 빨리 주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찬송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람이기 하나님이 아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찬양을 부르는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찬송가에는 미국의 19세기 부흥운동에 회심을 촉구하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찬송가가 많이 들어와 있다. 예배에서의 찬송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분이 하신 일을 칭송하는 찬송을 불러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적절한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찬송들이 예배에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것이며, 그 내용은 신앙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기도는 인간의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의 인격과 구원

151) 김소영, *현대예배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190-204.

152) 김소영, *현대예배학개론*, 420-421.

의 업적을 칭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는 것이 좋다.¹⁵³⁾

하지만 한국교회의 기도는 어떠한가? 기도의 첫마디에 감사 한번 하고는 곧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기도의 지향점이 하나님 경배보다는 인간의 필요에 가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회중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인간중심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만다.

교회소식을 알리는 순서에는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회의 사역 혹은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한 책임성보다도 회중들의 경조사에 더욱 민감하다. 왜냐하면 앉아 있는 회중들에게 예배의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배는 부드럽고 친교적인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게 한다. 이러한 예배를 계속 드릴 때에는 회중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는 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필요로 가득 채워지게 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목사와의 만남 내지 주의 백성들끼리의 만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게 된다.

4. 회중의 수동적인 참여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예배는 회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 회중은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들을 보면 아쉽게도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의 경향이 짙다. 가령 예배가 1시간 동안 진행된다면 이 중에서 설교가 30분 이상을 차지한다. 그 30분 동안 회중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다. 기도시간은 어떠한가? 회중의 대표가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후 찬양대의 기도송까지 포함하면 짧아도 5분 남짓한 시간이 흘러간다. 이 기도시간 동안 회중은 여전히 침묵하며 자리에 앉아 있다. 게다가 성경봉독 후 찬양대의 찬양은 5분 이상 차지하는데 이때도 역시 회중은 앉아서 듣기만 한다. 회중은 앉아서 듣고, 감상하지만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회중들이 예배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순서는 회중찬송, 교독문,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국한되며, 이는 전체 예배 1시간에 10분도 되지 않는

153) 김소영, *현대예배학개론*, 423.

다. 나머지 50분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에 회중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교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내용을 따라잡으면서 듣도록 하며 청중들의 반응을 살핀다. 그리고 설교 시간을 조금 더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표기도 역시 한 사람이 오랫동안 길게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때 회중은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집중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기도 인도자가 미리 준비한 기도제목을 회중에게 제시하고 회중 전체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식도 회중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성경봉독도 예배인도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사람이 읽도록 하면 예배의 참여가 높아진다. 찬양대의 찬양도 독자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인도하여 함께 부르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회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순서의 요소마다 회중이 반응하는 순서를 많이 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배 중에 앉고 일어서는 것, 일어서서 그리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 등 하나님께 반응하는 의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5. 말씀예배의 1부 구조에서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로

성찬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당부하셨다(눅22:19; 고전 11:24). 예수님의 당부를 들은 제자들은 떡을 떼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축하였다.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여러 구절들이 증언하고 있다(행2:42; 20:7).

하지만 중세기 이후 쾰빙글리와 몇몇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성찬식이 없는 예배는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 성찬을 집행 할 목사가 없었고, 복음 전도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한국교회는 성찬예배가 없는 예배순서를 전수받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성찬예배가 없는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로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시대부터 유지되었던 예배의 2중 구조인 말씀과 성찬 중에서 성찬이 빠진 말씀예배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주는 폐해로 한국교회는 성경과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세계의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식대로 드리는 예배로 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시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헌신, 봉사, 효도 등의 특정한 주제를 설교하는 일이 자주 있게 되어, 예배의 복음적인 흐름과 거리가 먼 윤리적인 설교나, 목사의 의도에 따라 교리공부나 성경공부의 시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성찬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예배라고 할 때 단지 장례의식과 같은 어두운 분위기를 떠올린다. 성찬예배가 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다. 성찬예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믿게 될 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현재에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잔치의 주인으로서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는 그 식탁교제에 참여하여 현재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성찬예배는 더 나아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만찬을 상징한다. 우리는 성찬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최후로 승리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고대한다. 이처럼 성찬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수난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이르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제 4 절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 모델

고신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순서로 갱신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배순서의 모델과 또 다른 하나는 중형이상의 규모의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된 예배순서의 모델이다.

1. 소규모에 적합한 모델

소규모의 교회 모임은 중형 이상의 규모에서 할 수 없는 공동체성을 더욱 강조

할 수 있다.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강조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순서가 되어야 한다. 소규모에 적합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순서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회중의 준비(Preparation of Congregation)

경배와 찬양(Praise and Worship)

참회기도(Prayer of Confession)

찬양

도고기도(Prayers of Intercession)

성경봉독

설교

회중의 응답(찬양, 봉헌)

성찬(Holy Communion)

책임부여(파송의 말씀, 찬양, 교회소식, 신앙고백, 주기도문)

축도

가. 예배순서 해설

회중의 준비는 예배시작 전에 조용하게 각자 준비의 시간을 갖는다. 이 준비시간에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도 있다. 찬양과 경배는 소규모의 모임이기 때문에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자발적인 분위기도 유도할 수 있다. 이 순서에 찬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나의 체험을 강조하는 복음성가나 이와 유사한 종류의 음악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된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 도고기도는 기도제목을 놓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목사나 예배인도자가 기도제목을 이야기하면 회중들은 한사람씩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전 회중이 소리를 내어 동시에 기도할 수 있다. 성경봉독은 그 날 설교본문을 낭독하고 회중들은 “아멘”이나 “할렐루야 찬송”이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같은 표현이나 그 밖의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말로 성경 봉독에 대한 응답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 분의 이야기를 재진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회중들에게 이해시키고 적용하는 설교여야 한다. 책 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격려와 도움을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설교를 들은 후에 인격적인 책임을 느껴야 하며 그것이 세상에서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각자가 일하는 세상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 성찬은 성찬상 주위에 의자를 빙 둘러 배치한 후에 각 회중이 성찬상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을 수 있고, 성찬을 옆 사람에게 차례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행할 수 있다. 여기서 성찬 집례자는 감사 기도와 성령의 기원과 제정의 말씀은 빼놓아서 안 된다. 성찬의 시작이나 끝날 때 화평의 입맞춤을 해도 좋을 것이며 시작 때 수르숨 꼬르다를 해도 좋을 것이며 상투스 를 부르고 즐거운 부활의 찬송과 축도로 성찬식을 마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축도는 축도자가 아론의 축도와 신약에서 바울의 축도 같은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축도할 수 있다. 이런 축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신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예배의 결미로 적합하다.

나. 예배순서 평가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와 비교해볼 때, 위의 소규모 집단을 위한 예배순서는 말씀예배와 성찬예배의 2부 구조로 되어 있다. 회중의 준비는 회중의 준비부터 도고기도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설교이다. 회중의 응답과 성찬의 순서가 동일하게 뒤따라온다. 축도와 퇴장찬송은 책임부여와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전통적 기독교 예배의 2부 구조에 잘 따른 간단한 예배의 요소를 가진 예배순서이다.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할 때 예찬은 회중의 준비와 찬양과 경배이다.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신은 참회기도와 찬양의 순서로 이어진다. 청원과 도고는 도고기도의 순서로 이어지고 가르침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순서이다. 감사는 설교 이후에 찬양과 봉헌의 순서이고, 성찬 이후에 나오는 책임부여와 축도는 파송의 말씀, 찬양, 교회소식, 신앙고백, 주기도문 등을 할 수 있고 축도로 예배

가 마무리 된다. 소규모에 적합한 새로운 예배순서의 모델은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복음적인 예배순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2. 중형 규모 이상의 모임에 적합한 모델

수백 명 이상의 중형 규모 이상의 모임에서는 회중석과 기타 기구들을 마음대로 쉽게 옮길 수 없는 고정된 예배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소규모 모임의 친밀한 연대감이 있을 수 없지만 회중들이 이 예배순서에 익숙하게 된다면 자발적인 마음과 열정으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중형규모 이상의 적합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순서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 Act of Entrance

모임(the gathering)

예배의 시작(opening acts of worship)

입장찬송

인사

임재기도(기원기도)

찬양(song of praise)

죄의 고백과 용서

시작기도

[말씀예배] - Service of the Word

성경봉독

설교

말씀의 응답

도고기도(Prayers of Intercession)

목회기도

봉헌

[감사의 예배] (성찬예배) - The Service of Thanksgiving

그가 가지사(He Took)

그가 축사하시고(He Blessed)

그가 떴사(He Broke)

그가 나눠 주심(He gave)

[세상으로 나아감] - The Acts of Dismissal

교회소식

축도

퇴장찬송

파송의 말씀

가. 예배순서 해설

모임의 순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형식 없이 찬양도 하고, 악기연주도 한다.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도 한다. 모임의 순서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조용하게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의 시작 순서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시작의 분위기는 무겁거나 교훈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때의 분위기는 말씀으로 향하는 기쁨의 여행이다. 입장찬송은 계속되는 기쁨의 분위기로 예배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 많은 연주자에 의해 찬송가가 반주된다. 인사의 순서는 회중들과의 환영의 인사가 아니다. 성경적인 인사이고 환영의 간단한 말씀이다. 예를 들면 사회자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¹⁵⁴⁾하고 환영의 인사를 한다. 시작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에 임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이다. 그 다음의 찬양의 순서는 찬미의 찬양이다.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고백적인 복음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는 찬양이다. 그리고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순서를 가진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한 회중들은 자신의 죄악성을 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시작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의 예배를 닫는다. 그리고 말씀의 예배로 옮겨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의 예배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해야 한다.

154) Robert E. Webber, *Blended Worship*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4), 174.

말씀예배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재진술(retell)되어야 한다. 이 예배의 기본적인 구조는 선포와 응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들에게 선포되고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말씀의 응답의 순서에서는 신앙고백, 응답의 찬양, 결단의 촉구, 회심자들에 대한 초청 등 다양한 응답들을 사용할 수 있다. 도고기도는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예배를 집례 하는 목사가 기도가 필요한 자를 일으켜 세워 그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도고기도 후 목사가 회중들을 위해 목회적인 기도를 한다. 그리고 봉헌의 순서를 가진다.

성찬예배는 근본적으로 말씀예배에 대한 응답이다. 말씀예배와 함께 예배의 중심적 활동이다.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성찬예배를 드렸다. 유칼리스트(Eucharist)라는 의미는 감사(Thanksgiving)를 의미한다. 초대교회교인들은 그것을 “Great Thanksgiving”이라고 불렀다.¹⁵⁵⁾ 오늘날 예배를 갱신하는 많은 교회들은 매주 성찬예배를 실행하려고 한다. 성찬에 대한 순서는 “그가 가지사(He Took), 그가 축사하시고(He Blessed), 그가 떼사(He Broke), 그가 나눠 주심(He gave)”이다. “그가 가지사”의 순서는 떡과 포도주를 성찬상으로 가져와 준비하고, “그가 축사하시고”는 감사의 기도를 한다. “그가 떼사”는 제정말씀을 회중들에게 들려준다. “그가 나눠주심”은 회중들에게 분배한다.

세상으로 나아감의 순서는 공적예배를 닫는 것을 의미한다. 목사는 회중들이 예배 이후에 회중들이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다. 여기에 포함된 순서는 교회소식이다. 교회소식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되새긴다. 축도는 목사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축복한다. 입장찬송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사인이라면 퇴장찬송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인이다. 예배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파송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배를 닫고 사람들을 예배의 장소에서 내보낸다. 그에 대한 예로 다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알렐루야! 알렐루야!”¹⁵⁶⁾ 외친 후에 회중들은 하나님께 박수를 침으로 해산한다.

155) Robert E. Webber, *Blended Worship*, 177.

156) Robert E. Webber, *Blended Worship*, 180.

나. 예배순서의 평가

전통적 기독교 예배 2부의 구조와 비교할 때 중형 이상의 규모에 적합한 새로운 예배순서모델은 말씀과 성찬예배의 2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2부 예배의 구조에서 파생된 4중 구조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회중의 준비는 모임에서 시작기도까지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순서이다. 회중의 응답은 말씀의 응답과 봉헌기도까지의 순서이다. 성찬예배는 감사의 예배이다. 축도와 퇴장찬송은 교회소식으로부터 파송의 말씀까지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중형이상의 규모에 적합한 새로운 예배순서의 모델은 전통적 기독교의 예배의 2부 구조와 동일하다.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와 비교할 때 예찬은 모임에서 찬양까지의 순서이다. 죄의 고백은 죄의 용서와 고백의 순서이다. 감사는 회중의 응답부분에 위치하고 도고와 청원역시 회중의 응답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가르침은 성경봉독과 설교의 순서이다. 성찬은 감사의 예배의 순서이고, 책임부여와 축도는 교회소식에서 파송의 말씀까지의 순서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중형이상의 규모에 적합한 새로운 예배순서의 모델은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복음적 예배순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예배순서의 흐름 역시 복음적인 순서로 흘러가고 있다.

제 5 절 결론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교신교단의 헌법에 나타난 예배순서와 교신교단 교회의 예배순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1세기에 교신교단과 한국교회의 예배가 갱신되어야 예배순서의 요소와 함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갱신된 예배순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예배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 예배라는 공통점은 변화될 수 없다. 그 공통점은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재연해야 한다는 공통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예배순서의 각 요소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은 유기적인 관계와 복음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예배의 순서들이 인간의 필요에 지나치게 집중되

어 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민감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떠한 예배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예배의 본질인 그리스도 중심성을 유지할 때 예배자는 비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 과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며,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 개신교회의 예배순서를 갱신하기 위해 예배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예배의 기원인 구약과 신약의 예배, 고대, 중세, 현대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예배에서 신학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의 다양한 예배의 현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예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지만 오늘날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인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비논리적인 예배의 순서와 요소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 모여든 회중 위주의 인간 중심성과 성찬예배가 빠진 1부 구조의 말씀 위주의 예배이다. 이러한 예배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크게 벗어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신교단과 한국교회는 예배가 논리적이고 복음적인 순서를 따르고,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진 예배순서로 회복해야 한다. 예배의 각 요소들과 흘러가는 순서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순서가 갱신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모색을 위해 제언으로 이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제 1 절 논문의 요약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순서에 대해서 논의한 이유는 오늘날 예배순서의 무질서함과 예배순서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배의 현장은 회중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예배순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예배순서의 갱신을 위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를 논의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예배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와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배를 살펴본 결과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추가해서 본 연구자는 계시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통해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재진술(retell) 되고, 재연(react)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 회중들과의 연합, 성령과의 연합이 일어나며, 현재의 경험이 강조된다.

제3장에서는 예배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예배의 기원을 찾아서 구약의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예배, 초기기독교예배, 고대, 중세예배, 종교개혁의 예배 그리고 현대개신교의 예배 등의 예배의 역사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예배가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되었지만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의 큰 틀 안에서 다양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는 역사적으로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를 가진 예배순서이다.

제4장에는 예배의 신학적 원리를 통한 예배순서를 살펴보았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재연하고, 그리스도 사건 때문에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신학적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가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예배순서로는 회중의 준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회중의 응답, 성찬 그리고 축도와 퇴장찬송으로 되어있다. 브라이언 채플은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예배 예전에 연속성을 가진 복음적 예배순서를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예배의 구조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창조, 성육신, 죽음, 부활, 재림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창조, 타락, 구속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예배순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제5장에는 현대 개신교의 예배현장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현장 속에서 어떠한 예배순서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국 개신교의 각 교단별 예배순서와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현대 개신교의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순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는 성찬예배가 빠진 말씀예배 위주의 1부 예배를 드렸다.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순서의 결과 그 유형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예배의 순서가 결정되었다. 예전적, 말씀 중심적, 구도자적, 찬양과 경배 등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 예배의 유형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예배에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유형의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예배의 본질적인 원리 아래에서 다양한 예배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떠오르는 블렌디드 예배(blended worship)와 이머징 예배(emerging worship)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현대적인 영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예전적인 흐름과 요소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와 전통적인 예배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예배의 본질적인 원리 아래 있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는 고신교단의 예배현장과 예배갱신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는 고신교단의 헌법에 나타난 예배순서를 분석하고 고신교단의 교회들의 예배순서들을 분석하였다. 고신교단 헌법에 제시하는 예배순서는 성찬이 포함된 예배의 2부 구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교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예배순서는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교단헌법의 예배순서에 틀을 두고 있지만 예배순서와 요소들이 교회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성찬예배가 빠진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5장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예배현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설교 이전과 설교 이후의 순서들이 짧게 간소화되었고, 설교 뒤 부분에 오는 순서들을 설교 앞 부분에 둬서 설교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도록 했다. 이것은 곧 설교의 순서가 예배에서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설교 위주의 예배의 문제점을 가지고 본 연구자는 미래의 변화되어야 할 고신교단과 한국교회의 예배순서 갱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에서 혹은 중형

이상 되는 규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순서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발전적 모색과 연구과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통한 예배순서”라는 본 논문은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한 예배순서 연구였다. 한국교회는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주일오후예배, 수요일기도회,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주중에 다양한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는 이것 또한 “예배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신앙이 깊은 신자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모임은 그 모임이 주중에 있다하더라도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중에 이루어지는 예배모임 역시 회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모임들은 주일예배의 예배순서와 그 요소를 포함하는 말씀위주의 1부 예배의 순서와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일예배 외에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모임의 성격이 기도모임이라고 한다면 찬양과 말씀시간을 줄이고 회중들이 충분히 기도하도록 순서가 짜여져야 하고, 집회라고 한다면 그 성격대로 말씀집회면 말씀 위주의 순서로 전도 집회면 회심자를 초청하는 구도자 중심적인 집회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일예배 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임들의 성격을 정하고 그 순서들이 모임의 성격에 맞게 갱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고신교단 교회에서 매주 성찬예배를 시행한 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로교 통합측과 감리교는 성찬예배의 회복운동을 이미 벌이고 있지만 고신교단에서는 아쉽게도 성찬예배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신교단 교회들 중에 매주 성찬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신교단 교회에서 매주 성찬을 시행하도록 해보고, 그에 대한 결과로 회중들에게 예배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성찬예배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며, 그것이 곧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진 예배순서임을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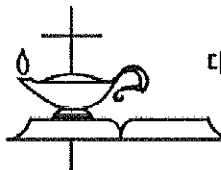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진 예배순서의 흐름을 갖기 위해 광고시간, 주기도문, 성경봉독후의 찬양대 찬양, 새가족환영, 헌금 등의 순서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광고시간, 새가족환영 등의 순서를 잘못 진행하면 예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광고시간은 회중들의 경조사보다도 앞으로 교회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알람이 되어야 한다. 원래 전통적인 기독교 예전에는 새가족환영의 순서가 없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예배 순서에 새가족환영의 순서를 넣는 것은 미국 19세기 부흥운동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결신하고 초청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침례교 전통에서도 예배의 순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신하고 초청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예배순서와 예배요소가 논리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머징 예배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현대적 영성을 강조하는 이머징 교회가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예배를 초월하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현대적인 음악도 있고, 구도자 중심적인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다. 그리고 예전적인 요소와 성찬예배도 있다. 이머징 예배의 특징이라면 예배 안에서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회중들의 참여가 높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회중들의 감각을 통한 경험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무게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도 머지 않아 이머징 예배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머징 예배를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남포교회 주보

2012. 10. 14 제2842호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포교회

http://www.lamp.kr

· 138-89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7 A-201(잠실동, 아시아신수촌상가) · 대표전화:415-1323 팩스:421-7378 · 편집실 전화:420-3155 팩스:419-8997

담임목사 박영선

주일에 배 (추수감사주일)

안도 · 1부 오전 08:00 이대원 목사 · 2부 오전 09:30 서정걸 목사
· 3부 오전 11:00 이대원 목사 · 4부 오후 12:45 김주열 목사

- * 묵 도 다 같 이
- * 찬 송 1장 다 같 이
- * 신앙고백 다 같 이
- 찬 송 10장(통34) 다 같 이
- 기 도 1부:박만화 집사 2부:이승태 집사
3부:채수철 장로 4부:조정래 장로
- 찬 송 588장(통307) 다 같 이
- 성경봉독 살전 3:12-13 1 - 2 부
시 23 3 - 4 부
- 헌 금 위 원
- 광 고 인 도 자
- 찬 양 오 깊도다 주님의 풍성한 지혜 시 온 성가대
찬양하세 오! 예루살렘 베데스다 성가대
감사찬송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세 오! 예루살렘 호 산 나 성가대
- 설 교 1-2부:강 선 목사
'추수감사' 3-4부: 박영선 목사
- * 찬 송 5장 다 같 이
- * 축 도 설 교 자


*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기도

1부:박문규 집사 2부:이 영 집사 3부:최동철 장로 4부:함영규 장로

부록 2

ANC 온누리교회 주보



The Kingdom Come
ALL NATIONS CHURCH

2012 **10.21**

담임목사 유진소, 김태형(차세대)

2012년 표어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 공동체
Community of Grace Rooted in the Word, Growing and Bearing Fruit

ANC 예배안내

주일예배
한국어 성인예배 (A, 본당)
1부 08:00 am
2부 09:45 am
3부 11:45 am
KidzWinc (어린이) (G, F, E)
09:45 am, 11:45 am
중동부 (D)
09:45 am, 11:45 am
고등부 (M915, M800)
09:45 am, 11:45 am
장애우 예배 (M913)
09:45 am, 11:45 am
한어 중고등부 예배 (B207)
09:45 am
청년부 (A, 본당) 1:45 pm
EM (M800) 09:45 am
AWANA (GYM) 2:00 pm

수요일예배
성인수요일예배 (A, 본당)
7:45 pm
중동부 (D) 7:00 pm
어린이 재차훈련
(KidsLinc)(G,F,E) 7:45 pm

목요일예배
목요 찬양예배 (LA) 7:30 pm

금요일예배
고등부 (LIFE GROUP) 주중
청년부 (D401) 8:00 pm
한어 중고등부 예배 (B207)
7:45 pm

새벽기도
월-토 (A, 본당) 05:30 am

<p>경배와 찬양</p> <p>예배로의 부름</p> <p>찬송</p> <p>기도</p> <p>찬양</p> <p>환영 및 교제</p> <p>성경봉독</p> <p>오늘의 말씀</p> <p>헌신과 결단</p> <p>봉헌과 축도</p> <p>찬양</p>	<p>"예수보다 더 큰 사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유경 예배사</p> <p>"하늘 보좌" 새 찬송가 502장(구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p> <p>1부 최정우A 집사 / 2부 이승일 집사 / 3부 신상준 장로</p> <p>1부 온사랑 / 2부 온아름 / 3부 온누리</p> <p>"우리는 한가족"</p> <p>창세기 12:1-3 "B2B" 유진소 목사</p> <p>"주님 임재됨",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p> <p>"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p>
---	---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예배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공역이 제공됩니다.
- 2, 3부 예배 시 영어 동시공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 준비된 수신기를 사용하십시오.
Simultaneous English Translation is available for the 2nd and 3rd services.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GA 91342
TEL 818.634.7000 | FAX 818.899.8355 | www.anconnuri.com

가야성안교회 주보

www.seongan.or.kr 제41권 43호 2012년 10월 21일 **노광호 수장교**



| 예수말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 오기만 하면 은혜받는 교회
|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안교회
Seong-an Presbyterian Church

| 섬기는 분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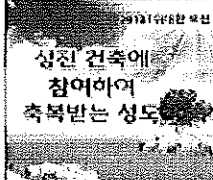
- 목 사 / 윤장운
- 김경호
- 김병수
- 김정원
- 김민호
- 강진실
- 반한울
- 유학목사 / 김태길
- 정태영
- 문화랑
- 강도사 / 김정현
- 옥경운
- 전도사 / 최상준
- 강찬국
- 사무장로 / 오상운
- 이정배
- 배동환
- 김정일
- 정소현
- 이상대
- 서길원
- 정원호
- 김용달
- 강천
- 김여환
- 김후식
- 주경중
- 한상덕
- 임기식
- 문갑생
- 김대호
- 박진기
- 임재갑
- 김수철
- 원로장로 / 김두석
- 은퇴장로 / 김성호
- 김창록
- 최경식
- 박점수
- 안원무

행복
추제
7주전

〈오전예배〉 1부: 9시 / 2부: 10시30분 / 3부: 12시
사회 | 1부: 김정원목사
2부: 김병수목사
3부: 김민호목사
설교 | 1부: 김경호목사 2·3부: 윤장운목사

예배의부름 새영광송	다같이
기원	사회자
주악	찬양대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8장/287장	다같이
교독문화답 6번/1번	다같이
기도 1부: 김여환장로 2부: 김용달장로 3부: 강	천장로
찬송 191장/521장	다같이
성경말씀 1부/마20:1~16(신,33p)	사회자
 2·3부/막10:17~31(신,71p)	
헌금	다같이
봉헌사 (사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심일조를	
 참고에 들어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회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	
 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	
 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3:10)	
봉헌송 634장	다같이
기도	설교자
찬양 1부: 특송 2부: 호신찬양대 3부: 시온찬양대	
새가족환영 환영송 "여러분을 향하신"	다같이
말씀선포 1부/ " 축복의 우선순위 "	설교자
 2·3부/ " 복음을 위해 헌신한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 "	
찬송 197장/341장	다같이
축복의선포 (사회) 여호와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민6:24)	
 (회중)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명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6:26)	
 (사회)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	설교자
〈다음주기도〉 1부: 김후식장로/2부: 주경중장로/3부: 임기식장로/노인부: 김수철			

김해중앙교회 주보

교회설립 1951.10. 3	2012.10.21(61-43)	
 <p style="font-size: small;">이타님의 진 성전을 세워가는 한에</p>	<p style="font-size: small;">온혜와 사랑으로 김해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p> <h3 style="text-align: center;">김해중앙교회</h3> <p style="text-align: center;">Gimhae Jungang Presbyterian Church</p> <p style="font-size: x-small;">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54-5번지 http://www.gjp.or.kr 전화: 0551333-2771~4 Fax: 0551334-2775</p>	 <p style="font-size: small;">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축복받는 성도</p>

주일날 예배

◆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드립니다(요4:24) ◆

■ I 부 7:30 II 부 9:30 III부 11:15 IV부 13:45

■ 사회/ I부 김보성목사 2부 이승민목사 3부 신영준목사 4부 이종훈목사
■ 설교 / 강동명목사

☞ **일어서서**

■ 찬양과 경배

☞ 경배의찬양 (Worship Hymn) 예수 우리왕이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있네

☞ 예배 기원 (Invocation) 사 회 자

☞ 사도 신경 (Apostles' Creed) 신앙고백

☞ 아 - 멘 송 (Amen) 찬 양 대

☞ 영광 찬송 (Glory Hymn) 35장(큰 영화로신 주) 다 같 이

☞ 예배 기도 (Worship Prayer) I 지승진집사 II 안주환장로 III 김문기장로 IV 김철한장로

■ 말씀과 응답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이고보서 3장 6-12절(신약p373)

영광 찬양 (Glory Hymn) II 시온찬양대 III 칠렐루이찬양대

광 고 (Announcement) 시 회 자

회중 찬양 (Congrossional Praise) 세상에서 방황할 때(중찬215) 다 같 이

침회 및 소원기도 (Prayers of Penitence & Wishes) 성전건축 50대 기도서목(38-43) 다 같 이

설 교 (Message) 책임감 있는 말, 축복의 말 강동명목사

■ 감사와 봉헌

봉 헌 기 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친 송 (Grace Hymn) 258장(생물과 같은 보혈은) 다 같 이

헌 금 (Offering) 다 같 이

■ 환 영

새가족소개 (Fellowship)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 이

■ 은혜와 축복

- ◆ 사회: 어호와는 베풀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 ◆ 회중: 어호와는 그 영광을 베풀게로 향하여 드시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리
- ◆ 사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 ◆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 도 (Benediction) 강동명목사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계시어도 됩니다)


· 다음주 기도 : I 이성홍집사 II 김찬오장로 III 홍성기장로 IV 김만길장로

정원국동방송 (FM99.1MHz) · 설교방송 : 매주목요일 오후7시

부록 5

분당샘물교회 주보

샘물교회는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쁨과 영광을 삼가

샘물교회
1998. 10. 25 설립
15권-43호 / 2012. 10. 21

샘물교회는 구도자(VIP)를 환영합니다

12 목장연말예배 / 1부(8:20) 인도 장태수 목사
 2부(10:00) 인도 유정식 목사

- 수확할 벼을시다 / 여비대부(2부)
- 수확봉역 / 봉역 목사(2부)
- 여태모의 부름 / 안보자
- 목장기도 / 다같이
- 임례송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신앙고백
- 찬양 / 384(구434장)
- 합심기도 / 다같이
- 대표기도 / 최희규 장로(1부), 김형동 장로(2부)
- 생물소식
- 유아세례 / 김주현(남 12.5.29 김세현, 최우진)
도쿄 / 김형동, 송병숙 목사
- 찬양 / 생명섬 찬양대(1부) 은혜섬 찬양대(2부)
- 성경봉독 / 롭 2:25-33
- 말씀 /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려면
최문식 목사
- 헌신찬송 / 491장(구543장)
- 헌금 / 임동
- 축도 / 설교자
- 성도의 교제 / 다함께
- 헌신 / 원하는 분은 번 알지리로

***** 소림가부 예배 (14:00) / 장소 8106호

- opening praise(찬양)
- Congregational prayer(대표기도)
- Sermon(설교)
- Hymn(찬송)
- Offering(헌금)
- Welcome & Greeting(환영)
- Lord's Prayer(주기도문)

3 목장연말예배 (12:00) / 인도 장태수 목사

- 찬양 / 쉼기나 찬양팀
- 합심기도 / 다같이
- 대표기도 / 최희규 장로
- 생물소식
- 유아세례 / 이호풍(남 12.3.18 이시영, 이은주)
김유은(여 12.3.29 김규동, 김남정)
송창규(남 12.6.1 송병욱, 김비영)
- 감사장 / 송병욱, 김미림 목사
- 성경봉독 / 롭 2:25-33
- 말씀 /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려면
최문식 목사
- 헌신찬송 / 491장(구543장)
- 헌금 / 임동
- 축도 / 설교자
- 성도의 교제 / 다함께
- 헌신 / 원하는 분은 번 알지리로

4 장년연말예배 (14:00) / 인도 김형연 장로

- 찬양 / 연합찬양팀
- 성경봉독 / 범전 1:13
- 말씀 /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김상훈 목사

강독자모임

본당 오후 4시
 말씀 : 최문식 목사

• 모든 예배 순서 참여자는 예배시작 5분전까지 본당 앞 왼쪽의 지정 좌석으로 와 주십시오.
 • 좌석은 안쪽 자리부터 좌회우회용. • 모든 가능한 분은 참여하십시오.




홈페이지 : www.smcc.or.kr

모바일설교 : m.smcc.or.kr

부록 6

향상교회 주보



2012년 표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자
 2012. 10. 7. 제 13권 41호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www.hyangsang.com

이표어는 자라면서 알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배	1부예배 (08:00)	2부예배 (09:50)	3부예배 (12:00)	4부예배 (2:00)
예배 인도	나해주 목사	김석홍 목사	윤석철 목사	나해주 목사
말씀	정주채 목사	정주채 목사	정주채 목사	정주채 목사
인사와광고	인도자			
입례 찬송	'임재'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 고백	경배와 찬양 (제이홀릭 찬양팀)
찬송	78장		경배와 찬양	
성경 교독	십계명		나가된 땅 귀한 성(신2:26) 온 세상 창조주 (창33:4) 찬양하세 (창5:9)	
신앙 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나가된 땅 귀한 성(신2:26) 로즈아미 찬양팀	
찬송	96장			
대표 기도	조익현 장로	김영태 장로	김수용 장로	김준기 집사
봉헌 특송	다윗 중창단	베데스다 중창단	로렘 중창단	
봉헌	630장			
성경 봉독	조순연 권사	정영숙 권사	조명련 권사	
	히1:1-3(신약p.351)			
찬양	글로리아찬양대 <승리하며 나가세>	호산나찬양대 <미른뵤를이>		
설교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찬송			80장	봉헌
축도			설교자	
사명 선언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지상영령을 따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광고

* 4부 예배장소는 구성삼거리 비전센터입니다

■ 다음주 예배 봉사자				
대표 기도	이재혁 집사	신현영 장로	한언태 장로	한석우 장로
성경 봉독	황미화 권사	허정자 권사	최성애 권사	

참고 문헌

1. 국문 서적

- 김강인. "통합적 예배 모델에 기초한 예배 갱신 방안: 벤추라 열린문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김경환. "대만 장로교회 예배갱신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김기영.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이머징 예배 연구*. 천안: 백석대 기독교 전문대학원, 2011.
- 김기현. *한국교회의 예배와 생활*. 서울: 양서각, 1984.
- 김남수. *예배와 음악*. 서울: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95.
- 김득룡. *현대교회 예배학 신강*.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5.
- 김동수. *예배학개론*. 서울: 대학기독교 교육협회, 1967.
- 김소영. *현대예배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_____. *현대예배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2000.
- 김영재. *교회와 예배*.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1995.
- 김충환.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곽승기. "전통적인 장로교회 안에서의 예배 갱신에 관한 연구: 서울 영락교회 젊은이 예배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출판국, 199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통합). *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1.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표준예식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3.
- 명대준. "한국 개신교회 예배 순서 갱신의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 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3.
-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백천기. "공예배 의식 갱신에 관한연구: 한국개신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4.
- 소의수. "한국장로교회의 예배갱신원리와 실제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노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6.
- 신앙과 직제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새 예배서*.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2.
- 신학교재편찬위원회. *간추린 예배학*. 서울: 세종문화사, 1998.
- 안승오. *능력있는 예배를 위한 7가지 질문*. 서울: 빌라델비아, 2001.
- 유선호. *예배 갱신운동의 정체*. 서울: 할렐루야서원, 1993.
- 유체창.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윤두태. "새 시대 예배갱신과 교회성장: 가성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안성훈.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고신교단의 존재 의의." 부산노회(고신) 목사고시논문, 2009.
- 이기옥. "한국교회 성만찬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기춘. *예배갱신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이성구. "셀 교회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성안교회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 이승숙. "한국교회주일 예배순서분석과 제안." 침례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재정. *한국 성공회사 개관*. 서울: 성공회 출판사, 1980.
- 정일용.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이레서원, 2000.
- 장윤식. "한국 교회 예배 모델 활성화 방안: 별떼 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 정철범. *성공회 입문*. 서울: 성 베다교회 출판사, 1989.
-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1999.
- _____. *예배의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장주섭. "회중교육을 통한 예배갱신: 원주 은혜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 주승중. "고전적 가치를 지닌 믿음의 예배를 꿈꾸며." *목회와 신학* 207 (2006년 9월): 62-69.
- 주승중, 유재원.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소망신학포럼 21세기 기독교 영성과 교회 1*. 주승중 편.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최덕성. *전통과 신학*.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6.
- 최성준. "예배갱신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의정부 산성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 최희범. "한국 개신교회 주일 낮 예배순서에 관한연구." *신학과 선교* 18 (1994년): 37-66.
- 한국 루터교 선교부. *예배의식문*. 서울: 컨콜디아사, 1989.
-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3.
- _____. "초기 한국 성결교회의 예배: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성결교와 신학* 3 (1999년): 149-183.

2. 번역 서적

- Albrecht, Christoph. *예배학입문 (Einführung in die Liturgik)*. 김한옥 역. 인천: 마울, 1999.
- Chapell, Bryan.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Christ-Centered Worship)*.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 Kimball, Dan.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Emerging Worship)*. 주승중 역. 서울: 이레서원, 2008.
- Hahn, Ferdinand. *원시 기독교 예배사 (Der urchristliche Gottesdienst)*. 진연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John, Ilion T. *복음적 예배의 이해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Langford, Andy. *예배를 확 바꿔라 (Transitions in Worship)*. 전병식 역. 서울: KMC, 2005.
- Maxwell, William D.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역. 서울: 콤파출판사, 1998.
- Ronald, Allen.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Worship)*. 황원찬 역. 서울: 예루살렘, 1993.
- Webber, Robert E. *예배학 (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_____. *살아있는 예배 (Worship Is a Verb)*. 황인걸 역, 서울: 예본출판사, 2006.
- White, James F. *기독교예배학입문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 _____. *개신교예배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_____. *기독교예배학입문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조기연 역.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0.
- Tozer, A.W. *예배인가, 쇼인가! (On Worship and Entertainment)*.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4.

3. 외국 서적

- Buridan, Steve. "Seekers' Service and Believers' Worship." In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3*. Edited by Robert E. Webber. Nashville: Star Song, 1993.
- Burkhart, John E. *Wo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2.
- Engle, Paul E. and Paul A. Basden. *Paul A. Exploring the Worship Spectrum: Six view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 Segler, Franklin. *Christian Worship*. Nashville: Broadman Press, 1967.
- Underhill, Evelyn. *Worship*. New York: Crossroad, 1989.
- Webber, Robert E. *Blended Worship*.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4.
- _____.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Ministry Resources Library, 1982.
- _____. *Worship Old & New: A Biblical, and Pract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 _____. *The Renewal of Sunday Worship 3*. Nashville: Star Song, 1993.
- White, James F. *New Forms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 _____.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4. 인터넷 자료

- “김해중앙교회: 소개 및 비전.” www.gjp.or.kr/sub/sub01_02.php (Accessed October 15, 2012).
- “남포교회 목회철학.” http://www.lamp.or.kr/sub_2.html (Accessed October 3, 2012).
- “미국 복음주의 ‘이머징 예배’ 논란.” *기독신문* (2010년 5월3일자).
<http://www.kidok.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4535>
(Accessed October 10, 2012).
- “샘물교회: 소개.” <http://www.smcc.or.kr/church/sub01.asp> (Accessed October 24, 2012).
- “향상교회: 교회소개.” <http://www.hyangsang.com/?xyz=pc> (Accessed November 2, 2012).
- Brown, Steve. “Orders of Service for ‘Blended Worship.’”
<http://sjbrown58.wordpress.com/2009/07/23/orders-of-service-for-%E2%80%9Cblended-worship%E2%80%9D/> (Accessed October 5, 2012).
- “St. Andrew: Ministry Info.” <http://www.st-andrew-online.org/MinistryInfo.aspx>
(Accessed October 5, 2012).
- “Worship Ideas You Can Use” <http://sjbrown58.wordpress.com> (Accessed October 5, 2012).

Vita of
Sunghoon Ahn

Present Position:

Associate Pastor of Shining Light Church, CA

Personal Data:

Birthdate: September 23, 1977
 Marital Status: Married to Hyeyoung Lee
 Home Address: 709 Locust Street #3,
 Pasadena, CA 91101
 Denomination: Presbyterian of Korea(Kosin)
 Ordained: 2009

Education:

B. A.: Kosin University, Busan, 2003.
 M. Div.: Korea Theological Seminary, Cheonan, 2006.
 Th. M.: The Graduate School of World mission &
 Ministry, Kosin University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3.

Personal Experience:

2010 to 2012 Associate Pastor
 of All Nations Presbyterian Church, CA
 2005 to 2010 Associate Pastor
 of The First Yeongdo Presbyterian Church,
 Busan